

100주년을 준비합니다

영란,
영란인 자랑스럽습니다

RE 영란 속으로

일상의 선율에 스미다

응원합니다

함께하였습니다



YoungRan Z

知



* 표지그림 김숙 작가_49회

2024_05 
전주여자고등학교총동창회

영란Z 知

2024 전주여고 개교 98주년

영란Z

Z_지_知

영란Z_영란을 알다, 알리다

영란A to Z_영란의 모든 것을 담다

영란Z세대까지 스며들다, 아우르다



소녀, 그리고 소녀

모교 방문 중에 스치듯 만난 아이,
꽃샘추위에 숨어있던 봄 햇살이
그녀의 발그레한 뺨 위로 살포시 내려앉는다.
백선과 하얀 교복의 소녀
문득,
단발머리의 내 모습이
그리고 그 시절의 조각난 추억들이
아련한 기억 속에서 서성인다.

저 소녀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걸까?
그녀 안에서 발견한 또 한 소녀,
그때 그 아이는 어떤 꿈을 꾸고 있었을까.....

표지그림 작가 김숙_49회

영란Z

2024 ISSUE

발행일 : 2024. 5. 25.

발행인 : 차연수

편집인 : 허명숙, 송정옥

발행처 : 전주여고총동창회

기획 · 디자인 : (주)인디케이

누리집 www.younggran.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편집위원장의 글 |

모두 애(愛)썼습니다

그동안 ‘영란Z’ 1, 2호가 나올 때 편집장의 말이 들어가야 한다는 권유도 있었지만

동문 모두의 숨결이 닿아있는 ‘영란Z’에 제 글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여러 동문님들의 노고에 누가 되진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3호는 현 차연수 회장의 임기 마지막에 발행되는 소식지인지라

제 나름의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다 톨스토이 때문입니다. 사랑을 미루지 말라나요?

소식을, 글을, 그림을, 사진을 모아주시고 보내주신 동문님들 감사합니다.

기다려 주시고 읽어주신 동문님들 감사합니다.

모시지 못한 분들, 신지 못한 소식들은 좀 더 좋은 기운을 입어서

다른 기회에 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위안해 봅니다.

3호에는 2026년에 맞을 ‘개교 100주년’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동문님들의 더 많은 관심을 기대하면서……

매호 탁월한 기획을 해주신 차연수 회장님

항상 적극적으로 나서준 송정옥 편집위원님

13대 총동창회의 ‘우렁각시’를 마다하지 않은 임직원 동문님

좀 더, 좀 더 멋지고 알찬 ‘영란Z’를 위해서 끝없이 수정작업을 해주신

인디케이 광현해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1 발간사 · 07

· 차연수 _ 13대 총동창회장

02 축사 · 08

· 양정은 _ 재경총동창회장 · 이영숙 _ 전주여고 교장

03 개교 100주년을 준비합니다

100주년, 영란 미래를 꿈꾸다 · 11

· 남상숙 _ 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장

100주년, 우리에게 더 특별해요 · 14

우리는 영란家 } · 3대 내림 동문 _ 정진숙 동문(53회)
· 다섯자매 영란인 _ 이재운 동문(44회)

04 영란, 영란인 자랑스럽습니다

일구다, 삶 · 29

· 정길자(43회) 재경총동창회 고문 · 유한신(43회) 미국 오키모스 시 가정의학과 의사, 미시간주립대 의대 겸임교수
· 이선택(49회) 안타나나리보 국립대학 교수, 선교사

새기다, 보람 | 모교 전·현직 교장 동문들 · 46

· 박춘자(32회) · 김계순(44회) · 송인순(47회) · 장해송(52회) · 이영숙(54회)

더불다, 빛나다 | 70회 이상 동문들 · 56

· 송신영(72회) 전주여고 교사 · 우아롬(73회) 법률사무소 한서 대표변호사
· 강문경(73회) 전북대 교수 · 김민지(74회) 전북대병원 의사
· 이근영(77회) 제주대 교수

05

Re 영란 속으로 · 68

- 50주년 _ 44회, 우리는 영원한 청춘
 - 40주년 _ 54회, 꽃이 피는 삶이 곱다!
 - 30주년 _ 64회, 그때의 우리... 이어지다.
-

06

일상의 선물에 스미다 · 75

- 이영숙(54회) _ 참사랑의 실천가, 드러내지 않는 미덕 45회 박OO 동문
 - 신유순(51회) _ 한 줄기 빛 그리고 변환의 연금술, 모래놀이치료
 - 안선주(51회) _ 25년 만의 전주여고 3학년 7반 반창회, 결석한 세 친구 불러들이다
 - 이희순(51회) _ 나무 삶 나
-

07

응원합니다 · 당신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 84

08

함께하였습니다 · 86

- | | |
|-------------------|--------------------|
| · 기별 모임 활동 | · 총동창회 연혁 |
| · 영란동호회 | · 영란장학회 연혁 및 운영 상황 |
| · 영란리더스포럼 2기 | · 총동창회 회칙 |
| · 총동창회 소식 | · 졸업 동문 수 등 |
| · 재경동창회 소식 | · 전주여자고등학교 소식 |
| · 총동창회 및 장학재단 행사표 | · 감사 및 결산보고서 |
| · 임원 등 명단 | |

100주년을 준비하는 ‘영란 Z’

존경하는 전주여고 동문 선배님, 정겨운 동기들, 사랑하는 후배님~

인사드립니다. 전주여고 13대 총동창회장 49회 차연수입니다.

지난 3년 동안 13대 전주여고총동창회는 크게 3가지 사업에 중점을 두고 일해왔습니다.

첫째는 총동창회 활성화입니다. 전주여고 49회~60회 졸업생으로 구성된 13대 임원들이 ‘영란인의 밤’, 신년인사회 및 이사회, 가을소풍 등 굵직한 행사와 각종 모교 후원 프로그램들을 따로 또는 함께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란의 저력’을 다시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둘째로, 개교 100주년의 차분한 준비입니다. 개교 96주년 기념식 및 총회(2022년 5월 25일)에서 최명자(34회)·남상숙(39회) 동문을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회’ 공동추진위원장으로 추대하면서 ‘100주년 준비’의 길을 나섰습니다. 특히, 총동창회보 ‘영란 Z’를 매년, 2024년으로 3년째 발간하면서 모교 관련 자료 발굴 및 동문 영입, 동문 간의 소통에 역점을 두고 2026년의 전주여고 100주년을 국내외에 알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어른’ 되기 운동 전개입니다. 13대 총동창회의 그간의 모든 행사를 동문들 서로 ‘아름다운 어른’의 거울로 작용하여 ‘아름다운’ 우리의 꿈이 이웃과 사회에 흘러가도록 실행하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면 우리는 성실한 악행자가 될 수 있다’는 한나 아렌트의 철학적 교훈이 지난 3년 ‘더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간 13대 총동창회의 행보에 적극적인 참여와 진심 어린 격려를 해주신 동문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6년, 모교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발간되는 2024‘영란Z’는 그 의미가 매우 큼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의 윤곽이 잡힌 모교 ‘100주년기념사업회’의 소식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동문들의 역사적인 인생 이야기들, 자랑스러운 동문들의 보람된 시대적 활약상과 미래를 책임질 후배 동문들의 빛나는 정착기도 행간에서 찬란한 빛을 발합니다. 더불어 13대 총동창회의 지난 1년 동안의 활동 사항과 동문들의 이모저모 소식도 알차게 엮여져 있습니다.

모쪼록, 금번 2024‘영란Z’가 국내·외 동문들의 마음을 모교 영란동산에 한데 모이게 하고 한마음으로 묶어 다가오는 개교 100주년을 함께 맞이하는 현실적인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2024‘영란Z’ 발간을 위해 애쓰신 편집위원회와 참여해 주신 모든 동문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차연수

49회,

13대 전주여고
총동창회장

‘영란Z’ 세대까지 스며들다



양정은

51회,
재경전주여고
총동창회장

지난 1월 전주여고 총동창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본 단상의 “영란의 꿈, 아름다운 어른”이라는 문구를 보며 전주여고 출신들의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매우 적절한 슬로건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행사와는 달리 전북의 유력인사들이 전주여고 동창회의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덕담을 건네며 함께 하는 것을 보고 역시 지역 유수의 ‘아름다운 어른’들의 행사임을 실감했습니다.

세 번째 출간한 ‘영란Z’는 이러한 ‘아름다운 어른’들의 대표적인 의사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훌륭한 책자입니다. 국내외 경향 각지의 동창들에게 소식을 알리고

모교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며 바로 모교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센스있는 제호와 동창작가의 표지 그림, 기사 구성과 사진들, 알찬 내용. 우리와 비슷한 역사를 가진 어느 학교의 동창회도 흉내낼 수 없는 품격 높은 책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경전주여고동창회에 참여하며 일해 오는 동안 존경스러운 선배님들을 많이 보아왔으며, 선배님들을 닮고 싶다는 열망으로 동창회에 깊숙이 빠져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불어 또한 많은 사랑하는 후배들도 만났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학업, 아르바이트, 인턴, 각종 자격증 취득 등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열심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Z세대인 후배들이 동창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 선배님들은 물심 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Z세대 후배들에게도 우리 선배님들의 무한 사랑은 잘 전달이 되어 후배들이 전주여고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후배간의 이런 화목한 교류가 100년 전통을 잇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은 자명합니다. 이런 점에서 Z세대까지 스며들 큰 비전을 가지고 발간되는 ‘영란Z’는 앞으로 그 역할이 더 기대됩니다.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이라 특징 짓는 Z세대들에게도 스며들 ‘영란Z’를 만드는 총동창회 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영란Z 2024’의 발간이 반갑고 기쁩니다.

‘영란Z’ 영란인의 기록문화 유산

전주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 2024 영란회보 ‘영란Z’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영란Z’가 2022년 개교 96주년을 맞이하며 첫선을 보인 이후 어느덧 3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영란회보 발간을 비롯해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준비하시는 차연수 제13대 총동창회장님과 임원분들, 그리고 총동창회 여러분들의 열정과 모교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주여고는 100여 년의 역사와 과거가 축적되어 수많은 레트로(Retrospect)의 줄임말로 추억, 회상의 뜻, 복고주의를 뜻하기도 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32,669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학교로서 32,669

명의 추억과 열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으며 성장한 동문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국내외에서 이름을 빛내고 있습니다. 또한, 영란 동문들은 총동창회 주관 개교기념일 행사뿐만 아니라 졸업기념식(20주년, 30주년, 40주년, 50주년 등)을 통해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고교 시절의 추억을 소환하면서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기탁하며 모교 및 후배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란인의 저력이 2026년, 100주년을 맞이하여서 한껏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전주여고 전 교직원들은 동문님들의 크나큰 사랑과 신뢰, 그리고 적극적인 후원과 지지에 힘입어 후배들의 교육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모교의 재학생들도 선배님들께서 이루어내신 업적과 전통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실력과 바른 인성을 겸비하고, 독창력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세계를 담은 영란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영란회보 ‘영란Z’를 통해서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 계획과 영란인들의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 동창회 소식 등을 공유할 것입니다. 영란인들의 소통의 공간으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영란인의 역사적 유물에 하나의 층을 굳건하게 쌓았습니다. ‘영란Z’는 고교시절 추억을 소환해내고 그 시절의 꿈을 반추하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또다른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2024년 ‘영란Z’ 발간을 거듭 축하드리며 총동창회의 무한한 발전과 영광을 소원하면서, 동문 여러분의 건승과 평안을 빕니다.



이영숙

54회,
전주여고
교장

개교**100**주년을

준비합니다



너, 나, 우리의 꿈이 꽃핀다

첫번째 이야기

- 100주년, 영란 미래를 꿈꾸다

두번째 이야기

- 100주년, 우리에게 더 특별해요

. 3대 내림 동문

. 다섯자매 영란인

th

첫번째 이야기

영란, 미래를 꿈꾸다

청년기 꿈 싹을 틔워준 전주여고가 100주년을 맞아 탈바꿈된다
전통과 기상이 숨 쉬고 미래가 열리는 영란동산으로

첫째, 역사관 리모델링 [100주년 기념 역사관] 탄생
둘째, 강당은 식생활관, 다목적 체육관 갖춘 [100주년 기념사업 건물]로
셋째, 야외음악당과 더불어 나무와 숲이 있는 교정으로
넷째, 지역 여중생 대상 장학금 지급



남상숙 고문(39회) |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

세상이 급격히 변화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우선시되다 보니 지금은 전통이라는 말이 구태의연하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없이 현재가 있을 수 없고, 더더욱 미래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의 모교 전주여고가 다가오는 2026년 5월 25일, 개교 100주년을 맞이한다고 생각하니 사뭇 자부심과 긍지가 느껴집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절이었던, 2022년 5월 25일, 개교 96주년 기념식 및 총회에서 최명자(34회, 재경동창회 고문)선배님과 제가(39회, 총동창회 고문)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회 공동추진위원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처음엔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었지만 세월과 함께 건강까지 염려되면서 막중한 부담감과 조바심이 컸습니다.

그러나 그간 [전주여고 총동창회]의 행적을 되돌아보니, 총동창회의 모든 일은 한 두 사람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주여고 총동창회의 체계적인 조직체(고문, 장학재단, 기수 별 대표 및 임원 등)가 든든히 자리하고 있으며 특히, 언제나 재경동창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는 생각에 미치자 곧바로 마음에 힘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영란의 저력”을 믿으며 100주년을 맞이하는 희망과 설렘이 더 큼니다.

모교에 대한 각자의 의미는 다르겠지만, 영란동산에서 인생의 가장 영롱한 청년기, 여고시절을 보낸 우리 영란 동문들은 전주여고의 전통과 기상이 우리를 꿈꾸게 해주었고, 그 씨앗을 싹틔우게 해주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졸업 후 그 소중한 것들을 잘 새기면서 살았기에 세상 속에서 꿈을 이루고 열매를 맺어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이제 모교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그 전통과 기상을 보존하고 유지하며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미래사회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영란후배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찾아 준비해 나갑시다.



그간,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회 공동추진위원장’으로서 이미 100주년 행사를 치른 타 고등학교 사례도 많이 수집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주기적으로 모이는 전주여고 총동창회 고문회의, 임원회의 및 기대표 회의를 통해 다가올 100주년 행사에 대한 각계 각층 동문들의 의견도 직·간접적으로 받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모교 상황을 최우선적으로 수렴해서 계획해야 하기에 현 전주여고 교장선생님(54회 이영숙)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행 과정의 계획(안)을 서울에 계시는 최명자 공동위원장님과 항상 공유하였습니다. 우리 전주여고는 공립 일반계 고등학교이기에 첨단 건축물이나 교육환경 등을 갖추지 못하여서 타 사립학교에 비해 학생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면이 많습니다. 따라서 100주년을 맞이하여 영란인다운 우리만의 행사 세부 계획도 많지만, 먼저 모교 교육환경을 의미 있게 탈바꿈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었습니다. 현재까지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굵직한 사업들에 대한 주요(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주여고 역사관 리모델링입니다.

현재 역사관(1994년 준공, 2020년 재정비) 역할을 하는 건물이 너무 협소하고 새롭게 시설을 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이 역사관 리모델링 및 확장을 100주년 기념사업에 포함하여, [100주년 기념 역사관]으로 만들 고자 합니다. 역사관은 기록물들과 물품들을 잘 소장하고 보관해야 하는 특성상 평상시 개방하지 않고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개방하는 폐쇄적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현 역사관에 전시되어 있는 물품들을 전자화해서 동문들과 학생들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는 디지털 역사관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역사관 뒤편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중정(中庭)을 만들어 자연친화적이면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역사관으로 리모델링하여 탈바꿈하고자 합니다. 또한 크게 후원하신 동문들의 이름이 새겨진 때도 만들어 보관하면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2023년, 미국에 거주하는 제 동기 박주봉(39회, Mary Graves and Cecelia Park Memorial Foundation 회장·이사장)이 돌아가신 언니(31회, 박강심- Cecelia Park) 이름으로 총동창회에 5만 달러를 기증하여 총동창회 기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둘째, 강당 신축에 따른 부대시설(집기류 등) 지원입니다.

고등학교의 강당은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입학식·졸업식 등 각종 교내외 행사(개교기념식 및 총회 포함), 그리고 체육수업 등 수업하는 교실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학교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현재 전주여고 강당은 매우 오래된 노후건물(48년)로 안전에 취약하여 증·개축 예산을 신청한 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다목적 복합건물로 증·개축할 예정입니다. 1층은 식생활관, 2층은 다목적 체육관(관람석 포함)으로 사용하도록 신축하여 2025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신축 체육관 건물에 신축예산 이외의 일부 부대시설(집기류 등)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100주년 기념사업비에서 후원하면서 [100주년 기념사업 건물]로 명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야외음악당 건립 및 교정 녹지조성입니다.

옛 전주여고 교정에 있었던 등나무 그늘 아래의 아름다운 추억을 우리 동문들은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전주여고는 교내외 주변 환경이 매우 삭막합니다. 실제로 교내 녹지공간이 부족하여 후배 재학생들의 휴식처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식생활관 부지(식생활관을 다목적 복합건물로 증·개축하여 이전 예정)에 최근 고교건물 트렌드인 야외음악당을 지어 학생들의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건물 뒤 옹벽 능선에 조성된 오래된 나무들과 더불어 숲과 쉼터, 야외음악당이 어우러져 후배들에게 추억의 공간으로 탈바꿈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지금의 운동장 및 담장 주변에 휴식 공간으로 사용할 만한 녹지를 주변환경과 어울리게 조성하면, 후배들이 더 쾌적하고 새롭게 영란의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지역장학금 조성입니다.

전주여고는 전북의 대표적인 역사와 전통의 명문고등학교로 지역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1994년 ‘재단법인 영란장학회’가 설립되어 모교 신입생, 재학생, 졸업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매년 2,100만 원 이상씩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총동창회 이사회 제도(매년 1계좌 10만 원 이상 회비납부)를 통하여 여러 가지 학교교육에 필요한 것들과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13대 총동창회부터는 이런 지역사랑 실천이 모교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매년 1,000만 원씩 3년째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회’는 [100주년 기념장학금]을 마련하여 앞으로 영란의 일원이 될 가능성을 지닌 도내 여중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전주여고의 위상과 정신을 지역사회에 알려, 더 많은 훌륭한 학생들이 영란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13대 총동창회가 발간하는 ‘영란Z’와 전주여고총동창회 누리집(www.youngnan.kr)을 통해 국내·외 동문들에게 다가올 모교 100주년을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영란 동문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이야기 I

100주년, 우리에게 더 특별해요



우리는 영란家 3대 내림 동문 _____ 권정순(26회) 정진숙(53회) 송화연(85회)

입학시험 시대, 연합고사 시대, 고교선택제 시대의 3대 전주여자고등학교 동문이 모였다.

정진숙 전 전북도의원 본인과 모친, 딸 이야기.

정진숙 의원 세 모녀는 전주여고 역사이자 산증인이다.

어머니 권정순 동문은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전주에 거주하고 계신다.

다만 최근에 단기기억력이 약해지고 있어 치료 중이고 아들의 극진한 돌봄으로 따뜻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다.

딸 송화연 동문은 현재 중외제약 연구개발팀에서 인정받는 우수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권정순 동문(26회)
정진숙 동문 모친



정진숙 동문(53회)



송화연 동문(85회)
정진숙 동문 딸



먼저, 세 모녀의 전여고 이력에 대한 설명부터 들려주세요. 집안에 전여고 동문이 또 있는지도요.

친정엄마 권정순 동문은 올해 88세(1936년생)로 26회예요. 1950년 전북여중고를 입학했어요.

전북여중 마지막 기이지요. *1951. 09. 25. 전주여자고등학교로 개칭(3년제)

딸 송화연은 스물아홉(1995년생)이고 전여고 85회로 2014년 2월에 졸업했어요.

저는 63년생이고 53회예요. 1979년 입학했지요. 연합고사 1세대, 뽕뽕이지요.

엄마에서 딸까지 거의 60년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 둘째 딸과 고교, 대학의 학과까지 선후배 사이예요.

집안에 사촌이모(권정애, 34회)도 전여고 동문이에요.

3대가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엄마 내가 다니던 학교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학교를 딸이 다니고 손녀가 다니니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외손녀 졸업식장에도 갔어요.



진숙 엄마의 손녀 사랑과 동문 애정이 각별해요. 식구가 모여있을 때 '3대 동문이 모였네.'라고 콧 꺾어서 말하곤 하셔서 비 전여고인 큰딸이 소외감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하죠. 큰딸이 전북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이럴 때 '어? 전여고가 뭉치네!!' 그런 기분이라고 하더군요.

새끼 키운 보람을 느낄 때가 몇 번 있는데, 그중에서 딸이 전여고 교복을 맞춰서 입고 집에 왔는데 교복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정말 뿌듯했지요. 그런데 정작 우리 딸은 교복이 안 예뻐서 눈물 흘리면서 집에 왔으니... 전북외고생 큰딸은 동생 교복이 멋지다고 집에서 전여고 교복을 입고 돌아다녔어요.

어머니는 제가 하얀 백선을 달고 학교 가는 모습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시고 했었는데, 저 또한 제 딸의 백선을 보면서 행복했었습니다.

권정순 동문은 완주군 용진면(현재 용진읍) 구덕리 원구덕 마을의 안동 권씨, 양반 집안(조선 8대 판소리 명창인 권삼득 배출)에서, 쏠씨 좋은 어머니와 사랑 많은 아버지를 두고 외동딸로 태어났다. 남동생 한 명의 단출한 가족. 결혼해서도 외아들이었던 남편과 8명의 시누이들은 워낙 말이 없고 야무지게 일을 해내는 권정순 동문을 존중하고 떠받들었다. 집에서 전주 풍남동에 있는 학교까지 왕복 2시간 넘는 거리를 매일 걸어서 등하교를 했다. 5년 동안. 도시락 2개씩 싸가지고. 이모 집이 학교 근처에 있었지만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도 이모 집에 머물지도 않고 곧장 집으로 왔다 한다.

진숙 노치원 다니기 전까지 건강하셨어요. 그때 걸어다녔던 게 건강에 밑받침이 된 것 같아요. 걸음이 빨라서 몇 년 전만 해도 저보다 더 빨리 걸으셨거든요. 지금도 강단 있으세요.



엄마 1950년에 1학년 입학해서 6·25 전쟁통에 학교를 다니면서 매번 공설운동장에 열리는 행사에 차출되곤 했어요. 공립학교다 보니까 학교가 맨날 앞장서는 거지. 군가 배우느라고 영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이 아쉬워. 6·25사변이 터지고 휴전 후 수습 기간이어서 결강 시간이 많았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30명, 40명 됐을 거야. 강택수 교장선생님이 계셨지. 그렇게 잘생긴 선생님이 없었어.

국어를 좋아해서 대학을 갔다면 국문과를 갔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피를 정진숙 씨 큰딸이 이어받았다.

진숙 엄마 친구 중에 학교 가기 전에 엄마집에 들렀다가 간 친구가 있었다지? 외할머니가 끓인 시래깃국을 먹으려고. 외할머니는 시래깃국이니 콩나물국이니를 한술 풀여서 인근 배고픈 사람들 누구나 먹을 수 있게 했대요. 저는 엄마 고교 때 친한 친구들 근황을 흔히 알고 있어요. 평소 말이 없으신 엄마가 최근 부쩍 옛날 얘기를 많이 들려주시기 때문이에요. 그중에서도 육완정 교수, 故 김인숙 교수는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권정순 동문 본인은 자신이 말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얘기들을 딸인 진숙 동문은 엄마의 기억의 단편들을 소중하게 머리에 담아놓는다. 언제 다시 들을 수 있을지 모르니...

엄마 고등학교 친구들 어쩌다 한 번씩 만나고 있어, 먼저 간 사람도 있고.

딸이 엄마 친구 얘기를 하는 중에 정순 동문은 ‘그 친구 나보다 나이는 어린데 일찍 갔네?’ ‘김인숙이, 가가 호인(好人)이야.’라면서 거드셨다.

특별히 자녀교육을 위해 노력한 점이 있을까요? (또한 전여고 입학을 위해 기울인 점이 있다면?)

진숙 저는 중학교 3학년 5월에 고교 평준화가 발표되어 평준화 첫해에 입학하였습니다. 연합고사 발표 전까지인 3, 4월에만 해도 중학교에서도 한 반에 10명씩 성적 우수자를 선발해서 합숙공부를 하던 참이었어요.

엄마 옆에 있던 딸 화연 씨가 냅다 묻는다. ‘엄마도 10명 안에 들어갔어?’ ‘물론’ 엄마 진숙 씨의 답에 ‘그럼, 그렇지’라는 표정이 된다.

진숙 평준화 발표 전까지 어머니는 전여고 입학을 염두에 두고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과외공부는 기본이고, 학교 가까운 곳에 하숙시키기 등. 제 기억으로는 길을 가다가도 전주여고 교복 입은 여학생을 보시면 저에게 꼭 집어서 말씀하시곤 했어요. 전주여고에 배정받았을 때는 동네 분들 초대하셔서 작은 잔치도 하셨지요.^^ 제가 도의원 당선됐을 때도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으셨어요. 도의원 됐을 때보다 훨씬 좋아하셨지요.

 진숙 제 딸의 전주여고 입학은 운명이었나 봅니다. 서쪽에 살면서 동쪽에 위치한 전주여고에 입학한 것은 저의 강력한 설득 덕분(?)이지요. 착한 아이여서 그런지 엄마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감사하지요!!

 화연 같이 기전여중을 졸업한 친구들 대부분은 기전여고로 갔었고 저는 솔내고를 희망했어요. 우리들 사이에서는 전여고 성적이 별로여서 평판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저는 무엇보다 전여고 교복이 안 예뻐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의 전여고에 대한 강한 자부심에 제가 설득당했지요. 10지망까지 쓸 수 있었는데, 전여고를 1지망으로 썼거든요. 그래도 그때만 해도 전여고 경쟁률이 1.12대 1이었는데, 갈수록 경쟁률이 더 낮아졌어요. 학교 들어가서 보니까 규율이 엄청 심한 거예요. 치마 길이는 무릎 아래까지 내려와야 하고... 교복이 맘에 안 들어서, 치마가 긴 것이 맘에 안 들어서 등교하면 무조건 체육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체육복으로 갈아입는 것도 겨울에는 예외였어요. 하늘색 체육복은 제 취향이 아니었거든요.

당시 학생들은 교복이 전여고를 오고 싶어 하지 않게 하는 한가지 이유라면서 교복을 바꾸자고 학교에 건의하기도 했단다. 그저 전여고 교복 입은 모습이 좋아서 딸의 전여고 입학을 고수했던 외할머니 권정순 동문으로서의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다.

 진숙 어렸을 때 엄마랑 길을 가다 전여고 교복 입고 지나가는 전여고생을 보고 엄마가 제 머리 뒤통수를 만지면서 ‘전여고 교복이 어울려야 할 텐데’라고 하셨던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딸의 땀은 머리와 교복 입은 모습을 그려보신 거지요. 그때는 전여고생들이 머리를 땀고 다녔거든요.

화연 동문은 그래도 학교에 면면히 흐르는 역사와 전통에서 자긍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진숙 실은, 뽕뽕이 설움도 컸어요. 제가 고1 때였는데, 전고생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쳐서 가다가 잠시 멈춰서 저를 보더니, ‘에이 1학년이네’하고는 가는 거예요. 일부러 약 올리려고 그런 것이지요. 학교에서도 우리 기수를 은근히 차별했어요. 과목 선생님 배치라든가... 나중 알게 된 거긴 하지만... 1학년인 우리들은 신경 안 쓰고 2, 3학년에 집중 지원했으니까요. 평준화로 들어온 우리들에게는 기대를 하지 않았던 거지요. 그런데도, 소위 뽕뽕이 출신인 우리 동기들은 그때도 지금도 전혀 기가 죽지 않았어요.

3대가 내림으로 전여고를 다녔기에 다른 동문들과 견주어서 애교심과 자긍심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권정순 동문은 지역에서 알아주는 학교, 일류 명문 중고등학교를 다닌 자부심이 크다. 일종의 ‘보이지 않는 명예’다.

 진숙 어머니는 평생을 전주여고생으로 자존심과 품위를 지키셨습니다. 저 또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디에서나 항상 전주여고 동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품위를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사실 저의 지방의회와 정당 활동에서 전주여고 동문이 주는 이점이 참 많았습니다. 이낙연 의원, 강봉균 의원, 박주선 의원 등 유력 정치인 배우자나 현실 정치인 중 동문이 꽤 많아요. 기대치와 책임감이 함께 따랐지만요.

정진숙 동문은 도의원 시절, 전여고생 후배인 딸과 있었던 에피소드 한 가지를 들려준다.

진숙 화연이가 전여고 다닐 때 제가 도의원하면서 잘 보살펴주질 못했어요. 어느 날, 학교에 물 끓이는 기계가 없다고 딸이 하는 소리를 얼핏 듣고 두 개 층에 놓을 기계 두 대를 학교에 사주었지요. 여러 가지로 조심스러워서 저도, 학교에서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뒤늦게 알게 된 딸이, 아니나 다를까, 저한테 ‘도의원이, 딸이 다니는 학교에 그런 기계를 사주는 것이 반칙 아니냐’면서 혼썰을 내고(?) 또 엄마를 마뜩잖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기계 한 대 더 사줄 수 있냐고 하더군요. 위층의 언니들이 매번 물을 끓일 때마다 아래층에 내려와서 기계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불편을 털어주고 싶었던 거죠. ‘반칙’에 예민한 고교생이었던 송화연은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엄마가 자랑스럽고, 강요하다시피(?)해서 전여고를 선택하게 해 주신 엄마가 고맙다.



화연 결혼해서 전주에서 살면 제 딸도 전여고에 보내고 싶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교정의 모습도 달라졌는데요. 기억하고 있는 교정의 모습은 어떤가요?

진숙 어머니와 저는 교가가 바뀌었고 저와 제 딸은 같습니다. 학교 자리도 어머니는 풍남동이었고 저와 제 딸은 인후동입니다. *1974. 06. 24. 풍남동에서 인후동으로 이전
교복의 상징적인 백선도 어머니 때는 선이 더 굵은 흰색과 검정이었고, 외할머니께서 손수 만들어 주셨대요. 저는 학교 앞 문구점에서 사서 꼳았었고, 제 딸은 교복에 직접 바느질된 백선이었지요. 교복 형태가 조금씩 바뀌어도 백선은 그대로 유지된 것이지요. 어머니가 제 졸업식 때 오셔서 “교가는 바뀌었는데 졸업가는 그대로다”고 하셨고 “강당에 있던 아마하 그랜드피아노는 예전 그대로다”고 말씀하셨어요.

고교시절 추억거리나 잊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엄마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원죽, 소풍이 있었어요. 전주 인근 가까운 곳으로 갔어요. 전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이긴 했어도, 수건 돌리기, 보물 찾기도 했었어요. 재미있게 지냈지요.

진숙 저희 때는 영란제 추억이 지금도 동기들 사이에서 최고의 추억거리예요. 인도 의상 입고 인도사람 분장했던 게 기억에 남아요. 고2 때 있었던 전국체전에서 부채춤을 식전행사에 공연하려고 6개월 동안 연습했던 힘들었던 추억은 지금도 자료화면에서 가끔 상기시켜 주곤 하지요.

화연 고1 때 새 교사를 지으면서 방학 때 노력 봉사해서 교정을 만들고 고2 때 새교실에서 수업을 했답니다. 저희는 영란제 대신 에어로빅 대회로 단합을 다졌어요.

전여고가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이 궁금합니다.

진숙 많은 분들께서 실감하시듯, 전주여고 동문이라는 울타리가 주는 자긍심과 책임감은 생활의 전반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리더로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지역 주민으로서~ 사우나, 목욕탕을 가도 전여고 출신 어르신들은 왠지 품위가 있고 달라 보였어요.

화연 제 또래들은 동창회나 동문끼리의 연대가 없긴 해요. 그래도 명절 때나 휴가 때 전주에서 반 친구들 여섯 명은 계속 만나고 있어요. 엄마 또래들 세대에서는 (전여고를 아는 세대들이라고 할까요?) 그래도 딸을 전여고에 보내려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도 우리 엄마가 전여고 출신이야. 그러면 반응이 없었다가도 우리 외할머니도 전여고 나왔어. 그러면 '오!!'하고 격한 반응을 보였어요. 전고는 공부를 잘한다는 느낌이 있는데, 전여고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학교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각자 추구하는 삶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진숙 가정에서, 사회에서 받은 좋은 혜택들을 지인들에게,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역할로 보답하면서 살고자 합니다.

딸에게 바라는 바람, 기대는요?

진숙 어머니는 저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여전히 많으십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항상 믿어주셔서 저에게는 든든한 기둥이세요. 아나운서가 되길 원하셨는데 되지 못했지만 공인으로서 도민을 대변하는 전라북도의회 의원의 역할을 한 것은 어머니의 숨어있는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또 제 딸은 기특하게도 수월하게 성장해 주어서 감사한 딸이에요. 친구관계도 원만하고 직장생활도 기대 이상 잘하고 있습니다.



영란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진숙 지금껏 그래왔듯이 '내가 곧 전주여고'라는 심정으로 살아주시고 전주여고 동문 응집에 소소한 역할이라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진숙 동문은 2006년 민주당 여성국장, 제9대 전북도의원(비례대표)을 역임했다. 2016년 국민의당 전북도당 사무처장에 임명되며 사상 첫 여성 도당 사무처장의 기록을 남겼다.

두번째 이야기 II

100주년, 우리에게 더 특별해요

우리는 영란家 † 다섯자매 영란인

_____ 이재홍(28회) 이재란(29회) 이재순(37회) 이재연(41회) 이재운(44회)

활기차고 쾌활하고, 유쾌한 5자매를 보는 순간, “와! 얼굴이 다 똑같아!”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둘째딸 이재홍(28회) 동문을 비롯해서 바로 밑의 셋째딸 이재란(29회), 넷째딸 이재순(37회), 다섯째딸 이재연(41회), 그리고 막내딸 이재운 동문(44회).

2024년 2월 20일(화) 오후 4시 전주 객리단길에 위치한 NNF 디저트카페에 다 모인 5자매. 이재홍 동문(28회)의 딸인 한숙경 동문(54회)이 운영하는 곳으로 정기휴업일인 화요일, 우리만의 공간을 마련해주어서 좌담회를 편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이날의 모임을 위해 재란, 재순, 재연 세 동문이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기꺼이 전주행을 해주었다.

이 다섯 자매는 10년 전 동창회 날 한 무대에서 노래하고 앵콜까지 받으면서 5자매의 힘, 매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2남 6녀 중 맏이인 첫째 큰언니(89세)만 전주사범학교(현 전주교대)를 나오고 다섯 딸 모두 전주 여고를 졸업했어요.” 딸만 내리 세 명을 낳고 아들에 이어 또 딸 그리고 아들, 다음 딸 둘. 아들 선호사상이 강했던 때 이 딸 부잣집의 부모님은 딸들에게 동생을 업어주게도 하지 않고, 심부름도 전혀 시키지 않으시고, 빨래도 시키지 않으셨다. 웃도, 교복도 물려주거나 물려받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이 집의 ‘귀한’ 딸들을 업신여길까 봐서. 집에서부터 소중하고 귀하게 키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재순(44회)

이재연(41회)

이재란(29회)

이재순(37회)

이재홍(28회)



현직 은퇴 후 사회봉사와 재능 기부, 각자의 위치에서 보람있는 생활
 귀하고 소중한 딸들 집안 분위기에 자부심 '뽀뽀'
 6자매 중 5자매 전여중 전여고 나와, 가장 많이만 전주사범 졸업
 어렸을 때부터 다진 노래 실력, 총동창회 행사날 한 무대에서 공연 '앵콜'
 풍남동에서 인후동으로 이전한 교정, 운치 없어 실망
 이재홍 동문과 막내 이재운 동문, 기수로 16회 차이 납니다

이재홍 아버지가 그 시절 일본에 유학 갔다 오셨어요. 유도선수였어. 일본에서 학교 다니실 때 거창했대요.

젊을 때 일본놈들도 꼼짝달싹을 못 했다고 해요. 그리고 도청 공무원으로 계셨어요. 우린 딱히 부자는 아니어도 구김살 없이 컸던 것 같아.

가장 큰언니 격인 재홍 동문이 말문을 열자 딸들에게서 아버지 얘기가 끝이 없었다.
 특히 아버지의 교육 열정에 관한 일화는 감동적이까지 했다.



이재홍(28회)

이재찬 5교시 수업시간에 뒷문 쪽을 보면, 늘상 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아버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학교 친구들이 우리 아버지를 장학사인 줄 알았을 정도예요. 아버지가 육성회 임원이기도 하셨는데, 점심 먹고 5교시에 잠시 수업 참관하는 것을 교장선생님께 승낙받고 '장학사' 역할을 하셨던 것이지요. 딸들의 수업 참관은 손자들까지도 이어졌어요. 학기초에 손자들 학교를 찾아가셨어요.

이재홍 아버지가 도청에서 서류 쓰고 남은 것을 연습장으로 두껍게 늘 묶어 주셨어. 다른 사람은 연습장이 없어서 선생님 말씀을 못 받아 써. 근데 나는 연습장이 두툼하게 있어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신 것을 무조건 거기에 다 써서 집에 와서 노트 정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 때부터 어디 노래나 무용 발표하러 나가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시대였는데도,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무조건 오케이였어. 그리고 발표회를 늘 시켰어. 1등을 하면 연필을 상품으로 주셨어. 노래 잘하면 도화지 한 장. 도화지가 귀했었나 봐.

2학년 중간고사 때 백지동맹 사건은 지금도 담임선생님께 죄송한 마음

윤성섭 선생님의 "도대체 여러분은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라면면' 상품 못잊어

아버지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계시고 우리는 탁구대에 서서 노래 부르고, 마지막에 어머니 아버지가 노래를 하셨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을 다 할 수 있게 해 주셨어. 아들이고 딸이고를 떠나서 그냥 다. 우리 다섯 자매 모두 합창단 출신에 노래를 즐기고 잘 하는 것도 아버지 덕인 것 같아.

초등학교 3학년 때 해방되고 이리방송국까지 가서 노래를 하는데(*KBS전주방송국은 1938년 이리방송국으로 개국한 뒤 1959년 전주방송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아버지가 출근하셨다가 나를 데리고 이리방송국까지 데려다주셨어요. 세라복도 금방 맞춰서 갖다 주시고, 지금 생각하면 눈물 날 정도예요. 그리고 늘 인간답게 살라고 하셨지요. 아버지가 본을 보였어요. 아버지가 힘들다고 찾아온 일가 친척들을 돈 줘서 보내고, 옷 입혀 보내고, 집도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 집에서 평생을 함께 살았어요. 그 없던 시절에도 우리는 목욕탕을 놓고 살았어. 일본서 살아오신 깎끔쟁이라 늘 목욕을 하시고 씻겨주시고…… 삶을 통해서 교훈을 주셨던 거예요.

이재순 시험 기간에 어머니는 일정 시간이 되면 주무시는데, 아버지는 공부하는 딸들이 잠들 때까지 옆에서 깨어 계셨어요.

이재연 그렇게 많은 딸들을 데리고 주말에 산에 가고, 원두막에도 가고…… 그때 등에 땀뻘 피크닉 가방도 생각나요.

아버지는 막내인 재운 동문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머리를 감겨주셨을 정도로 사랑을 주셨다. (동석한 차연수 회장은 말한다. 이재운 선배가 부모님에게서 사랑을 한껏 받아 그 힘으로 사회에 헌신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자매들이 이날 밝은 아버지 일화의 백미(白眉)는 가장 오랫동안 옆에 있었던 이재운 동문이 들려준 얘기.

“막내야. 엄마 참 이쁘지?” 아버지가 어린 재운에게 물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갑이시거든요. 어머니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깎끔하고 단정하게 매무새를 갖추긴 하셨지요. 솜씨도 좋았어요.”(옆에서 조카인 한숙경 동문이 거든 다. 외할머니가 속옷까지 다려입으실 정도로 멋쟁이셨다고. 한 동문은 장수인 집을 떠나 외가에 머물면서 전주의 초등학교를 다녔다.) 어머니는 풍남동 집에서 학교까지(풍남동에 위치) 점심시간에 따뜻한 물을 학교에 가져오셔서 딸들에게 건네셨다고 하니, 교육열 정도가 어금버금할 듯하다.

이재운 자존심이 하늘 같았던 어머니를 보고 자라면서 한 명 한 명 굉장한 존재감을 키워나갔고,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내 존재감을 채우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다른 언니들에게도 그러셨지만, 특히 막내인 저에겐 정말 아무것도 시키지 않으셨어요. 언니들이 불평하면 ‘막내는 나를 가장 적게 보잖아.’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냥 좋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슬퍼져요.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키워주신 일류학교 학생에 대한 자부심, 크게 영향 미쳐
선후배 예를 갖추고 정을 돈독하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현재 어떠한 생활을 하고 계신지요? 근황이 궁금합니다.

이재홍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고 스물셋에 결혼해서 전북 장수에서 살다가 남편 작고하고 나서 5년 전 전주 아들집 근처로 이사했어요. 장수에 있을 때는 지역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전주 와서는 여고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친구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초대하여 즐겁게 보내지요. 서화자 친구와는 노래 레슨도 받고 있는데 1년에 두 차례 연주회도 갖고 있습니다.

이재란 경기도 평촌에서 살면서 주 4회 성악 및 합창, 2회 가곡교실, 1회 성악 레슨 받고 있어요. 고등학교 가정교사로 있다가 퇴직 후 60세에 단국대 평생교육원에서 성악과정 2년 수료했어요. 이후 MBC아카데미에서 10년 동안 성악 교육을 받았고 노래뜨락 연주자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고, 교회 찬양대에서도 활동하고 있어요. 개인 성악 레슨은 올해로 11년째지요. 현재 84세니까 최고령 성악가이지 않을까요? 24년 동안 성악을 해오면서 연간 12회 독창 무대에 올랐습니다. 재경동창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우리 기수 재경동창회 대표로, 또 재경동창회 감사로도 활동했어요.



이재란(29회)

이재순 경기도 안산에서 살면서 사물놀이 주전 멤버로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도 장구를 치고 있지요. 합창과 피아노 연주에 라인댄스를 하면서 식물을 가꾸 꽃 보기를 즐기지요. 틈틈이 연필화를 그리며 요가로 몸을 다스립니다. 책 읽기도 즐깁니다.



이재순(37회)

생에 감사하면서(배우 김혜자의 자서전 '생애 감사해'의 제목을 차용) 노인복 회관에서 바리스타로도 봉사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안내봉사도 15년째 하고 있지요.

작품성이나 예술성이 있는 영화는 반드시 보는 영화광이기도 합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음미하면서 '영화 본' 느낌을 즐깁니다. 그래서 영화 상영 끝나자마자 청소한다고 객석에서 관객들을 몰아내는 일만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영화에 빠진 것은 아마도 고등학교 시절에서부터 비롯된 것 같아요. 시험 마친 후 '연산군' 도둑영화를 보았던 그 실력을 계속 키워던 덕분(?) 아닌가 싶어요. 그때 타 학교 생활지도부 선생님에게 발탁되어서 일주일 반성문을 쓰고 일주일을 기숙여 살아야 했어요.(모범생 자매들과 결이 다른 재순 언니의 도둑영화 이야기 대목에서 재란·재운 동생이 동시에 한마디 한다. "이제 보니 언니 까졌고만.")

이재연 서울에 살면서 교회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에어로빅과 조깅, 수영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서예와 제과제빵도 제가 즐기는 취미예요.

이재운 전주를 고수하고 있지요. 전주대 명예교수로서 현재 국무총리실 새만금 위원으로 새만금 발전에 힘쓰고 있어요. 역사학자, 문화재 전문가로서 국가와 전북지역 공무원, 여성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역사교육을 통해 역사의식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지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 사적분과 위원장일 때 공을 들여서 전북지역 문화유산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받게 된 것은 큰 보람으로 남았습니다. 또 사회에서 활동하는 영란 리더들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10여 년 전에 ‘영란리더스 포럼’을 발족해서 영란인들이 사회에서 자리 잡고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를 보내고 있지요. 현재는 고문으로 있어요.



이재운(44회)

이재환 막둥이가 지금은 대장 노릇해요. 언니들이 다들 찢찢 매지요. 그냥 젊으니까 꼼짝달 짝도 못 해요. 서울에서 내려오라고 하면 내려오고…… 조카들도 막내 이모한테 별벌 떨지요. 조카들의 카운슬러예요. 어렸을 땐 제가 우리 막둥이를 꼼짝 못 하게 했는데. 글씨 잘못 쓰면 다시 쓰라고 하고,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2부제 수업 그러니까 오후 수업이 있을 때 엄마가 학교에 데려가다 돌아서면 다시 집으로 오곤 했지요. 11월생인데 일곱 살에 학교를 들어갔으니 그랬겠지요. 내가 대학 방학이어서 집에 있을 때였는데, 학교 가다가 집으로 다시 온 막내를 광에 가둔 적도 있어요. 그랬던 막내가……

5자매가 명문인 전여고를 다녔으니 이웃의 부러움을 샀을 것 같은데요.

이재홍 대단한 집안이라고 그러지. 어떻게 해서 전여고를 다섯이 다 다니냐고. 부럽다고. 딸들은 전여중과 전여고를, 두 아들은 북중과 전고를 나왔으니까. 그때는 학교를 안 다니는 사람이 많았어요. 생활이 어려워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나 학교를 다니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도 안 보냈거든요. 대부분 형제 많은 집에 부모 속을 썩히는 자녀가 한두 명 있기 마련인데, 우리집은 예외인 셈이었나?

이재운 그리고 보니 “너네 집이 명문가다.”라고 친구들이 얘기하기도 해요. 나 때도 전여고는 물론이고 전여중도 시험 치르고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때 야간학습도 했어요. 뭐, 딱히 공부에 매였다는 생각은 없지만, 초등학교 시절 어린 학생들을 저녁까지 공부하지 못하도록 상부의 감시가 있었는데, 불을 끄고 음악 계명을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자매가 동문이어서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안 좋은 점도 있었나요?

이재홍 나는 학교에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합창단, 무용부, 송구 선수 활동도 하면서 예체능 분야에서 날렸고, 또 문학소녀로 글도 많이 써서 ‘거울’ 교지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알아주셨고 굉장히 예뻐하셨어요. 선생님 도시락 심부름도 했으니까. 재란이는 숨은 수재예요. 조용한 성품으로 공부벌레였어요. 공부를 잘했지. 재란이가 이재홍 동생이라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놀랐어요. 동생은 1, 2등을 하는데 나는 평균 80점 정도였으니까.

이재현 재홍언니와는 두 살 차이가 나지만 일곱 살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학년으로는 1학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재홍언니를 따라다니면서 시험공부할 때도 친구들보다 언니 친구들과 했어요. 언니 친구들이 무척 귀여워했지요. 언니 따라 무용부,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합창대회에도 나갔어요. 집이 학교와 가까워서 종소리 듣고 달려가 후문으로 들어가는 날이 잦았지만, 그런데도 지각 한 번도 하지 않았지요. 덕분에 모범생으로 불리기도 했구요. 동생들하고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학교를 같이 다니진 않았어요.

전주여고에 대한 자긍심이 남다르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떠신가요?

이재홍 학교에 대한 자긍심은 대단하지요. ‘전여고 다니면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모두 다 우러러보니까 전여고에 대한 자부심이 있지. 그리고 어디를 가나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봐줄 뿐만 아니라 대우를 해줘요. 전여고를 나왔기 때문에 결혼 후 장수군적십자 활동할 때 군 총무과에서 총무를 시키더니 2년 후에는 전라북도적십자 회장에 임명됐어요. 전주여고 후배들이 추천해서 만장일치로 회장으로 선출되었어요. 전주·군산·익산 등 시 지역에서 적십자 활동을 10년 이상해도 회장이 못 되는데, 그 많은 남성들도 아닌 여성인 내가 회장이 된 것이에요. 하늘의 별 따기지. 그 뒤 대한민국 일곱 명의 적십자 대표 중 한 명으로 뽑혀 제네바를 간 것이 잊히질 않아요. 초등학교 교편을 잡았을 때도 그랬지만, 저는 사회에서 전여고 덕을 많이 봤어요.

맨 위 이재홍 동문과 막내 이재운 동문과는 기수로 16회나 차이 납니다. 교정 등 학교 변화에 대한 이야기도 많을 것 같습니다. 변화를 들려주시고 고교시절 추억거리도 들려주세요. 나아가 전여고가 삶에 미친 영향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부탁합니다.

이재홍 풍남동 학교에 다녔어요. 교문에서부터 교실까지 돌이 쪽 있어서 그 전경이 참 좋았어. 그리고 난초가 피어 있고, 또 운동장 한쪽에는 은방울꽃이 짙어지고, 운동장 한쪽에 연못이 있고, 그 옆에 등나무가 있었어. 등나무 아래에서 참 많이 쉬고 했었어요. 체육시간 끝나면 앉아 있고…… 그 교정에서는 추억이 너무 많이 있는데 학교를 옮기고 나니까 모교 같지가 않더라고. 그래도 그 학교 영원히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 교가도 좋았어요. 교복은 요즘 입는 백선이 있는 옷이었어요. 치마 아 니고 바지 입고 다녔지.

제일 기억이 남는 것은, 남편이 문교부 차관이 된先輩님이 계셨는데 그先輩님이 합창대회 출전을 위해 서울에 간 30명 넘는 후배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그 집에서 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노래 연습하고 했던 일이에요. 그때 연대, 고대, 이대, 숙대先輩들이 대회에 다 구경 왔어. 그先輩들이 돈을 모아서 카레라이스를 사주고 있었어. 참 그때만 해도 정으로 살았어.先輩들도 어려웠을 텐데 정으로 도와주고 그랬어. 뭉치는 힘이 있었지요. 그래서 1등 했었던 것 같아.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김태희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그 선생님이 내 평생 내 생활에 지금까지 완전한 프 라이드를 갖게 했구나 싶어. 그 선생님이 가사선생님이셨는데 그 시절의 우리에게 택시 타는 법, 레스토랑 가서 밥 먹는 법, 화장실 쓰는 법, 예의범절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이지 모든 예법을 이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평생에 시집가서도 그 말씀이 늘 기억에 있었어요.

아! 정복술 선생도 안 잊혀요.(선생님을 떠올리는 이재홍 동문의 눈에 약간 이슬이 맺혔다.) 집에서도 항상 복장을 갖추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외출할 때 지체하지 말아라. 시간을 끌지 말아라. 이런 선생님의 말씀을 항상 머릿 속에 두고 있으면서 일을 처리할 때도 한 번도 시간에 늦어본 적이 없어요. 고교 때 은사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뼈와 살이 됐어요.

이재현 등나무 벤치에서 늦게까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던 때가 생각나곤 해요. 전여고 주된 종목인 배구 경기를 응원하려고 공설운동장을 전교생이 줄지어 가서 열정을 다해 응원했던 기억도 있어요. 당시 최대 라이벌인 군산여상과의 경기에서 졌을 때 모두 통곡을 했던 기억이 생생해요.

선생님 중에는 “계절을 앞서서 옷을 입어라.”고 들려주신 가정선생님 얘기가 잊혀지지 않아요. 늘 생각하면서 삽니다.

이재연 제주도 수학여행 갔을 때 태풍으로 출항이 지연되어 숙소(여관)에서 원으로 돌아가며 ‘나처럼 해봐라’ 노래를 부르며 방방 뛰어다니다가 방 구들장이 무너져 당황하고 선생님들이 수습하느라 혼났던 기억이 생생해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막 뛰어다닐 수 있을 것만 같이 힘이 나지요. 이튿날 오전에는 단체로 영화를 관람하고 수학여행을 마쳤지요.



이재연(41회)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또 있지요. 지금도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우리반 아이들끼리도 아직까지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치르는데 갑자기 ‘백지동맹’ 하자는 의견이 돌아서 답안지를 백지로 냈던 ‘황당한’ 기억이요. 이로 인해서 우리반 담임선생님이 교체되었으니까. 아! 그제, 당시 담임선생님께 죄송스러운 마음만 가득합니다. 그때의 영향 때문인가? 난 언제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이해해보려 애를 씁니다. 易地思之의 정신으로. 학교 앞 생활관에서 일주일간 가사실습했던 추억도 있네요.

이재훈 고등학교 때 국사와 세계사 선생님들은 역사에 눈을 뜨게 해주셨고 전공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어요. 특히 윤성섭 물리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부여하신 일류학교 학생에 대한 자부심은 성인이 됐을 때도 크게 영향을 미쳤어요. 선생님은 질문해서 바로 답하면 그때마다 “도대체 여러분은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라며 감격한 표정으로 다소 엄된 격려를 해주시곤 했어요. 그리고 그때 최고의 인기 간식인 ‘라면땅’을 매점에서 주변을 시켜 배달해주시곤 했지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사기를 충전시켜주었어요. 자존감이 엄청 높아졌기도 했구요. 윤성섭 선생님의 영향으로 저도 대학 강단에서 “여러분은 내가 기대한 것보다 넘치게 잘한다”면서 격려하곤 했습니다. 일류고, 수업시간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선생님들의 긍정적인 말씀이 우리가 성장하는 데 80% 이상 자양분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또 합창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전국대회에서 수상했던 그 기쁨은 잊을 수 없지요.

이재홍 전여고를 나왔기 때문에 적십자 회장도 했고, 장수군 적십자도 했고, 평화통일자문위원도 하고 했었지요. 그 시절 전여고 합격 커트라인이 300점 만점에 280점 이상은 됐거든요. 전주 시내 학교도 전교 10등 안에 나 들어야 원서를 써줬었어. 딱 인문과 60명, 문과 60명 해서 딱 120명밖에 안 뽑았으니까. 그래서 전여고를 다니면 자부심이 대단했어.

어떠한 삶을 추구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재홍 어릴 때부터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행복합니다.

이재환 빌립보서 4장 6절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성경 말씀을 새기며 살고 있어요.

이재순 '오늘에 감사하며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자'고 생각하며 실천하려 노력합니다.
(자매들 간 의견 조율의 peace maker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이재운 동문이 귀띔한다.)

이재운 토인비의 '도전과 응전'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삶에 도전(악조건)이 왔을 때 어떻게 응전할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회피할 것인가?로 순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극복의 반응을 하는 게 나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준 동력이 된 듯 합니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 후배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후배 예를 갖추고 정을 돈독하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우리는 선배가 화장실을 갈 때 복도에서 마주친 후배가 비켜주고 또 선배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그랬어요. 서로에 대한 존중이었지요.



이재홍 맨 위 동문은 이 만남을 두고 고교시절을 돌이키면서 영란 브로치도 꺼내 달면서 교복 입은 기분, 백선 단 기분으로 마음이 들뜨고 설렷다고. 한층 젊어진 것 같단다.

장난기 많은 똥끼 기질이 있는 재순 동문은 이것저것 너무 먼 옛날 얘기를 생각해내고 답을 하라고 압박받으니, 스트레스를 받는다는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른 여고 나올 걸 그랬다고, 지금이라도 학교를 바꾸고 싶다고 한마디...

개교 100주년을 맞는 모교에 대한 기대가 크다. 풍남동에서 인후동으로 이전한 모교에 정이 가지 않는다. 시장통에 자리한 데다 굽이굽이 돌아가는 듯 구석에 있어서 언짢다. 재학시절, 등나무 아래에서 아기자기한 추억을 키웠던 그때에 비하면 진입로부터 너무 쌀렁하고 삭막해서 추억이 달아날 것만 같은 분위기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개교 100주년을 계기로 모교가 '뭔가'가 달라지길, 좋아지길 바란다.



04.

영란, 영란인 자랑스럽습니다

일구다, 삶

- 정길자(43회)_재경총동창회 고문, 더시그넘하우스 대표, (주)도타이 대표
- 유한신(43회)_미국오키모스 시 가정의학과 의사, 겸임교수
- 이선택(49회)_안타나나리보 국립대학 교수, 선교사

새기다, 보람

모교 전·현직 교장 동문들

- 박춘자(32회) · 김계순(44회) · 송인순(47회)
- 장해송(52회) · 이영숙(54회)

더볼다, 빛나다

70회 이상 동문들

- 송신영(72회)_전주여고 교사
- 우아롬(73회)_법률사무소 한서 대표변호사
- 강문경(73회)_전북대 교수
- 김민지(74회)_전북대병원 의사
- 이근영(77회)_제주대 교수



일구다, 삶!

기부문화를 싹트게 하는 동문

시어머님 작고 후 '도진화 장학재단' 설립, 매년 대학생 25명에게 장학금 지급

재경총동창회에 매년 1명 대학 등록금의 반액 지원

2022년에 학교발전기금 장학금 1억 원 기탁

칠순 맞아 모교에 뜻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지요.

재경총동창회장 하면서 선·후배님들의 모교와 후배들에 대한 큰 사랑 느껴 실천

정길자

43회, 재경총동창회 고문
더시그넬하우스 대표
(주)도타이 대표



정길자(43회) 재경총동창회 고문을 2023년 12월 5일, 재경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장인 그랜드힐 컨벤션(서울 강남구)에서 인터뷰했다. 인터뷰는 수월했고, 대담 소요시간은 짧았다. 미리 꼼꼼하게 챙겨주신 인터뷰 질문지에 대한 답글 덕분이었다. 또 하나의 큰 사업을 진행 중이어서 몸도 마음도 한가롭지 않은 와중에도... 차분하고 섬세하면서 열정적인, 임하는 시간과 임하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정 고문님께서 삶에 대한 자세를 엿볼 수 있었다.

정길자 고문은 10대 재경총동창회장(2014년~2015년)을 지내고 모교에 학교발전기금 1억 원을 기탁하였으며, 재경총동창회에서 제정한 '자랑스러운 전주여고인 상'을 2022년에 수상했다. 전주여고 교문에는 '정길자 동문(43회) 학교발전기금 장학금 1억 원 기탁' 플래카드가 걸렸다. 정 고문은 우리사회에 기부문화를 싹트게 하는 '아름다운 어른'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저는 강남구 자곡동에서 남편과 함께 ‘더 시그널 하우스’라는 실버타운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 150여 명과 300여 분의 어르신들을 모시며 살고 있습니다. 주로 직원 관리하고 식당 운영 등 여기저기 들여다보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돕고 있어요. 12월부터 입주 신청을 받아 이제 곧 두 번째로 오픈할 인천 청라시그널을 준비하느라 엄청 바쁘긴 합니다. (2004 ‘영란Z’ 발간 이전 오픈한 상태다.)

시간 되는데로 친정어머님을 찾아뵙거나 두 딸의 결혼과 함께 얻은 손주들 부름에 달려 나가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하지요.

얼마 전에는 여행을 좋아하는 남편과 아이슬란드를 다녀오기도 했어요. 대자연에 순응하고 힘든 환경을 극복해 가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작은 ‘나’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하게 되더군요.

※ 정길자 고문은 더 시그널 하우스 대표고, 부군(박세훈)은 더 시그널 하우스 회장이다.

모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모교사랑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모교에 대한 애착함은 항상 있었어요. 26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모교는 늘 제 마음에 있었어요. 마음에만 담아둔 모교였어요. 그런데 재경 동창회의 43회 기대표(2004년~2005년)를 맡아서 모교 소식을 직·간접으로 접하게 되면서 모교에 대한 관심과 그리움이 더욱 커졌지요. 또 모교를 방문했을 때 장학금을 주는 걸 보고 ‘장학금’을 떠올리게 됐어요.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셔서 학교 사택에 살기도 했고, 학교 운동장을 내 집 앞마당 인양 여기며 시골에서는 나름 호사를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전주여고를 거쳐 서울에서 교대를 졸업하고 교직에서 근무도 26년이나 했으니 퇴직할 때까지 학교는 늘 제 곁에 있었고 나를 이만큼 성장하게 해주었어요. 전주여고는 어려울 때마다 나를 지탱해 준 저에겐 은혜로운 곳이고 감사한 곳이지요.

어떻게든 감사를 전하고 싶어 모교에 찾아갔는데 그 당시(2012년) 김옥연 교장선생님께서 아직도 급식비를 못 내는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때에 급식비를 못 내다니~’ 딱한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이 하던 제조업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니 일단 제 연금(1999년 명예퇴직)으로 1년에 1,000만 원씩 3년간 장학금을 드리겠다고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한 게 모교와 연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큰돈은 아니었지만 의미 있는 일에 쓰고 싶었거든요. 그때도 맘속으로 더 여력이 생기면 더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도진화 장학금을 모교에 지원하신 것은 그 뒤의 일인가요? 발전기금 1억원도 기탁 하셨는데요.

‘도진화’는 시어머님 법명이에요.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사시던 집을 정리하고 생긴 돈을 기반으로 남편과 함께 ‘도진화 장학재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지요. 매년 25명 정도의 대학생들에게 재단의 수익금 일부를 장학금으로 주고 있어요. 그러던 차에 재경총동창회에 장학회가 생겨 저도 매년 1명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서울지역 대학 등록금의 반액을 지급하고 있지요. 앞으로도 이 일은 꾸준히 하려고 해요.



그리고 2022년이 칠순이었는데요, 칠순을 바라보는 어느 날, 내 마음에 항상 자리 잡고 있던 모교에 뜻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지요. 이런 마음을 내게 된 데에는 재경총동창회장을 하면서 더욱 커졌어요. 모교를 오가며 선·후배님들의 모교에 대한 사랑과 후배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느끼면서 ‘나도 내가 처한 자리에서 나의 든든한 백이었던 모교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하고 싶어서 5월 개교기념일 전에 학교에 기탁했는데 일이 커져 버렸네요. 이렇게 ‘영란Z’와 인터뷰까지 하고… ※ 2022년 11월까지 도진화장학금 누적액은

896만4천 원에 이른다.

부군께서 하신 제조업에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살면서 힘든 일은 없으셨나요?

남편은 시어머님의 사업가 기질을 이어받은 것 같아요. 시어머님이 남편을 일찍 여의고 사업도 하시면서 아들 넷을 혼자 키우셨어요. 저는 1978년에 결혼했는데, 남편이 제조업을 1986년에 시작해서 손을 댄 것마다 잘되지 않았어요. 큰애가 예닐곱 살 무렵 때는 정말 완전히 망해서 힘들었지요. 그래도 제가 교직에 있으면서 남편 뒷바라지를 할 수 있어서 다행히 일어섰고, 지금은 사업가로서 탄탄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2022년에 재경총동창회로부터 ‘자랑스러운 전주여고인 상’을 수상하셨는데요.

그 후 변화는 없었는지요?

우리 때는 초등학교 때부터 자연스럽게 시험을 여러 번 거쳐 상급학교에 갔고 전주여고를 들어간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직에 나와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주위에서 ‘와~ 명문 나오셨네요.’ ‘대단해요~’ 라며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듣게 됐어요. 그럴 때마다 어깨가 으쓱하곤 했었지요. 그래서 교직에서도 꾸지람 듣지 않는 생활을 하기 위해 스스로 조심했고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받는 칭찬 덕에, 수상 전에는 전주여고를 자랑스럽게 생각만 하며 살아왔다면 수상 후에는 자랑스러운 전주여고인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며 살고 있습니다.

고교시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추억거리를 들려주시겠어요?

1학년 때 자수를 놓아 6쪽짜리 가리개를 만드는 수업을 했어요. 대작이었어요. 그때는 수를 놓으면서 많이 지루했어요. 1년 내내 몸집만 한(?) 자수판을 들고 다니며 수를 놓아야 했거든요.

그때 별로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지는 않은데 결혼 후에 좁은 집에 아이들 키우면서 얼마나 요긴하게 사용했는지 몰라요.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거 엄마가 만든 거야” 자랑도 해가면서 말이에요.

그 가리개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지금은 따로따로 표구를 해서 실버타운 복도에 걸어 놓았어요. 어느 무명 작가의 작품인 것처럼 뽐내며 자리 잡고 있는 액자를 보며 복도를 지날 땐 여고시절을 회상하게 되니 행복하죠.

그때는 지루하다고 느꼈던 그 수업이 50년이 넘는 지금까지 제 곁에서 행복을 주리라곤 상상도 못했지요. 또 해마다 하는 모의올림픽은 참으로 신선했어요. 반별로 나라를 뽑아서 그 나라의 풍습을 재현해 보려고 이 궁리 저 궁리를 하곤 했는데, 아프리카 수단을 뽑은 우리반은 추장처럼 짚으로 치마를 만들어 두르고 생소한 옷차림을 하고 꺼멓게 분장한 꺼멍친구들 모습을 보며 서로 깔깔대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 합니다.

전여고가 고문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대단한 열정으로 저희를 가르쳐주신 선생님들과 이 분야, 저 분야에서 존경을 받는 선·후배님들 덕분에 사회에서 전주여고를 바라보는 시선이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었으며, 제 뒤에 항상 후광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에 지금까지 바르게 살아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여고는 내 마음속에 스승이고, 은혜로운 곳이고, 스승입니다.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여쭙니다. 더불어 신조나 인생철학도요.

제조업으로 일찍 사업을 시작해 바닥이 어떤지 겪어 본 저희 부부는 처음 어려울 때를 생각하면 지금의 하루하루가 감사할 뿐입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운도 좋았구요.

노인복지사업인 더 시그널 하우스를 경영하며 인연의 소중함을 많이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실버타운을 주위의 도움으로 시작하게 됐지요. 주위의 도움 없이 어찌 제가 존재하겠어요. 지나고 보니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그 시기도 고맙고 주위의 인연도 고마울 따름이지요. 모두 나를 가르치고 키워주는 일들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으니 감사하구요.

감사하는 마음이 일면서+ 내 작은 힘이라도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는 삶이 되기를 희망하며 살고 있어요. 감사하니 우리부부는 작은 힘이라도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는 삶이 되기를 희망하며 살지요. 그래서 나도 이롭고 상대도 이로운 상생(相生)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영란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꿈을 꾸라고 하고 싶습니다. 혹여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허망한 꿈이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꿈요.

저만 해도 실버타운을 처음 시작할 때 실버타운을 요양원이나 요양시설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았지요. 요즘은 실버타운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건강한 어르신을 모시는 곳이란걸 알지만요. 100세 시대를 살면서 실버타운은 액티브한 곳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곳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특히 부부가 함께 살다가 한쪽이 먼저 가고 나면 외로워지는데 실버타운에서 좋은 이웃을 만날 수 있고 외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지요. 지금은 젊은 사람들의 예약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실버타운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원불교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원불교강남교당 법당 옆에 빈 땅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복지사업 중 실버타운 안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재단에 권했던 것이, 결국 실버타운을 맡게 된 운명이 되었어요. (할 수 없이) 일단 시작을 해놓고 직원들과 국내는 물론이고 실

버타운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일본 등 배울 만한 곳들을 찾아다녔지요. 서울대 등 몇 대학에서 관련 공부를 하면서 운영을 해나갔어요. 이렇게 문 연 지 2년 만에 입주 완료가 이뤄졌지요.

앞으로 '더시그널하우스 청라'가 안정이 되면 가까운 교외에 어르신과 가족들이 와서 함께 즐기고, 마음껏 편히 지내다 올 수 있는 곳을 마련해드리고 싶은 꿈이 있어요. 저도 꿈을 꾸고, 우리 후배님들도 아름다운 꿈을 많이 꾸어가기를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 작은 돈부터 기부를 많이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습관처럼요. 나중에 큰돈 생기면 기부하겠다는 생각은 결국 행동으로까지 옮겨지기 어렵거든요. 저 또한 원불교 신앙인으로서 전여고 동문인 박청수 교무님(27회)의 설법을 듣고 감화해서 교무님이 선한 일할 때 조금씩 동참하면서 미리미리 씨를 뿌리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이지요. 덕분에 필요로 하는 곳에 조금씩이나마 돕고 있어요. 알고만 있는 것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이 모두 '나', 자신을 위해서 좋은 일이에요. 앞으로도 내 인연 닿는 대로, 힘 닿는 대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저는 43회인데, 43회 전체 모임도 있지만 매주 화요일 20년 넘게 산행을 함께하고 있는 '매화반' 친구들이 있어요. 23명의 회원으로 북한산을 제일 많이 올랐던 우리가 지금은 둘레길이나 낮은 산 또는 공원을 오가며 여고 때처럼 깔깔거리며 하루를 보냅니다. 생각해 보면 서울 주변에 있는 둘레길을 거의 다 걸었던 것 같은데, 저 혼자 힘으로는 가당치 않은 일을 친구들과 하니 즐거운 마음으로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1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만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건강도 챙기고 삶의 이야기도 서로 나누다 보니 어느 모임보다 귀하고 단단해지더라고요. 해마다 해외여행도 다니는데 11월 중순엔 일본 오사카 부근에 있는 와카야마. 시라하마 온천여행을 만끽하고 돌아왔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나면, 나이가 들어가니 친구들이 더 소중하고 보석 같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친구가 평생 같이 살아갈 인연이 될 테니 친구들과 산행 모임을 만들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나이 들어갈수록 소중한 것은 첫째가 건강이고, 그다음에 함께할 친구가 있어야 하는데 산행 모임은 일석이조가 되기 때문이지요.

정길자 고문이 보내온 글

'영란Z'로부터 인터뷰를 하자는데 너무나 부끄럽고 제 일이 자꾸 드러나는 것이 성격상 맞지 않아 고사를 하였지만, 사회에 기부문화를 일깨워 간다는 생각으로 임해 주시라는 말씀에 응했습니다. 저의 작은 마음이 울림이 된다면 더없는 영광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배워서 알고 있는 만큼 실천하며 살아가는 영란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구다, 삶 III

어려운 사람들의 반려자 동행자 ‘루스 윤’

유한신(43회)

미국 오키모스 시 가정의학과 의사

미시간주립대 의대 겸임교수

부부는 결혼하고 바로 미국 미시간으로 갔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 속전속결.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보았던 드라마틱한 남녀의 사랑이야기, 결혼이야기가 이들 부부의 이야기다.

신앙으로 맺어진 이 부부의 깊은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아 보인다. 아니, 아들의 병치레로 시련이 더하면서 더욱 심오해지기까지 한 듯하다.

유한신 동문의 부군 윤성원(56년생), ‘피터 윤’은 사업가이기도 했고, 역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미시간주립대 한국학연구소 소장으로 있다. 스스로 청소, 수리 등 집안일을 (알아서) 하고 있는 ‘쫄따구’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유한신 동문은 돈 관리를 전적으로 남편에게 맡겼고, 심지어 자신이 하루 얼마를 버는지 계산해 보지도 않았었다. 그저 남편이 돈을 잘 쓸 줄 알기에 ‘쓰는 일’을 담당하게 했다고. 의사 가운데 입으면 되는 식으로, 자신을 위해 웃도 잘 사지 않는 엄마가 안타까워 딸은 훈수를 아끼지 않는다. 엄마를 위해서 돈을 쓰라고.

부군은 GIMA(Global Medical Mission Alliance)의 한인의사들 중심의 모임에 멘토로서 자비를 들여 각 대학의 클럽 학생들과 우간다로 8년째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지금은 코비드로 쉬고 있는 중이지만. 지난 설에는 한국 의사와 간호사, 봉사자들, 서독 의료진과 오지에 메디컬 미션을 다녀왔다. 본부 병원을 짓고 안내하는 일이 윤성원 님의 미션이다.

작은 체구의 다부진 얼굴 유한신 동문(43회).

2023년 10월 23일 차연수 회장 님의 에벤에셀에서 마주한 유한신 동문의 인상.

닥터 유한신은 미국에서 ‘미세스 윤’. ‘루스 윤’으로 불린다.

거주하는 곳은 미국의 미시간 주 오키모스. 작은 도시이긴 하지만,

미국 내에서 살기 좋은 곳 29위로 꼽혔던 곳이기도 하다.



**반갑습니다. 먼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독과 시차 극복이 아직 안 되었을 텐데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현재 하시는 일과 요즘 근황을 소개해주세요.**

Michigan주 Okemos라는 도시에서 미시간 주립대학교 의과대학의 겸임교수 그리고 가정의학과
의사로 개인 클리닉에서 주 3일 정도 환자 진료와 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 당, 고혈압, 고지혈증,
우울증, 불안장애 등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가족 단위로 상담 치료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 대부분을 10-20년 이상 지속적으로 보아왔기에 가족 같은 느낌
으로 돌보고 있어서 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치유 받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파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판단 없이 들어
주고 의학적인 처방이 필요하면 해드리는 것이 제 일입니다. 의사가 직업이면서
매일 예수님의 생애를 배워가는 일이 항상 감사하고 의미와 보람을 느낍니다.
내가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대생들을 클리닉에서 실습과 훈련을 시키고, 또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의
mentor로 환자를 진료할 때 환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학생들이 저를 따라다
니면서 의사의 역할을 보고 의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방학 때는 학생들을 데리고 멕시코 국경과 접한 텍사스 주의 리오그란데 강 주변 난민촌에서 중남
미로부터 미국으로 몰려드는 난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치료하는 mission trip을 합니다. 또 멕시코
의 시골이나 온두라스로 학생들과 Medical Mission trip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부로서 어머니로서 세 자녀를 위한 기도와 나만 바라보는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요리도 하
죠. 요즘에는 대학 동창들과 독서클럽도 참석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결혼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부군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의 간호사 유한신 동문은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 26살 때 한국에 들렀어요. 목사님 소개로 선교
사로 일할 사람을 찾던 윤성원 씨를 만났어요. 남편은 철들고부터는 오직 아프리카나 동남아 오지
에서 선교사를 하겠다는 인생 목표를 세우고 전념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서구가 정신적으로 타락
했으며 미국은 로마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지성인들을 복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사님의 말씀
을 새기고 미국에서 선교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는군요. 미국에서 선교활동 할 반려자를 염두에 두
고 있던 시기에 저를 만난 거예요. *옆에서 부군이 한 수 거든다. 정말 결혼을 잘했다고. 자신은 행운이라고.

전원 국가장학금 지급하는 국립의료원 간호학과는 키 작아 자격 미달
어려운 가정형편에 차선의 교대조차 너무 어린 나이가 걸림돌
차차선으로 선택한 서울대 간호학과에 합격

직업이나 외모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선교에 뜻이 있는 여성이면 결혼하겠다는 생각이었다는 거지요. 저 또한 신앙의 길에 같이 갈 동행자를 찾고 있었구요.
남편은 유명 정치가 집안에 큰 키에, 미남에 어디 하나 빠질 게 없었어요. 홀로 된 어머니의 반대와 만류를 이기고 저와의 만남이 있었던 1981년 9월 그 주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전여고 입학할 때나 대학 진학할 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저는 정읍 읍내에서도 들어간 시골에서 분교를 4학년까지 마치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전주로 이사왔어요. 아버님은 고등고시(지금의 사법고시)에 매달려 가족을 돌보지 못하셨습니다. 처음 전주의 국민학교에 와서 시험을 봤는데 100점 만점에 8점인가를 맞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럭저럭 도시 학교에 적응하면서 전주에서 중학교를 나오고 전주여고에 입학했습니다.

저희는 중학교도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졸업 무렵에 전주여중 입시 공부하느라 신경쓰여서 입맛이 떨어져 잘 먹지 못했는데 그 영향으로 이렇게 체구가 작은 것 아닌가 싶어요.

전주여고는 3학년 때 6반까지 있었는데 6반만 자연계고 1반에서 5반까지가 인문계반이었어요. 집 형편이 좋지 않아서 국립의료원 간호학과에 가려고 했습니다. 당시 국립의료원은 전원 국가장학금을 지급했어요. 대학 입학시험이 거의 다가왔는데 알아보니, 국립의료원 간호학과에 입학하려면 키가 일정 수준이 돼야 하는데 항상 맨 앞줄에 섰던 저는 키가 미달됐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키가 크고 잘생긴 남편은 ‘인간 이하 선’이라고 놀리곤 하지요. 150cm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국립의료원은 포기해야 했고, 다음으로 학비가 싼 곳으로 교대를 생각했지요. 당시 가정 형편에 사립대학은 언감생심이었으니까요. 급하게 교대를 알아보다가 또 좌절을 하고 말았어요. 교대 입학 자격조건 중 너무 어린 제 나이가 걸림돌이 됐습니다. 아버님이 시골 분교의 초등학교 교사를 하신 덕분에 남들보다 일찍 학교를 들어간 게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 서울대학교 외에는 갈 곳이 없었고, 늦은 가을 입시 준비를 하면서 원서를 쓸 때 담임선생님(윤성섭 선생님)께 “저 서울대 간호학과 갈래요.” 했더니 저를 한참 반히 쳐다보신 후 “그래. 해봐라” 하시더군요. 그때의 선생님 얼굴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평소 공부에 소홀했고 서울대 갈 성적이 아니었거든요. 성적이 안 되면 입학원서를 써주지 않았던 때였어요. 저를 믿어주고 격려해 주신 선생님과 전주여고가 오늘의 제가 되는 길을 연 것입니다.

"믿어주고 격려해 주신 선생님과 전주여고가 오늘의 제 길을 열어주었지요."

"전주여고는 저에게 인생의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 곳입니다."

아무튼 그해 전여고에서 서울대 간호학과에 2명이 합격했어요. 변광록(43회) 하고. 이 두 전주 촌뜨기들이 서울에서 2년간 자취를 같이 했어요. 엄청 잘 지냈어요. '바바리 3총사'라는 별명도 있었지요. 광록 친구랑 강원도 원주 출신의 친구랑, 이렇게 셋이요. 저하고 광록이가 회색 버버리를, 원주 친구가 곤색 버버리를 입고 다녔거든요. 서울 것들이 자기네들끼리 몰려다니듯이 촌티 친구(지방 출신) 셋이 어울려 다닌다고 그렇게 붙인 거지요. 간호학이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 것인지도 모른 채 그냥 간호학을 공부했어요.

전주여고는 본인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전주여고가 없이 오늘의 제가 없습니다. 전주여고는 저에게 인생의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 곳입니다. 미국에도 전주여고 동창들이 있어서 몇 차례 만났고 가끔 연락하며 지냅니다. 고교 친구들은 언제 어디서 만나도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고교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일까요?

학교에서 밤 11시까지 우리들을 잡아 놓고 의무로 공부시키던 일. 특히 친구 한효수 어머님께서 따뜻한 저녁을 늘 가져오셔서 효수와 저를 먹이시던 일입니다.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따뜻한 마음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미국에서 간호사로 지내기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대는 어떻게 진학하시게 됐나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1977년 6월 '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에서 미국의 학생 복음화를 위한 평신도 선교사를 모집할 때 지원해서 미국행을 한 것입니다. 단돈 \$20를 가지고 시카고에 왔어요. 한국에서는 간호사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미국에 가서 바로 양로원에서 간호보조원으로 일했어요. 그런데 야간근무 중에 잠깐 잠들어서 해고 당했어요. 수속 기간이 길어지는 틈을 타 6개월 만에 미국 간호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아무튼 시험은 잘 보는 편이에요. 간호사 자격을 얻은 뒤 바로 병원에서 일했는데 일을 못한다고 또 잘렸지요. 경험 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영어는 미국 학생들 상대로 성경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어요.

간호 일을 못해서 양로원, 병원에서 쫓겨나면서도
간호사라는 직업을 놓진 않았어요.

작은 체구로 그 덩치 큰 미국인 환자들의 체위를 바꾸고 돌보는 등의
간호를 하는 일이 무척 힘에 겨웠어요.

말을 꺼냈는데 끝을 못 맺겠는 거예요. 미국의 초등학교 교과서를 구해와서 여러 번 소리 내서 읽고
아예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크게 읽었더니 자연스럽게 문장을 말하게 되더군요.

서울대 간호학과를 졸업했지만 (교수 양성에 초점을 두고 학문적인 부분에 치중했던) 서울대 간호
학과 공부는 현장 간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지요. 간호 일을 못해서 양로원, 병원에서 쫓겨나면
서도 간호사라는 직업을 놓진 않았어요. 배운 게 간호 일이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미국에서 간호사
들은 돈을 잘 벌어요. 그러다 마침내 다른 작은 병원에서 좋은 수간호사를 만나 일을 차근차근 배우
게 됐어요.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주었어요. 그러나 작은 체구로 그 덩치 큰 미국인 환자들의
체위를 바꾸고 돌보는 등의 간호를 하는 일이 무척 힘에 겨웠어요. 나이 들어서까지 간호사로 일하
는 것이 감당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물론 간호사 경력 10년쯤 됐을 때, 결혼하고 아
이 셋을 낳고, '간호학 석사, 박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지요.

그러던 차, 남편이 먼저 의대를 가려고 전화로 상담하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옆에서 제가 고개를



디밀고 "내가 먼저 해볼까?"라고 '떠보는 질문'을 던졌더니 흔
쾌히 제 의대 입학에 권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려고 의대 가
려면 절대 하지 말라고 몇 번 다짐을 받으면서요. 성취를 위해
서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라면 적극적으로 도와
주겠다고 했지요.

남편은 한국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미국 정부기관 국방 관련 백
신연구소에서 일하면서 뒤늦게 의대 입학을 시도했던 거지요. 미국 영주권이 있더라도 미국이나 캐
나다에서 학부를 나와야 의대 입학이 가능한지라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의 남편은 의대를 포
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신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한 저를 적극적으로 뒷바라지 해주었습니다.

36세에 미시간주립대 의대 입학은 쉽지 않았어요. 미국은 의대 과정이 한국보다 길어요. 학부에서
4년 동안 기초과학으로 예과 과정을 마치고, 의대 입학자격시험('엠캣', MCAT: Medical College
Admission Test)에 합격해야 의대에 입학할 수 있고 입학 후 본과 과정 4년을 마쳐야 졸업하죠. 병
원에서 같이 일하던 미국 간호사들은 '애가 셋이나 있는데, 의대 지원은 미친 짓이다'며 말리더군
요. 그도 그럴 것이, 막내가 두 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으니까요. '되든지 안 되든지 그다음은 내 손
을 떠난 일이다. 안되면 간호사를 계속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2주일을 집중해서 공부하고 MCAT
를 치렀어요. 총 7시간 30분. 진이 다 빠진 느낌이었어요.

간호사 경력 10년 차, 세 자녀 엄마 36세에 미시간주립대 의대 입학 도전

'돈이 아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되겠다는 남편과의 약속 평생 새겨

두 아들도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도와주는 직업으로 의사의 길 걸어

막상 미시간 의대 입학을 준비할 때 입학 카운슬러의 격려가 없었더라면 포기했을 거예요. 요구사항이 너무 많았거든요. 지원 서류심사 후 인터뷰가 하루 종일 진행됐는데 인터뷰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의대에 합격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물론 전주여고에서 다진 기본과 서울대에서 다진 기초학문이 바탕이 되어서 제출한 에세이로도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카운슬러 덕분에 다시 학부에 입학할 수 있었고, 서울대 학부 졸업 덕분에 미시간 주립대학교 의과대학에 편입이 가능했지요.

어린 세 자녀의 어머니로서 늦은 나이에 의대 공부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의대 공부가 힘들었어요. 첫 학기에 생각보다 훨씬 낮은 학점을 받고 실망했지요.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던 남편조차 '포기할 거면 빨리 포기하라. 그래야 학비의 70%라도 건질 수 있으니까'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자퇴'를 자극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수업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더 매진해서 그 뒤 쪽 A학점을 받았어요. 간호사로 일할 때 '왜 이런 일이 있지?' 궁금하게 여겼던 것들을 의대 공부하면서 알게 되어서 아주 재미있었어요. 지금도 저는 의사들에게 특히 레지던트들에게 간호사들 말을 잘 들으라고 압박 아닌 조언을 합니다. 학문적으로는 간호학이 의학과 접목되어 있어서 공부에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익힌 간호 경력이 크게 도움이 되었어요.

막내를 데이케어센터에 맡기고 두 아이 학교 간 사이에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 게 제 일과였어요. 한국 유학생 부인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지요. 무엇보다 의대 공부하겠다고 했을 때 망설임 없이 해보라고 권했던 남편의 조력이 엄청난 힘이 됐어요. 남편이 제 뒷바라지에 아이 셋의 뒷바라지 등을 자처했지요. 외조 덕분에 의대 공부를 마칠 수 있었지요.

남편 공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입학시켜 주셨으니 공부도 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었어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40세에 의사가 되었지요. 의대 본과 4년과 레지던트 3년 훈련도 잘 마쳤구요.

의사로서의 삶은 만족하신지요?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의사'라는 부군과의 약속을 지키고 계신지요?

제 주변의 한국사람들이 제가 의대 간 것에 자극받아서 의대 지원을 많이 했어요. (다 불합격하고) 한 명이 치대에 합격해서 다녔는데, 제대로 졸업은 하지 못했지만요.

저는 의대 공부할 때도 클래스 재시험 보는 학생들을 집에 모아놓고 가르쳤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일타 강사'라고나 할까요? 시험에 나올 문제들을 콕 집어서 가르쳐주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보는 기쁨이 컸지요.

저는 항상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의사를 지향합니다. 아픔을 들어주고 함께 나누길 원해요. 그래서 환자들이 진료실에 들어와서 많이 울고 나갑니다. 의사로서 일할 때 또 다른 어려움, 동료 의사들의 욕심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고용의사로 병원에서 3년 일하는 동안 동료 의사 두 명으로부터 같이 나가서 병원 개업할 것을 권유받았는데, 제 승낙도 없이 제 퇴직금 등을 전부 받아간 거예요. 병원 개업 후에도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그 두 명은 원장이고 저는 페이닥터(고용의사)로 고용한 것처럼 운영했지요. 크게 실망하고 병원을 나왔어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배신감에 무척 힘들었지요. 그런데, 나쁜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더 좋은 기회의 문이 열렸지요. 제 진료활동을 유심히 지켜보던 동네 병원(클리닉)의 병원장이 자신의 병원을 인수할 것을 제안



해 왔어요. 주말마다 돌면서 성실하게 진심을 다해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에 '잘 나가는' 자신의 병원을 넘겨도 되겠다고 생각했다면서요. 그리곤 '환자 명단'도 넘겨줬어요. 인수 후 처음엔 동양여자 의사라면서 백인 남성들이 오질 않았어요. 꺼렸지요. 그들의 아내들이 진료에 만족하고 환자케어를 너무 잘한다고 남편들을 등 떠밀면서 남성 환자들도 차츰 오기

시작했고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풍요롭게 되었지요.

‘의사가 못 된’ 유한신 동문의 부군 윤성원 소장은 의료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다.

“미국 의대 입시는 GPA와 MCAT과 더불어 배경을 보지요. 봉사경험, 임상봉사경험, 직·간접적인 의료활동, 연구경험, 리더십 활동, 자기소개서 및 3~5개의 추천서 등. 나 때 당시 의대 같은 학년의 150명 학생 중 30~40명 정도는 다양한 경험이 있는 경우였어요. 남미나 멕시코 온두라스 출신들의 의대 준비 학생들 중에는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아요. 제가 이 학생들을 데리고 방학 때 메디컬 미션 트립(의료봉사활동)을 갑니다. 보조역할을 하게 하지요. 약도 주고 건강교육도 하고.”

살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때는 언제였나요? 언제 가장 힘들었고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사실 살면서 감사한 일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아이들에게 의대 가라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 없는데 둘째(내과)와 셋째(신경외과)가 대학을 졸업하고 생각해 보더니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도와주는 직업을 갖겠다며 다시 공부해서 의대에 가고 졸업 후 자립했을 때가 가장 보람 있었던 때라고 할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우리애들은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걷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요. 힘들 때는 예수님의 생애를 배우는 제자로서 성경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힘든 과정을 지날 때는 마치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선물(영적, 물질적, 인간

적)을 주신다는 걸 경험합니다. 요즘도 큰아들의 건강 문제로 힘든 과정을 지나고 있어요. 하지만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힘든 일도 오히려 기회가 된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떠한 생활을 하고 싶은가요? 어떠한 어른으로 남고 싶은가요?

큰아들의 건강 문제로 저와 남편 그리고 둘째, 셋째 가운데 많은 고통 그리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희 가정의 세상을 살면서 몸과 마음이 아프고 다친 분들의 쉽터가 되는 일을 기도하며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몸과 마음이 지치고 영혼이 힘들 분들에게 쉽고 회복의 자리를 제공하려고 기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인생의 목적을 돈을 잘 벌어서 집안을 일으키는 데 두었어요. 2남 3녀 중 큰딸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면서 든 생각이었어요. 대학교 3학년 전까지는

신앙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갑자기 견지도 못할 정도로 다리가 아파서 기숙사에 누워 살다시피 하기 전까지는요. 그 지경이 되자 친구가 저를 끌다시피 해서 교회에 데리고 갔어요. 마가복음의 문둥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에 관한 성경말씀에 크게 은혜를 입었고, 마침 여름성경학교 행사를 준비하면서 아픈 다리가 나았어요. 우울증도 없어지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지요. 선교를 꿈꾸었어요. 남편도 그래서 만났구요. 남의 이야기에 판단하지 않고 귀 기울이며 풍성하게 베푸는 사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어려움 또 성공을 통해 배운 것을 어려운 인생길을 지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영란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국제화 시대에 해외에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는지요?

영란 후배들이여. 자신의 능력을 끝까지 밀어보고 한계점을 넘어서 또 밀어보고, 기회가 왔을 때 밀어볼 것을 당부합니다. 좋은 삶은 하다 보면 또 다른 길이 열립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되지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비전이 없으면 안 됩니다. 계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일도 해보면 되고 문도 열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잠재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지내지요.

유한신 동문의 두 여동생 유한미(46회)와 유한림(48회)도 전여고 동문으로, 유한미 동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일구다, 삶 II

태초의 자연을 품은 비밀의 섬, 마다가스카르!

이선택

49회, 선교사

안타나나리보 국립대학 교수



지난 1월 21일 MBC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3' 프로그램에서 세 명의 멤버들이 '마다가스카르의 서울대', 안타나나리보 대학을 방문해서 학교 투어에 나섰다가 학생들의 놀라운 한국어 실력에 깜짝 놀랐던 그곳, 안타나나리보 국립대학에서 한국문화를 가르치면서 선교사로 활동하는 이선택 동문(49회)이 마다가스카르에서 보내온 글을 싣는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져 가는 세상이다.

한국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 2022년 출산율도 0.78이라고 한다. 언뜻 생각하면 그로 인해 더 여유로운 삶이 되어야 하는가 아닌가 싶는데, 오히려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다들 힘들다고 난리다. 대학은 많은데 수능은 더더욱 어려워졌고, 어디를 가나 시험을 봐서 경쟁을 하고, 자격을 따지고, 줄을 선다. 성경에 ‘좁은 길’을 가라는 말을 마치 ‘SKY’ 아니 이제는 ‘의대나 법대/로스쿨’로 생각하는 것 같다. 삶은, 좁은 길은 그것이 다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은방울꽃’이 한자로 “영란”이라는 것을 알고, 그 꽃의 향기를 조금씩 알아가던 여고시절, 그때에도 입시는 당연히 힘들었다. 그러나 그 입시보다도 더 우리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내 짝꿍, 내 친구였다. 그 친구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가는 자양분이 되었고, 그 친구들과 어울렸던 많은 시간이 인생의 값진 추억이라는 자산이 되었다.



마다가스카르에서의 일상생활

2학년 때였던가?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한다는 취지에서 세계문화축제가 열렸다. 우리 반은 멕시코로 정해졌다. 그때는 요즘처럼 그 나라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시대가 아니어서 알음알음 획득한 멕시코 축제의 정보를 토대로, 얼굴에 시커먼 숯 검정을 칠하고 입술은 두껍게 그리고, 얼굴에는 노랑이랑 초록색 페인트를 덧칠해서 분장을 했다. 누가 누군지 알 수도 없었다. 게다가 멕시코가 아프리카도 아닌데 아프리카 원주민처럼 몸에 찰싹 붙는 검정 티셔츠에 나뭇잎 치마를 걸쳐 입고, 긴 막대기로 운동장을 두드리며 ‘끼이끼이’ 소리치며 신나게 뛰어놀았었다. 뭐라 그리 좋았는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떠들고...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웃음이 절로 난다. 아마도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자유로움의 향수가 아닐까!

영란의 꽃들이 입시지옥을 오가며 학구파로 거듭나야 할 시기에 자유로운 세계인으로 변신을 허락한 청춘의 한 장! 그리고 그런 페이지들이 가끔 나를 웃게 만들고, 나에게 힘이 된다. 어느 유명 아나운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사람은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산다’고. 성적표의 ‘몇 점’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 성적을 받기 위해 밤잠을 설치고, 날을 새며 공부한 시간의 내 모습이 ‘나’를 이루고, 그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간다고 했던가.

영란의 꽃들이 입시지옥을 오가며 학구파로 거듭나야 할 시기에 자유로운 세계인으로 변신을 허락한 청춘의 한 장! 그리고 그런 페이지들이 가끔 나를 웃게 만들고, 나에게 힘이 된다. 어느 유명 아나운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사람은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산다’고. 성적표의 ‘몇 점’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 성적을 받기 위해 밤잠을 설치고, 날을 새며 공부한 시간의 내 모습이 ‘나’를 이루고, 그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간다고 했던가.

많은 우여곡절 끝에 나는 지금 아프리카의 남단 동쪽에 있는 섬 마다가스카르에 있다. 이 나라 수도인 안타나나리보의 국립대학 안에 세종학당을 설립하였고, 대학에서 한국어과 개설 요청을 받아 인문대학에서 선택과목으로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다. 나는 해마다 새로이 맞는 이곳 학생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곤 한다.



| 안타나나리보 국립대학에서
한국문화 알리기 활동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켜준 사람들의 노력이 더해져서 오늘을 살고 있다.

고국 한국을 떠나 멀리 마다가스카르에서 늦게나마 알게 된 사실은,
사랑하면 중요한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꿈을 꾸는 자가 돼라.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다. 그리고 책을 많이 읽어라, 언젠가 네가 그 주인공
이 될 것이다.”

선교사로 부름 받아 남편과 함께 아시아에서 20년 이상을 섬기다가, 2018년 익숙한 그 사역지를 뒤
로 하고 페스트가 유행하고 있던 마다가스카르에 발을 디딘 나.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이곳,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아프리카의 동쪽 섬나라에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끊임없이 나에게 묻는 질문이요, 기도의 제목이었다. 그런데, 말라가시 현지어
를 사용하고 있는 이 나라는 70년 동안 프랑스 식민지 통치를 받아서 공식언어가 프랑스어였다. 여
고 1학년 때 “꼬망팔레부”로 인사하던 프랑스어 선생님도 생각나고, 그래도 한번 들었던 언어라 친
근하게 느껴졌다.

무룬다바라는 곳에 있는 거대한 바오밥 나무를 끝없이 올려다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
지 않아” 라고 일기장에 써 놓았던 어린왕자의 대사도 생각났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학생들이지만 이런 소재들은 그들과 나를 잇는 재료가 되고 그들에게 새로
운 소망을 제공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시대는 정말 빠르게 변해간다.

마다가스카르에 첫발을 디딜 때 던졌던 질문은 이제 조금씩 현실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답을 얻
고,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을 준비하고 내일을 꿈꾼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국에서의 변화 속도보
다는 이곳의 시간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요즘은 대학교 기숙사 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보낸다. 가끔은 그들의 청춘이 부럽다. 부러움에 나의
청춘을 억지로 끌어올려 보기도 한다.



선교활동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국경 봉쇄로, 대학 휴교로, 거리 봉쇄로 고향에 갈 수 없었던 기숙사 학생들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계획하고 그들과 손발을 맞추곤 한다.

빈민촌에 구호품을 보급하는 활동을 시작하였고, 그러는 과정에서 흠바닥에서 뒹굴고 노는 아이들과 어린이 예배를 시작한 계기로 빈민촌에 교회들을 개척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방학에는 대학생들과 오지 사역을 하고 있다. 버스로 하루, 강을 따라 배로 하루, 그리고 걸어서 모두 3일 걸려 도착한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태풍으로 무너진 교회를 재건한다. 등·하교에 하루 4시간을 꼬박 걸어다니는 아이들, 비가 오면 학교에 올 수 없는 그들을 위해 기숙사 겸 교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다.

내 젊은 날, 고교시절 생활기록부를 보면 과연 지금의 나를 추론할 수 있을까?

그러나 지금의 나는 그 시절, 나와 함께 했던 친구들과 나를 지도해 주셨던 여러 은사님들의 손이 더해져서 걸어가고 있음을 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켜준 사람들의 노력이 더해져서 오늘을 살고 있다. 고국 한국을 떠나 멀리 마다가스카르에서 늦게나마 알게 된 사실은, 사랑하면 중요한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여고시절, 무작정 열심히 쫓아다녔던 것들이 지금의 나를 이루게 하였듯이, 지금의 나 역시 그때의 그 모습처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지키고 가꾸는 그런 삶을 누리고 싶다. 그리고 언젠가 먼 훗날, 그런 나를 추억하며 기뻐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마다가스카르는 어떤 나라?

아프리카 남동부에 위치한 섬나라.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1960년 아프리카의 봄에 독립했다. 마다가스카르 섬은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섬이며 전세계 바닐라 생산의 40%를 담당하고 있다. 인구는 약 2,500만명, 주요 산업은 농업. 영토는 남한의 6배에 달한다.

한국과 마다가스카르의 관계. 양국은 1962년에 외교관계를 맺었지만, 냉전 당시에 북한과 수교한 것으로 인해 잠시 외교관계가 단절되었다가 88올림픽을 계기로 개선되었다.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마다가스카르에 코로나19 대응 등과 관련된 첫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세워지기도 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양국 간의 교류가 많아지고 있고 한류가 마다가스카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2019년에 안타나리보 대학 중앙도서관에 한국문화코너가 개관했고, 세종학당이 마다가스카르에 세워졌으며, 한국 문화를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TV 프로그램도 만들어졌다.



새기다, 보람

모교 전·현직 교장 동문들

모교이기에 더 마음이 갔어요



박춘자(32회) _2003.03.02.~2005.08.31.(모교에서 퇴직)
김계순(44회) _2009.03.01.~2011.03.01.(정읍여고로 발령)
송인순(47회) _2015.09.01.~2019.08.31.(모교에서 퇴직)
장해송(52회) _2019.9.1.~2023.2.28.(봉남중학교로 발령)
이영숙(54회) _2023.3.1.~ (현 교장)

2023년 8월 7일. 폭염에 천지가 들끓고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흔들기 전, 차연수 회장 자택에서 진행된 좌담회는 강, 약 템포를 거듭하면서 3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전여고 출신 5명의 전여고 전·현직 교장선생님들의 모교 사랑 강도는 한낮의 기세등등한 무더위도 누그러뜨릴 정도였다.

우리의 교육환경도 많이 바뀌었다. 학생 수가 급속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학생 인권에 기울어져 있던 무게 추가 최근 초등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교권 회복으로 옮겨지고 있다. 교육활동 보호 강화와 학교폭력,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및 공교육 강화 방향 등 교육계 이슈들이 사회적으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교장선생님들에게서 모교 교장으로서의 교육철학, 후배들에게 들려주는 말을 듣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

교육계에 있으면 이왕이면 모교에서 근무해보는 것이 희망사항 중 하나라고들 말한다. 더구나 모교 교장. 개인적으로는 영예로운 일이지만 그만큼 지역사회 내에서 신경 쓰이는 일도 많을 터. 이날 자리한 모교 출신 역대 그리고 현직 교장선생님들은 일선 학교 책임자 그 이상의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한다. 총동창회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한껏 부른 자부심만큼 책임감이 더 커졌다는 역대 교장선생님들은, 새로운 변화와 명문학교로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으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하는 현직 교장, 후배 교장선생님의 건강을 당부한다. 소임을 다하고 모교에서 나올 때 한결같이 건강을 잃고 힘들었다는 모교 출신 교장선생님들. 모교에 몸과 마음을 바친 박춘자(32회) 김계순(44회) 송인순(47회) 장해송(52회) 전 교장선생님과 이영숙(54회) 현 교장선생님의 얘기를 담아본다.

박춘자 - 기숙사(영란숙) 건립

큰 체구, 박력 있는 목소리로 인해 매우 강한 인상을 풍기는 교장선생. 그러나 자상함과 섬세함에 강인한 추진력을 갖춘 ‘여걸 교장’이 박춘자 교장선생님의 트레이드마크다.

“교직에서는 모교에서 교장 퇴직하는 것을 다 부러워했지요. 교육계 마무리의 정석이랄까요? 저도 정년 2년 반 남겨두고 마지막을 모교에서 보내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어요.”

“퇴직한 지 18년이 됐네요. 2003년 2월, 두 번째 모교 교장이 됐어요. 25대 전주여고 교장. 모교 출신 교장이라 ‘혼신’을 다하게 되더라고요.”

박 교장은 책임감이 무겁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긴장하는 자리가 모교 교장자리였다고 표현했다.

“2년 반 재임 기간 무박 2일이 부지기수였어요. 근무시간이 하루 12시간을 넘었으니까요. 저녁 10시까지

1, 2학년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3학년은 11시까지 야자를 했어요. 야자 시간 담당으로 저녁 늦게까지 남아 계신 선생님 세분과 학교에서 가까운 아중리 근방에서 얘기를 나누는 날들이 많았으니까요. 일요일에도 3학년 담임들이 나와계시니까, 격려를 빙자한 즐거기(?)를 했다고 할까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아이들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교복 상의를 배꼽 나오도록 짧게 하고 머트를 부리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저는 귀가 지도까지 다 했어요. (이영숙 교장: 그때 ‘바바리맨’이 있긴 했지만 별일은 없었어요.) 이영숙 교장선생은 내가 교장일 때 3학년 담임선생이었는데, 시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했던 날에도 전혀 티를 내지 않고 야자를 담당했던 선생이었어요.

재직 기간 7번이나 병원에 입원했어요. 2004년 10월 갑상선암 수술에 목디스크, 허리 수술 두 번, 설상가상 넘어져서 대퇴부에 인조뼈 수술, 갈비뼈 부러져 수술 등. 11월 기숙사(영란숙) 준공식에 목을 깎스한 채로 갔잖아요.”



박 교장은 모교의 오랜 숙원이던 기숙사(영란숙)를 지었다. 136명을 수용할 수 있는 34실(4인실) 규모. “정말 많이 찾아다녔지요. 외부지원 뿐만 아니라 도 교육청의 예산지원 없이는 해결되지 않을 숙원이었어요. 교장 부임 초에 교육감님께서 학교를 방문했는데 2부제로 운영되던 학교 식당에서 학생들과 같이 줄을 서서 급식을 했었지요. 그 경험이 기숙사 예산 지원으로 이어졌어요.”



박 교장은 기숙사를 여학생들에게 최적화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썼다. 방바닥 보일러 파이프 간격을 더 촘촘하게 해서 보다 난방이 잘 되게 하였다. 생리통엔 배를 따뜻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다. 기숙사 위층에 공부방을 두어 자다가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 높낮이 조절 책걸상으로 바꾸고, 식당을 증축하고,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등 학교 내 각종 시설물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전북지역 최초로 원격화상교육시스템(EDUTING)을 도입하여서 화상회의를 위한 공간, 교육실을 구축하였다. (장해송 교장 : 재임한 코로나 시기에 공간을 활용해서 원격회의를 잘 할 수 있었어요. 일찍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2004년 여름방학 때 부안의 학생해양수련원에서 수련회를 했는데, 저도 격려차 갔지요. 한 아이가 ‘교장 선생님, 안아주세요.’라며 안기는 거예요. 안아주었지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아이들 모두 ‘저희도 안아주세요.’ 그래서 전

체 한 명씩 안아주었던 것이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요.

또 2005년에 한국일보 주최의 한국교육자대상(중등부)을 수상한 게 큰 보람이지요. 교육인적자원부 선정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에 유일하게 2003년과 2004년 2년 연속으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이영숙 교장이 연구부장(7년, 2000~2007년)으로 있으면서 이뤄낸 성과지요.

2005년 8월 퇴직할 때 퇴임식을 학생들이 주재해서 다 해줬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백적지근하게 치러졌지요. 보라색을 워낙 좋아하는 제 취향에 맞게 암막을 순식간에 내리고 촛불을 켜 상태에서 ‘보라빛 향기(강수지 노래)’ 노래를 불러주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박 동문은 1963년 전주송실고등공민학교에서 문맹퇴치 교육봉사 활동으로 교사를 시작한 이래 42년간 전북지역에서만 교편을 잡아 왔다. 97년에는 ‘전북중등가정과교육연구회’를 만들어 매년 연구서를 발간하는 등 가정과목 교육에 크게 공헌했다. 2005년 8월 퇴직 후에는 10년 동안 다른 퇴직 교장선생님들과 함께 구세군에서 하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 현재는 영란장학이사회 이사, 김영구청소년재단 이사로 일하고 있다.

김계순 - 교사 재건축

2017년 8월 정년 퇴직 후 소확행을 누리고 있다는 김계순 동문에게서 안정적인 중후함이 엿보인다. 그런데, 이 중후함이 모교 교장 재임기간에 관한 얘기를 하는 동안만은 저 멀리 달아나 보였다. 숨이 가빠지고 말이 빨라지고 톤도 높아졌다.

“도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으로 있으면서 적성에도 맞지 않는 일을 하려니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요. 학교 교장이 쉬운 줄 알고 지원했어요.”

담백한 출발. 하지만 2009년 3월 부임하고 보니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하루 풀로 움직이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긴장하는 생활에 교장의 책임은 무한대였다. 진학지도에 욕심을 내려면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야간자율학습에 부설로 방송통신고등학교(1975년 개설)도 운영하고 있으니 토요일, 일요일도 없다.

그 당시 인문계고등학교의 가장 큰 목표는 ‘대학 진학’이고 서울대를 비롯해 수도권 대학에 몇 명을 보냈는지에 따라 학교의 등급이 달라지는 분위기였어요. 학교에 돌아와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진학지도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어요. 성질도 급한 제가 교무부장한테 “이제까지 뭐 해놓았어요?”라고 퍼부어댔고, 3학년 담임들 회식 자리에서도 난리, 난리쳤지요. 부임한 첫째 서울대에 2명을 보내기 시작했고, 진학에 무척 신경썼어요. 여기에는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 선배가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통장에 입금해주고, 서울대 합격해서는 제 고교 동기가 그 학생이 서울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신입생 유치가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학교 건물이 낡아서이기도 했어요.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고 신개발 지역과 학교시설 격차를 없애서 학부모 불만을 없애고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하려면 학교 환경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개축을 맘을 먹었어요.

학교 짓는 일이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힘들고, 그

렇게 엄청난 일인 줄 꿈엔들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맨땅에 헤딩한 거지요. 잠들면 꿈에 청사진이 왔다갔다 했으니까. 정말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어요. 거지 같이 형그리 정신으로 사람만 보면 돈 달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모교이다 보니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자주 그리게 되고 의욕이 용솟음쳐서 혼신을 다해 시작하였어요.”

“소리 없이 도와주는 선배들이 많았어요. 그 중 잊지 못할 일은 전 동창회장님이셨던 임계강 회장님과 이현주 회장님, 그리고 당시 회장인 남상숙 회장님과 총무 최영미 회장님과 함께 국회까지 가서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들을 모두 만나서 사업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일이에요. 후배 교장 선생님이 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니 그 앞에 돌맹이라도 치워주겠다고 하시면서 헌신적이며 순수한 열정으로 모교를 사랑하신 모습이 존경스러웠어요. 밑받침을 다 해주셨지요. 전라북도 출신 모든 국회의원, 부인이 전주여고 출신인 저명인사들까지 다 찾아다녔어요. 우리학교 출신 국회의원도 없으니 더욱 그랬지요. 덕분에 국회 사무실도 가보고 식당에서 식사도 해봤어요. 학교 내구연한과 중앙특별교부금, 전북교육청 예산 확보, 공청회 등 수많은 난제가 많았는데 여러 사람의 협조로 이루어졌어요.”

“2009년 교과교실제를 도입하면서 처음 시행할 학교를 선발하는 공고가 났어요. 교과교실을 시행했을 때 진학성적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어요. 그런데, 선정 학교에 주는 한 해 예산이 컸어요. 그 돈을 학교





개축하는데 쓰고 싶어서 고심 끝에 신청을 했고, 선정되었지요. 전국 교과교실제 A형 최우수학교로도 선정되었는데요, 이 같은 준비가 2025년 본격 시행될 고교 학점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해요.”

“2011년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에 선정되어서 제1회 교육엑스포가 열린 킨텍스(KINTEX) 전시관에 ‘잘 가르치는 학교’ 100곳의 교육비결을 전시하는데 전주여고 부스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우수사항을 전시하였고, 청와대에 초청도 받았었어요. 이영숙 교장선생이 그때 연구주임으로 있으면서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작성에 힘을 쏟았지요. 전북교육계획서 실적 최우수학교로도 선정되었지요.

또 하나는, 우리 동문 중에 김귀순 대 선배님이 계셨어요. 여기 아시는 분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이분의 모교 사랑은 대단하셨어요. 서울에 사시는데도 매년 동창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후배들에게 장학금도 주셨어요. 한번은 총동창회 참석하셨을 때 본인이 소장하신 고등학교 시절 성적표까지 보따리에 싸가지고 오셔서 역사관에 기증하시고 우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친구분들 집을 일일이 방문하셨어요. “내년에 다시 뵙게요” 했을 때 내년에는 못 오실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별생각 없이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얼마 후 돌아가셨다는 비보가 와서 조화를 보내드리고 애도를 표했는데 그분 아드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다고. 떠나면서도 모교에 대한 애정을 표시했고 총동창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 것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다면서 감사하다고 하셔서 가슴이 뭉클했었어요.”

“모교 교장으로 있을 때,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원대

한 꿈을 심어주고 다양한 삶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했어요. 자신의 소질과 개성을 계발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학교에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우리 전주여고는 선배님들이 이루어 놓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여성 교육의 요람지로 명문 전주여고에 대한 긍지와 애정이 샘솟고, 지역사회를 선도해 나가는 여성 교육의 1번지 학교로서 제자며 후배들에게 교육환경과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 국내외에 뛰어난 인재를 배출하고 싶었어요.”

김 동문은 만약 다시 모교 교장이 된다면, 학생의 창의성과 인성을 동시에 함양하는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다.

“재학생들, 후배들이 이 세상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임을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어떤 삶을 살지’는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고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는 여고 시절이 되었으면 해요.”

송인순 - 참 학력 신장

“모교 교장 하고(나면) 아프고 나온다고 했지요? 저는 후각을 잃었어요. 2015년 9월 갑자기 모교로 발령이 났지요. 그 경황없는 중에도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직도 등 학교 파악부터 해나갔어요. ‘교사’와 ‘기간제’를 밝힌 구성원 명단이 참으로 거슬렸어요. 학교에 전화해서 ‘기간제’를 빼고, 그냥 교사라고 해두세요. 라고 한 것이 ‘신임 교장’으로서 제가

한 첫 번째 행동이었어요.

교직생활하면서 모교와 인연은, 수능 감독교사로 가 본 것이 전부였어요. 그날 창문을 열려다가 고장 나서 안 열리기에 속으로 세상에 우리 모교가 왜 이렇게까지 됐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김계순 선배님이 교장으로 오시기 직전이었나 봐요. 그 뒤 제가 2015년에 교장으로 모교에 갔을 때는 박춘자, 김계순 교장선생님 두 분이 학교를 재창조해 주셔서 저는 시설 면에서 보완하는 정도, 하나하나 투닥투닥하는 정도였지요. 두 분이 역사 창조, 학교를 지은 엄청난 일을 한 셈이었어요. 전여고 기숙사는 잘 지어졌다고 전국적으로도 소문이 나 있었으니까요.”

“제 재임기간은 일종의 (교육환경 변화의) 과도기였어요. 실력향상에만 신경을 썼다고나 할까요? 비교적 안정된 교사에 진학에만 몰두하면 되었으니까요. 다 선배 교장선생님들이 수고하신 덕분이지요. 그 당시는 김승환 교육감 취임 2기로 암기와 주입 위주의 시험 치르기 공부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 설계를 위한 핵심역량을 키우는 ‘참 학력’ 신장이라든가 과도한 전시성 행사나 행정업무의 간소화, 최적화 시도 등을 강조하던 시기였어요.

이러한 기조에 맞춰서 강하지만 부드러운 접근의 관리를 추구하였어요. 학업에 열중하면서 유연한 경영으로 내실을 다지고자 했습니다. ‘겸허하고 겸손하자.’ 그 마음으로 부임 첫날, 학생들에게 ‘큰절’을 했어요. 그리고 거의 매일 기숙사 방방을 들여다보고 벽지가 찢어진 곳 등도 세세하게 체크하고 또 격려하였어요. 제가 즐겨 읽는 노자의 도덕경에서 노자는 무위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무위는 아무것

도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뜻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라’는 적극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약팽소선’(若烹小鮮), 리더는 ‘작은 생선을 굽듯이 해야 한다. 즉 작은 생선을 구울 때 한눈을 팔게 되면 바짝 타고 자주 뒤집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 먹을 것이 없게 되죠. 이처럼 저는 학교 구성원들이 최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분위기로 열정을 이끌어 목표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경청하고 소통하는 학교 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교직원들이 모두 솔선수범하고 융화를 잘하여 인문계 고등학교 특성상 학력 신장에 매진해 주어서 입시 성과도 좋았어요. 서울대 합격자를 2016학년도부터 연속해서 배출했어요. 또 동문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택에 중학교에서 성적 좋고 인성 좋은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 최우수학교 교육부장관상, 전북청소년 연극제 대상(2018) 등이 기록으로 남은 결과물입니다.”

“재임기간 잊지 못할 일 중에 하나는 2016년 개교 90주년 기념행사에서 단국대 중문과 교수님이셨던 육완정(27회) 육완우(40회) 자매 선배님께서 1억 원의 장학금을 기부해 주셨던 일입니다. 2019년 당시 선문대 총장인 이경준(28회) 선배님이 1억 원의 장학금을 기탁해주신 일도요. 이 선배님은 2017년에도 졸업 60주년을 맞아 장학금 1000만 원을 기부하셨습니다.”

“재학생들에게 똑똑한 사람이 되기보다 먼저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보다 가슴으로 느끼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인성은 사람을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화려한 말은 쉽게 잊히지만 다정한 말은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부드러움은 단단함을 이깁니다. 우리 전주여고 학생들은 버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 자신을 낮춰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으로 성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해송 - 코로나19 상황 극복

“저한테는 모교 교장으로의 발령이 뜻하지 않은 발령이어서 (감사하면서도) 받아들이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교직에 몸담아서는 인사발령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기본이지만 전주여고에 꼭 근무해보고 싶어 하는 선생님들도 계셨는데 말이죠. 인사가 발표되고 나서 부담감이 컸고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주여고의 역사와 전통의 그 명맥을 훼손시키지나 않을까, 선대 교장선생님들의 뜻을 잘 이어갈 수 있을까 등...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이므로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매일 매일 기도하는 기분으로 생활했습니다.”

“교육환경이나 교육의 최우선 가치 등이 선배 교장선생님들이 재직했던 시기와는 확연히 달라졌어요.



2019년 9월 모교에 부임한 후 4개월 즈음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하여 많은 혼란이 뒤따랐습니다. 모교에서의 근무는 코

로나19와 함께 하다 그 세력이 약화되면서 떠난 것 같아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국민정서가 안전을 우선시 하는 면으로 많이 변화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방과후, 기숙사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적어지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부모는 물론이고 교사, 학생 모두 정서나 문화가 달라졌어요. 코로나 초기, 교내 확진자가 있어서 몹시 당황스러웠지만 학생, 교사, 학부모까지 모두 협력해서 추가 확진 없이 잘 극복하였던 것은 우리 전주여고의 저력이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학교는 박춘자 선배교장선생님이 구축해놓은 화상회의를 위한 공간에 온라인 스튜디오 기능을 더욱 확보해서 코로나 시기에 실질적인 쌍방향 학습이 가능했지요. 일찍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또 학습용으로 전학생에게 1인 1 노트북을 제공했어요. 앞으로 적용될 고교학점제 시행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에요.”

“잊지 못할 일은, 집이 학교 가까이 있기에 비 오는 어느 일요일, 낡은 교사에 비 썰 것이 염려돼서 아침 일찍 학교에 들렀다가 점심때까지 교실에서 물 퍼내느라 허리를 펴지 못했던 일입니다.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시설분야를 몰라서 담당부서들끼리 서로 떠넘길 때 판단하기 힘들었던 점이 어려웠지요.”

“저도 시설에 공을 들였는데요, 앞서 재직했던 선배님들이 잘해놓은 시설들이 제가 갔을 때는 노후화되어서 개보수가 필요해졌습니다. 다시 시설에 매달리게 된 것이지요.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한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교문에서의 보차도를 분리하고, 후관 화

장실을 전면 수리하여 여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든 것, 기숙사 외벽의 드라이비트를 돌로 교체하고 침대 및 매트리스를 교체하고, 넓기만 하고 유용성이 없어서 아쉬움이 컸던 운동장의 한쪽에 학교숲을 조성해서 그늘을 만들어 학생들의 답소 공간을 마련한 것, 본관 및 기숙사의 벽면을 교체한 것 등, 손 안 댄 곳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어색하지 않게...’(정해송 교장선생 표현). 이 밖에 소소한 사업들로 고교학점제 대비해서 온라인 스튜디오 3실을 마련했고, 본관 목재 외벽 개보수 등을 하였으며,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역사관 등도 보수해두었어요.”

“무엇보다 협소했던 급식소와 40여 년 된 강당을 다 목적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 것이 뿌듯합니다. 식생활관과 강당, 다목적실 등을 갖춘 다목적 복합건물의 증축 및 개축이 2025년도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이제, 화장실과 보일러 개보수가 남아있어요. 후관 창호 교체도 이 후배 교장선생님 몫으로 남아있어요. 후배인 이영숙 교장선생님에게 넘긴 셈이네요.”

“큰 보람은 40여 년 전부터 착용한 체육복 디자인을 학생 공모를 통해 바꾼 것입니다. 체육복 교체는 학생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왔던 안건이었어요. 학생들에게 디자인을 공모하여 학생들 스스로가 디자인한 체육복을 착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디자인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한 학생은 진로도 디자인으로 선택했습니다.”

“재임기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학생들과의 활동이 둔화되었던 점이 가장 아쉬움으로 남아있습니

다. 다시 모교 교장이 된다면 선배 교장선생님들과 동문님들의 뜻을 잘 녹여내며 학생-학생, 학생-교직원, 학생-동문들의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모교 사랑, 선후배 사랑의 기회와 자기진로 탐색 및 결정에 적극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여건에 맞춰 또다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재학생들이 모교의 소중함을 아직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라성 같은 수많은 선배님들이 세계 곳곳에서 훌륭하게 생활하시며 모교와 대한민국을 빛내고 계시는 선배님들의 기운을 이어받아 갈 수 있는 후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교의 전통과 역사는 우리가 함께 만들고 이어가는 것이며 한 해 한 해 어느 해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수를 한땀 한땀 놓아가듯이 모두가 열심히 가꾸어 가는 것임을 상기시켜 주고 싶습니다.”

이영숙 - 개교 100주년 준비 큰 걸음

“졸업 후 2000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교사로 재직하면서 모교와 다시 인연을 가지게 됐어요. 2023년 3월 모교 교장으로 부임하면서 ‘더불어 성장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를 비전으로 창의력과 바른 인성을 갖춘 품격 있는 인재 육성을 경영 목표로 삼고 있어요.”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교육을 위한 수업역량 강화, 학생자치와 세계시민교육,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어요. 협력과 소통으로 감동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은 거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주 여고와 구성원들이 모두 행복하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도록 학교경영을 잘 하는 것이지요.



전반적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인문고에 진학하는 학생 수 감소와 원도심 지역에 위치하고 여고가 많이 있는 지역여건으로 인해 우수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이 큼니다.

코로나를 겪고 난 이후 교육환경도 확연히 달라졌어요. 방과후학습, 기숙사 생활도 스파르타식이 아닌, 희망과 자율, 선택이 더 강조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달라진 시대, 무엇을 지향해야 하나 고민이 많아요.”

“동문 선후배님들이 내놓는 발전기금과 각종 장학금 등을 보면서 모교사랑과 관심에 큰 감동을 받곤 하지요. 한편으로는 여태까지 쌓아놓은 명문고의 위상을 잘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식생활관과 강당을 기본으로 한 2층 건물 완공이라는 3년 프로젝트를 잘 진행하는 것이 그 중 하나입니다. 100주년 맞이하는 시점인 2026년에는 100주년 행사를 강당 준공과 맞물려서 하게 될 것 같아요. 또 동창회관(영란관)을 확장해서 역사관도 아우르는 복합건물을 꾀하고 있어요. 순조로운 진행을 위한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고교학점제의 시행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혁신적으로 학교 내부 공간을 구성, 시설해야 합니다. 김계순 선배 교장선생님 재직 시 교과교실제를 경험했던 티라

소공간으로의 설계 그림이 그려지긴 합니다. 공간 면에서의 현대화 등 재학생, 후배들의 미래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방안을 구상 중이에요.”



좌담회 후기



다섯 분과의 좌담회에서 이야기의 길어도 박춘자, 김계순, 송인순, 장해송, 이영숙 교장선생님 순이었다. 하늘 같은 선배들이라 해도, 교육계에서는 장유유서(長幼有序)가 자연스러운 건가? 전직 네 분의 모교 교장 동문들은 현직 교장 동문에게 한결같이 역사성, 저력을 바탕으로 미래를 내다 보는 교육을 주문했다. 그리고 후배 재학생들에게는 고교시절을 무엇을 좋아하는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시기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일단 건강관리를 잘하여서 몸과 정신을 튼튼히 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짬짬이 운동하고 독서를 많이 하여서 내적 역량을 잘 다져놓으면 어떠한 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랐다.

박춘자

“교장 퇴임 후 아프고 나왔다는 말 맞아요.” 갓가지 수술 후 찌렁찌렁 울리던 목소리는 약간 기운이 빠졌지만, 날짜까지 기억해내는 남다른 기억력에 다른 후배 교장들이 감탄하였다. 그야말로 보라색 ‘갈맞춤’. ‘보라돌이’라는 별명을 떠오르게 하는 ‘멋쟁이’ 차림새. 자수정 목걸이에 보라색 시계줄까지 보라 일색이었다. 교장 기간의 추억에서 학생들을 시종일관 ‘우리 애들’이라 불렀다.

김계순

2017년 8월 정년 퇴직 후 소확행을 누리는 안정적인 중후함, 말수 없음이 모교 교장 재임기간에 관한 얘기를 하는 동안만은 저 멀리 달아났다. 숨이 가빠지고 말이 빨라지고 톤도 높아졌다. 모교를 향한 영원히 식지 않는 애정이려니.

송인순

모교 교장 4년. 4명의 전임 교장선생님 중 모교 재임기간이 가장 길다. 선배 교장선생님들이 “그때보다 얼굴이 좋아졌네.”라고 하시는 것이 확실히 모교 교장 자리가 긴장감을 크게 주긴 하는가 보다. 퇴직 후에도 교육 관련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가족과 함께 여유 있게 지내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 플루트를 배우면서 악보도 읽을 줄 몰랐던 왕초보였지만 이제는 플루트의 예쁜 소리로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힐링을 하고 있다고.

장해송

교장 재임 기간 코로나 확진자 교내 발생에서부터 코로나가 약화되는 상황까지를 겪으면서 학생들과의 활동이 둔화되었던 점을 가장 아쉬워한다. 한 아이라도 낙오되지 않고 이 어려운 과정을 견뎌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우선하였다고. 말로 표현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흔도 있다. 현재 김제에 있는 소규모 중학교에서 아이들 13명과 학생 수와 같은 수의 교직원 13명 총 26명과 함께 하고 있다. 적은 수의 학생이기에 학생 개개인을 더욱 자세하게 살피고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일까 즐거운 고민을 하며 생활하고 있단다.

더불어, 빛나다

70회 이상 영란 꿈나무들

MZ 영란인의 신선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송신영 72회
전주여고 교사(일반사회)

우아롬 73회

법률사무소 한서 대표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북지부 지부장/전주시 고문변호사



강문경 73회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김민지 74회

전북대학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



이근영 77회
제주대 교육대학 초등교육학과 교수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너무나 바쁘고 힘든 시절의 30~40대 전문직 영란동문들.

시간 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미리 질문을 드렸고, 답변글을 받았던 때문도 있지만, 1시간여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판을 벌인 좌담회는 깔끔하고 유쾌하기조차 했다. *이근영 동문은 화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전주여고 출신으로 (서울이 아닌) 지방에 남아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직으로 힘들었지만 의연하게 자리잡고 살아가는 30~40대를 찾아 영란 후배들에게 꿈을 싹틔우게 하고 싶었던 차연수 총동창회장의 뜻이 있었기에 마련된 자리. 전문가로서, 지역의 리더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영란 꿈나무들은 모교에 대해, 인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70회 이후 동문들의 이번 '영란Z' 참여를 계기로 총동창회에 신선한 활동을 기대해 본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면서 모교에 대한 자부심과 관심이 얼마나 큰지 말할 기회를 기다렸다는 듯, 얘기가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야말로 인생 모교 자랑을 위한 명석을 깔아준 듯하다. 모교 현직 교사 동문(송신영, 72회)은 후배 동문들에게 모교 현황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다.

“장학재단이 설립된 여자고등학교가 드물다.” “전여고에 오면 장학금 등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지금, 한 학급에 21명이요? 우리 때는 49명이었는데……”(우아롬, 73회)

“우리 때는 12개 반이 있었고 한 반에 40~41명이었는데……”(김민지, 74회)

“여학생의 경우 1순위 지망을 집 근처 가까운 곳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아파트 지구가 아닌 전여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부족한 실정이에요.”

“지금은 아자를 의무가 아닌 자율 참여로 바꿨어요. 대부분 학원으로 가려 해요. 안 가면 불안해하지요. 듣는 게 내 것이 아닌데도 말이죠.”

“지금도 점심과 저녁 후 운동장을 습관처럼 돌아요.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선생님들도 같이 돌지요.”

다른 동문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송신영 동문(72회)은 답변 아닌 답변을 한동안 이어나갔다.

* 송신영 동문은 학교와 총동창회를 연계하는 역할을 소리 없이 꼼꼼하고 세밀하게 행해서 총동창회에서는 송 선생님의 명성이 자자하다.

현재 하고 있는 일과 근황을 소개해주시지요.

송신영 모교에 발령 나서 처음 왔을 때 (학교 다닐 때 있던) 강당이 없어져서 매우 낯설었어요. 직전 근무했던 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 모교 근무를 권유하셨어요. 2021년 동의내신으로 전근 와서 현재 3년째 모교에서 일반사회 교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00주년이 되는 2026년까지 재직하게 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아롬 어렸을 때부터 꿈이 변호사는 아니었어요.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처음엔 기사를 하고 싶었는데, 잘 안되던 차에 대학(한국의외국어대 네덜란드어과) 졸업을 앞둔 시점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생기면서 한 번 도전해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전북대학교 로스쿨에 지원했고, 다행히도 합격했습니다. 로스쿨에 들어가서는 학부 시절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학업량에 적응이 잘되지 않았고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다 보니 수업을 따라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제 큰 장점 중 하나인 성실함으로 꾸준히 공부하다 보니 변호사시험에 무사히 합격했고 201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른 살에 시작했지요. 제가 그래서 그런지 전공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이 관심 가지는 분야에 매진한다면 열매를 얻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우아롬 73회

지난해 3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이하 민변 전북지부)의 제12대 지부장으로 취임해서 공익소송 활동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요. 전북지부 최초 여성 지부장이다 보니 더 관심을 받고 있는 듯 합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요청하는 ‘활동가’도 아니고, 법률 조력에 그치고 있는 정도인데 인권변호사라고 칭하면 부끄러운 일이지요, 다만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함께할 것이고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름이 특이해서 물었다.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 ‘아름’이 ‘얌’의 옛말이란단다.

변시 2회 출신인데, 그 당시 여자변호사가 많지 않았을 텐데요. 사회적인 위상이라든지 활동 영역이라든지 현재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우아름 제가 변호사로 발 디뎠던 10여 년 전만 해도 여자변호사 수가 적었어요. 사회적으로도 소위 ‘이너서클’에 들어가기도 힘들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 수도 늘고 활동 또한 활발해서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지역 최초의 여성 민변 지부장이어서 관심이 큰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역 민변 활동과 우아름 동문의 지역에서의 활동이 궁금합니다.

우아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우리 사회 민주화를 위한 최초의 법조부문 운동단체로 1988년 51명의 회원으로 출범했습니다. 전북지부는 1999년 만들어져서 현재 50여 명의 회원이 지역의 노동·인권 변호사로서의 기틀을 다져나가고 있어요.

최근에는 도내 장애인시설 내 장애인 학대 사건의 피해장애인 변호를 비롯해 도내 장애인 거주 시설의 장애인 인권 침해 및 학대에 대한 대책위 활동, 환경오염 피해지역인 익산 장점마을 손해배상 사건, 전북도청 청소노동자 피고발 건, 택배노조 사건, 집시법 위반 사건, 국가보안법 사건 등의 변론 활동을 해왔습니다. 변론 활동 이외에도 지역사회에서의 저희의 역할을 고민하며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완산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전라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전주지방법원 민사 조정위원, 새만금위원회 위원, 전주시 고문변호사를 비롯해 많은 기관의 심의위원과 인사위원회의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강문경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로 있습니다. 국제법 전공으로 中國 清華大學校 법학과에서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약 6년여간 중국 북경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전북대 공공인재학부는 2009년에 자율전공학부로 출범했다가 로스쿨 제도로 법학과가 없어지면서 생긴 학부입니다. 글로벌시대에 부합하는 공공분야의 미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로스쿨 진학을 비롯해서 국가고시, 공공기관 등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김민지 전북대학병원 영상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입니다. 건강검진이 보편화된 요즘에는 엑스레이, 초음파, CT, MRI를 촬영하는 일이 빈번하지요. 이런 영상들을 촬영하는 곳이 영상의학과이고 그 영상들을 판독하는 일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내과, 외과처럼 환자를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응급실이나 외래, 병동에서 촬영하는 많은 영상들을 판독하고 초음파의 경우는 직접 촬영도 하면서 판독도 하게 됩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의대/ 의학전문대학원 4-6년을 다니고 인턴, 레지던트 총 5년의 수련을 한 후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될 수 있습니다. 약 10년 정도의 공부와 수련과정이 있어야 하며 영상의학과라는 과목 자체가 전신을 보아야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매번 판독을 할 때는 좀 더 질환들을 자세히 찾아보기도 하고 영상에서 병변을 놓치지 않기 위해 무던히 노력합니다.

저는 2004년 전북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했는데요. 입학할 때부터 의사를 염두에 두고 학과를 선택했어요. 어머니(박인숙, 49회, 서울영상의학과 원장) 영향이 컸어요.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이 2004년 도입되어서 전북대 의대도 2006년 의전원으로 전환했어요. 기초의학 등 의대 커리큘럼과 접목되는 학과를 찾았고 식품영양학과에서 다양한 과목을 들을 수 있어서 의전원 진학이 가능했지요. 그중에서도 영상의학과 전공에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 제 성격상 환자와 1대 1의 직접 면담보다는 세밀하고 정확한 판독으로 환자의 불편한 부분을 없애는 일이 맞기도 하구요.

이근영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초등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에요. 2024년으로 3년째가 됩니다.

초등국어교육을 전공했구요, 한국교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전주교대를 졸업하고 23세에 전주 동북초등학교에 첫 발령을 받았어요. 집에서 동북초까지 출퇴근 길에 모교인 전여고를 지나서 다녔어요. 모래내시장 부근에 위치한 학교 특성상 부모가 바빠서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이 적어서 그런지 아이들이 비교적 역세고 관심과 사랑을 원하는 마음에 관심을 끌려고 말썽을 부리곤 했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왜 선생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학생들의 마음을, 형편을 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가정이 힘든 아이들이 많았는데. 여러 다른 면을 같이 보지 못하고 몇 명의 아이들을 문제아 취급했던 그 과거가 지금 와서 반성됩니다. 경험이 쌓이면서 힘든 것을 그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했던 아이들을 감싸 안지 못했던 그때가 후회됩니다.



이근영 77회

아동문학 공부를 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아동문학이 애니메이션, 그림책 등으로 확장되면서 아동에 대해서 폭넓게 접근하고 있어요. 아동심리를 바탕으로 한 교재를 고민하고 있어요. 현재 언론에서는 초등학생을 매우 부정적인 모습으로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고집 세고 이기적이고 통제가 안 되고 충동적이고.... 아이들은 변하는 과정에 있고, 급격히 변화하는 데도 발달수준을 생각하지 않고 어느 한 면만 보고 부정적으로 표현되는 것에 매우 속상합니다. 아이들에게 조금만 관심을 보여주면 변할 텐데...

사회생활 하면서 전주여고 출신이어서 좋은 점이 있을까요? 안 좋은 점이 있다면요?

송신영 학교생활 할 때 선배님들을 자주 만날 수 있었고, 알게 모르게 선배님들이 많이 챙겨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각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선배님들이 계셔서 어느 자리에서나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점이 좋습니다. 특히 차연수 회장님이 전북대 대학원장으로 계실 때 고교 선배라는 것 하나로 편하게 접근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김민지 의대/의전원 특성상 전고와 전여고 동문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전고/전여고 학생들이 입학하였기 때문에 동문회가 활성화될 수 있었습니다. 역시 명문은 명문! 학생 때는



동문회에서 선배들의 도움과 동기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동문회에서 선배들에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편하게 물어보기도 하고 병원 실습은 어떤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편하게 정보를 교류할 수 있었지요. 공부할 때는 동기끼리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시험이 끝나면 함께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며 4년이라는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선배들이 든든한 지원군이었어요.

안 좋았던 점을 굳이 꼽자면, 학년이 낮을 때는 선배님들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선배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데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자주 얼굴을 보고 서로의 이야기를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근영 좋은 점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사회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선배님들이 많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김민지 74회

본인의 성장에 영향을 주신 분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송신영 제가 일반사회 교사를 선택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은 고등학교 때 일반사회를 가르쳐주셨던 사회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의 수업 시간은 항상 웃음이 가득했고 어려운 내용도 알기 쉽게 가르쳐주셔서 선생님을 보면서 일반사회 교사의 꿈을 키웠습니다.

우아름 저는 가족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날 있었던 힘든 일, 좋은 일, 소소한 일들을 편하게 이야기하고, 고민이 있을 때는 해결책도 함께 찾곤 합니다. 가족이야말로 늘 저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감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자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분은 저희 어머니입니다.

강문경 저희 집은 언니와 저 이렇게 딸만 둘인데요, 어렸을 때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부모님께서 저와 언니에게 단 한 번도 ‘여자니까 이렇게 해야지’ 또는 ‘여자니까 이만큼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너희들이 크면 우리나라는 남녀 모두 평등하게 직장을 갖고 사회적으로 똑같이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후에 제가 대학 진학을 고민할 때도 법학과를 강력 추천하셨고, 이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근영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셨던 김혜선 선생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국사 과목을 담당하셨는데, 김혜선 선생님도 전주여고 출신으로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학생에 대한 애정이 깊으셨습니다. 국사 시간에 들려주시는 역사 너머의 이야기들이 당시에 너무 재미있었고, 또한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갖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모교에 대해 느끼는 애교심과 자긍심은?

송신영 전여고는 전통이 있어서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에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착하고 말썽을 부리는 학생이 없어요.

학교에서 동창회 일을 하면서 선배님들의 동창회 활동을 비교적 가까이 대하면서 모교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모교나 후배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기는 어려운데, 선배님들께서 수능 응원, 리더스포럼 행사,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해 끊임없이 모교와 후배들에게 애정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며, 모교에 대한 자긍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우아름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는 어릴 때이기도 하고 ‘고등학교는 그냥 열심히 다녀야 하는 곳’ 정도의 생각에 별다른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와 보니 전주여고를 나온 것만으로 우호적으로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이렇게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애교심과 자긍심이 더욱 생겼습니다.

강문경 같은 성별을 가진 또래 집단이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하며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과 이를 바탕으로 저를 포함한 많은 동문들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여성으로 성장시켜 준 전주여고는 저에게는 언제나 자랑이자 훗날 제 딸에게도 꼭 전주여고 입학할 추천하고 싶습니다.

* 이 대목에서 딸의 전주여고 진학을 권하겠느냐는 공통질문을 던졌다. 강문경 동문과 김민지 동문, 이근영 동문은 즉각 긍정 대답, 송신영 동문과 우아름 동문은 미련으로 노 코멘트.

이근영 저희 어머니와 이모가 전주여고 출신이라 당연히(?) 전주여고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오랜 세월 전주, 전북지역에서 명문 고등학교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어 학교에 대한 자긍심이 있습니다.

고교시절 잊지 못할 추억을 떠올려본다면요?

송신영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라디오 방송이 유행했어요. 고1 때 반 친구가 담임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은 사연을 라디오 방송국에 보냈는데 그 사연이 선정되어서 반 친구들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방송을 들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송신영 72회

우아름 돌이켜 생각해보면, 고교시절 즐거운 일들이 정말 많았는데 저는 뭔가 특별한 것보다 오히려 소소한 일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모교를 생각하면 강당과 잔디운동장만 떠올랐는데요. 얼마 전, 학교 운영위원으로 졸업 후 처음으로 모교를 방문했는데, 강당하고 음악실만 그대로 있고 학교가 많이 변했더라고요. 아주 좋아졌어요. (강당하고 음악실도 공사예정이어서 바뀔 거예요. 송 선생이 옆에서 최신 정보를 알려줬다.) 지금 건물이 있는 곳이 예전에는 운동장이었고 주변에 정말

큰 은행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졸업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은행나무 아래서 운동장을 바라보며 여유 부리던 기억이 아직 선명합니다.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을 정말 싫어했는데 그 시간에 도망갔다 걸려서 오리걸음으로 운동장을 돌면서 잡초 뽑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야자 하지 않았으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강문경 제가 전주여고 입학원서를 낼 당시에 한 반에 절반 정도는 전주여고를 지원하고 그중에 1~2명 정도만 입학할 수 있을 정도로 경쟁이 아주 치열했어요. 만에 하나 떨어지게 되면 3지망 이후의 아주 먼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하는 상황이라 선뜻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집 근처 언니가 다니는 여고를 추천하고 원서를 그쪽으로 낸 것으로 알고 계셨는데, 혼자 몰래 전주여고에 지원했지요. 발표일까지 말을 못하고 어린 마음에 속으로만 떨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입학자 명단에서 제 이름을 확인하고 부모님께 당당히 말씀드리자 깜짝 놀라시면서도 자랑스러워 활짝 웃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만 해도 전북지역 대부분의 부모가 전여고에 대한 명성과 향수를 그리며 딸의 1지망을 전여고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전여고 17회 졸업생이신데, 70대 후반까지도 동창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셨지요. 작고하신 지 17년 되네요. 아마도 저의 전여고 지원에는 할머니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고모도 동문이구요.(강경원, 52회, 전 기린중 교사)



강문경 73회

또 관현악단의 현악부에서 첼로를 연주했는데, 2학년 때 전북지역 대회에서 우승했던 기억도 나고, 저녁 먹고 운동장 돌았던 것도 생각나요.

김민지 저도 밤 10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이 있어서 저녁을 먹고 친구들과 학교 앞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들고 잔디밭 운동장 (그때는 잔디밭 운동장이 있던 학교가 별로 없었습니다)을 몇 바퀴씩 걸으면서 수다를 떨었던 일이 제일 생각납니다. 항상 교실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하다가 저녁시간에 친구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지금은 기억도 나지 않는 일상적인 얘기였겠지만) 노을 지는 하늘을 보며 운동장을 돌고 자율학습을 했지요. 특별하진 않았지만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지금은 제일 생각이 납니다.

참, 저도 관현악반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했는데 강 선배님이 얘기한 '우승' 기억이 전혀 없어요. 아마 1학년 때여서 그랬나 싶기도 하고.

이근영 고등학교 1학년 시절에 재밌는 친구들이 많아서 가끔 수업 시간에 '노래자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점심시간 이후에 친구들이 피곤해할 때, 나른해진 몸을 달래고 수업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한 번씩 노래를 불러주던 친구들이 생각이 납니다. 1학년 체육대회 때 에어로빅 안무 짜고 의상을 만들어 입었던 것도 생각납니다.

전여고가 삶에 미친 영향은?

송신영 모교에 근무하면서 재학생들이 선배님들과 함께 하는 행사에 참여한 후 선배님들의 훌륭한 모습을 보며 자신들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아름 전여고에서 학교라는 울타리가 주는 안정감을 느끼며 10대의 마지막을 무사히 보낼 수 있어 감사했고, 졸업 이후에도 전여고 출신이라는 유대감을 선물로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된 후로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었는데, 전여고에 대한 자부심이 자양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학교 때는 조용하고 공부에 전념하던 학생이었어요.

강문경 전주여고에 1999년에 입학했으니 벌써 25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주여고 교복을 입고 거리를 지나면 애정 어린 시선으로 “전여고 학생이냐?”며 먼저 말 걸어주시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주시는 어른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존재임을 인식하며 가능한 주위에 민폐를 끼치지 않고, 단정한 삶의 자세를 유지하며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김민지 전주에서 태어나고 전주에서 삶을 이어가는 과정에 전여고를 나온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 인생 전반에 전여고 출신이라는 것 자체가 스며들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특수대학원에서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동문회가 있기에 대학원과 병원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고 든든한 지원군처럼 뒤에서 응원한 느낌을 받으면서 졸업하였습니다.

이근영 전주여고 교복을 입고 다니면 중학교 친구들이 부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전주여고 교복이 저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줬던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크게 인정 받는 전문인들인데요, 앞으로 어떠한 삶을 추구하시는지요?

송신영 지금 가장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나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나 자신을 삶의 중심에 놓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힘든 상황에 놓일 때가 있는데 스스로 자신의 중심을 잘 잡는다면 쉽게 무너지지 않고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아름 저는 인생의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것이 큰 고민이었는데, 요즘은 그저 하루하루 충실히 살다 보면 뭔가 되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사과는 마음을 다할 것, 남에게 민폐 끼치지 말 것, 시간 약속을 잘 지킬 것.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정해 놓고 지키려고 하는 편입니다.

송신영 저는 성격이 단순하여 '오늘 하루 즐겁게'가 삶의 좌우명입니다.

이근영 저는 아동문학을 공부하고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선하게 살자'가 삶의 철학입니다.

영란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송신영 우리 학교의 전통과 선배님들의 훌륭하신 모습들을 본받고 이어가면서 지금 사회에 맞게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새롭게 변화를 추구하며 앞으로 더욱 멋진 전주여고를 만들어나가길 바랍니다.

우아름 저는 학창시절의 대부분 특별한 장래희망이 없었고 학기 초에 선생님이 나눠주시던 장래 희망 설문지를 공백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후배님들에게 학창시절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 다든지,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점을 노력해야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변호사가 되기 전까지 늘 갈팡질팡하면서 뭔가 찾으려고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런 과정에서 비교적 다양한 경험을 했고 이런 것들이 쌓여 지금 일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정확한 꿈이 있는 것도 좋지만, 없다고 하더라도 좀 더 열린 생각으로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는 것이 미래를 위한 큰 투자가 될 것입니다.

강문경 고등학교 3년은 사실 대학입시를 코앞에 둔 가장 긴장되고 부담되는 시간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성실한 하루하루가 훗날 여러분의 풍성한 삶의 기초가 될 것이예요. 침착한 마음으로 매일 하루 즐겁게 살아가세요. 꿈을 크게 가지고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동경하는 직업이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 길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길 바랍니다. 책을 읽고 혼자 생각하는, 혼자 정리하는 시간을 좋아하는 후배에게는 교수나 연구자의 길을 권합니다.

김민지 고등학생 시절에는 수능만 보면 모든 게 마무리되고 뭔가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시기는 인생에서 일부이지요. 하지만 그 일부가 전체 인생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을 늘 잊지 말고, 전여고의 자긍심을 갖고 학교 생활하길 바랍니다. 학생 때는 보이거나 느껴지지지는 않지만 영란인들을 응원하는 선배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든든한 인생의 지원군이 있다는 생각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 3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답답하고 힘든 시간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근영 고등학교 3년이 대입을 준비하는 치열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돌이켜보면 가장 열정적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원하는 대학에는 가지 못했지만, 결국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하여서 작가를 희망했으나 현실적으로 교대를 선택했고, 저와 잘 맞았습니다. 박사 때부터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했으며 현재는 국정교과서(초등국어 저학년) 편찬위원회 팀장을 맡고 있어요. 진로를 정하기 어렵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립니다. 후배님들 각자 원하는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2026년이면 개교 100주년을 맞는데요. 모교의 발전 방향이나 축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아름 한 세기 동안 명문 고등학교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전주여고가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지금처럼 동문에게 자긍심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학교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강문경 100주년을 맞게 되는 모교와 이를 준비하고 계시는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올립니다.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기꺼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근영 전주여고가 지나온 100년의 세월은 그저 지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교의 발전을 위해 여러 방법으로 애쓰시는 선배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전여고총동창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우아름 ‘동창회’ 하면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어른들의 모임이라는 생각에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한 저희에게는 아직 동창회가 낯설기도 합니다. 좀 더 교류가 생겨 익숙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지 늘 전여고동창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 그 활발했던 동창회를 좀 위축시켰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선배님들께서 음악회를 개최하여서 기부금 모집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시간이 또 있으면 직접 노래는 부르지 못하더라도 음악회에 참석해서 기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0년이라는 긴 전통이 있는 모교의 졸업생 일원으로 선배님들의 발자취를 조금이나마 따라가고자 하고, 늘 지금처럼 전여고동창회가 활발하게 이어 나가길 바랍니다.



05 RE, 영란 속으로



졸업
50주년

44회

우리는 영원한 청춘

글 _ 김계순(44회)

우리는 영원한 청춘, 친구야 반갑다.
반백년전 백선을 가슴에 차고 다니던 소녀들이
우리는 함께 익어가는 아름다운 영란인이 되어 만났다.

44회가 여고 졸업 50주년 기념 행사를 2023년 4월 20일(목) ~ 4월 21일(금) 1박 2일로 무주 덕유산리조트에서 했다. 2022년 후반기부터 50주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장소를 사전답사한 결과 서울, 전주, 기타 지역의 접근성과 숙소를 고려하여 무주 덕유산리조트로 결정했다. 여러 방법으로 친구들에게 알려서 서울팀, 전주 및 기타팀, 해외팀으로 나누어 참석 인원을 파악하고, 많은 친구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100여 명의 친구들이 해외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모였다. 그동안 모아둔 44회 평생회비는 든든한 밑자금이 되었다. 여기에 참가비 찬조금이 모였고 나아가 모교에 발전기금으로 500만 원을 기증할 수 있었다.

44회 우리들은 서울팀, 전주 및 기타팀으로 나뉘어 서울팀은 사당 공영주차장에서, 전주 및 기타팀은 벽계가든 건너편 앞에서 모여 단체버스로 이동했다. 사전에 단체 카톡방에 올려진 악보 및 교가를 교과서 삼아 버스에서 다 함께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무주에 도착했다. 리조트 데스크에서 등록하면서 우당 최은우가 자신이 쓴 책인 '하늘과 바다가 사랑한 섬, 제주 한 달 살기'에 자필 서명하여 모든 친구들에게 선물하여 설렘과 기쁨이 더했다.

우린 방에 짐을 풀고 40주년 기념식을 하기 전, 무주구천동 계곡 물길을 따라 걸으면서 오랜 만에 만난 친구들과 자연을 벗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어사길'은 구천동의 비경을 느끼고 몸과 마음이 힐링되는 치유의 길이었다.

드디어 우리 44회에 의한, 우리의 시간을 위한 고교 졸업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한 명 한 명이 축제의 주인공인 시간. 각 반별로 앉아서 여고시절 추억과 답소를 나누느라 그 풍성한 만찬도 곁다리였다.

이어서 펼쳐진 라인댄스, 중창, 연주, 장기 자랑, 레크리에이션 등이 어우러진 화합의 한마당은 열광의 도가니였다.

석 달 동안 연습하여 올린 전주팀의 라인댄스 무대를 비롯해서 전공자로서 녹슬지 않은(?) 실력을 발휘한 플루트, 성악은 무대는 친구들의 시계를 반백 년 전으로 돌려놓은 듯했다. 홀라 춤 공연은 취미생활인지, 전공인지 모를 정도의 대단한 무대였다.

중창은 또 어땠나? 서울팀, 전주팀이 원거리로 연락하면서 파트를 정하여 발표 전까지 연습을 했던 중창팀은 멋진 하모니를 자랑하였다.

미국, 스페인 등 해외에서 온 친구들도 무대에 올라 토크쇼 및 노래를 하고 즉석에서 장기 자랑도 했다. 뭐니뭐니 해도 하이라이트는 모든 친구들이 참여한 단체 레크리에이션이었다. 몸풀기에 이어 웃고 떠들고 게임을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날려 보냈다. 나이가 들어도 열정적인 친구들 덕분에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사실, 나도 라인댄스의 멤버지만 공연보다는 연습하는 동안 여고생이 되어서 즐거웠고 서로를 더욱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렇게 하루를 훌쩍 보내고 둘째 날은 세계 태권도원의 성지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관광 유산인 무주 태권도공원에 갔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로 선정된 '무주 아름다운 길'을 걸어서 태권도원에 가는 동안 초록으로 물든 산들에 매료되었다. 태권도박물관을 구경한 후 모노레일을 타고 태권도공원 전망대에 올라 무주의 산세를 조망하는 색다른 경험도 했다.

점심 식사 후 헤어지면서 서로 뽀글했다.

이렇게 아스라한 세월의 시간을 소환 추억하고 스스로 기억하며 우리들의 추억록을 일단락 맺는다.

모든 영란인을 응원합니다.



졸업
40주년

54회

꽃이 피는 삶이 곱다!!!

시어처럼 곱게 나이 들어가는, 유행가의 가사처럼 익어가는 친구들아!
교향곡에서 3악장에 접어든다는 우리 나이, 모두 안단테와 모데라토의
속도로 건강히 숙성해서 다음 50주년을 준비하자.

글 _ 한숙경(54회)

54영란, 선물같은 추억 소환

30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부터 줄곧 기대표를 맡아서 고생했던 이영숙이 모교인 전주여고 교장선생님이 되어서 뜻하지 않게 기대표가 바뀔 수밖에 없었다.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도원맹세하듯이 몇 명이서 기대표님을 열과 성을 다해서 도와드리겠다고 서약까지 하고 한숙경에게 기대표를 맡겨버렸다. ‘여고 졸업 40주년 기념 행사’는 선배님들이 정열을 모아 지속적으로 개최해왔던 기수별 연례행사인데, 정작 우리 54회는 “꼭 해야만 하는 걸까?”라는 의견도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54회만의 특성을 살려서 소박하게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선배님들처럼 그럴듯하게 텐션을 한껏 높여서까지는 못하지만 54회답게 하는 것으로. 그 후 우리는 2개월 만에 서울에 있는 몇몇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하자는 의견을 나누고 한 사람씩 일일이 통화해서 안부를 묻고 행사계획을 알려가며, ‘54영란, 선물같은 추억소환’을 캐치프레이즈로 정하고 “40주년 행사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준비과정 보고할게……” 이렇게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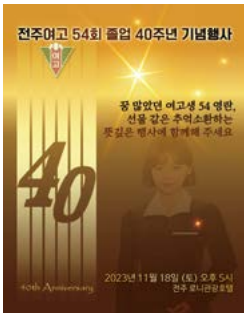
20여 명이었던 단톡은 서서히 100여 명까지 참여가 늘어가고, 그 시절 그 추억을 소환하고 현재의 모습들을 궁금해하였다.

또 선배님들의 열정도 귀담아 들어가며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의 가슴 한 편이 뭔가 모를 감동으로 먹먹해지기도 하고 함께 참여했음에



뿌듯함을 느꼈다.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동참한 모교발전기금이 쑥쑥 모여지고, 저마다 특색있는 재능으로 도울 수 있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참여해 주어서 행사준비가 일사천리로 잘 되어갔다. 텐션 높은 공연은 아니었지만 가슴 속 파스한 기운과 아련한 추억으로 함께 이끌어준 송명숙과 김혜선 친구의 시낭송은 멋지고 우아한 기념식이 되기에 충분하였다.

졸업 40년이 지나 후배들에게, 모교에 발전기금을 듬뿍 전할 수 있어서 자부심이 솟았다. 기념품으



로 제작할 손수건에 멋진 그림을 제공해 준 정미라, 추억 속 졸업앨범과 빛바랜 사진을 엮어서 영상과 근사한 초대장을 디자인해 준 한명진, 참석친구들의 이름표를 만들고 행사장 곳곳에 알림판을 만들어준 김예순, 기념행사장을 더욱더 아름다운 분위기로 꾸며준 이금옥, 그동안

장기집권(?)한 대표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단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해준 이영숙, 힘내자고 맛있는 간식으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던 현정례, 덤병대는 내가 무엇 하나 빠뜨리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던 김윤경, 연락 담당을 도맡아서 통화하고 코끝이 찡하게 친구들에게 전하는 인사를 낭송해준 손영란 등, 이밖에도 이루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각자 맡은 역할을 척척 해준 이인화, 문경숙, 한현순 그리고 재경 친구들, 묵묵하게 기대표로서의 품위를 지키면서 모든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밀어주는 한숙경 덕분에 우리는 영란동창회 역사에 남을 한 페이지를 아름답게 그려낼 수 있었다.

6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 이렇게 만날 수 있어 참 좋다고, 오늘 만남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내일의 우리를 위한 작은 선물이라고, 우리 나이에 완벽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그대로도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라고, 들키고 싶지 않은 나의 단점과 부족한 점도 가만히 안아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 오늘 이 자리가 서로에게 위로도 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자던 친구의 말처럼 인연의 유효기간을 떠나서 그냥 선물같은 기억들에 감사하고 소중히 간직하며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전통을 계승한다는 것은 구속력도 없고,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도 없었지만 3년 동안 영란인으로 성장했던 여고시절은 선배님들을 따라서 연례적으로 하는 40주년 기념행사이기도 했지만 분명한 명분이 있는 중요한 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그날을 추억하면서 끝으로 우리 54회 40주년을 축하해주신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우리보다 젊어서 더 예쁜 후배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숙경 동문(54회)은 54회 기대표를 맡고 있으며, 전주에서 NNF(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그때의 우리... 이어지다

글 _ 소인영(64회)

1974년, 50세, 64회, 30주년 그리고 100주년...

초·분 단위로 빠르게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지금의 나를, 위에 나열된 숫자들이 과거의 기억 속으로 안내한다.

레트로 종합선물세트를 선물 받은 거 같고, 백 투 더 퓨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일시정지가 되어 만감이 교차한다.

호랑이 기운을 안고 태어난 해 1974년, 작년에도 그러더니 2024년 올해도 왠지 모르게 계속 아홉수에서 50이라는 나이와 턱걸이 중이다. 이와 함께 여고를 졸업한 지 지난해로 30년. 자랑스러운 나의 모교, 전주여고가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있다.

100년의 역사 안에 동문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64회 기수를 수소문해 찾아주시고, 인연의 손을 내밀어 주신 차연수 선배님과 유정화 선배님 덕분에 오늘날이 간직할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의 시간을 선물 받았다.

우리가 여고를 졸업한 지 30주년이라니... 그리고 이렇게 기수마다 이어지고 있었다니 동기애가 느껴지며 하나, 둘, 더 많은 동문들과 연락이 닿기를 바랐다.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기를 고대하며 이과반이었던 이선희와 조미숙, 문과반 무용부였던 나 이렇게 우리 셋이 모였다.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선희와 미숙이의 얼굴을 다시 보니 30년 만에 만났어도 어제 만난 친구처럼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다.

허물없이 그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서로의 기억을 더듬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치 퍼즐처럼 잊고 있었던 여고시절의 순간들이 신기하게도 하나 둘씩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르며 맞춰졌다.

우리 때부터 교복이 부활되고 두발 규제가 재개되었는데 더 나은 교복 디자인을 선별하기 위해서 교복을 입고 교실마다 돌던 교복 모델이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선희였다고 한다.

하얀 칼라 깃에 영란 배지를 달고, 허리가 어딘지 모르게 잘 숨겨주었던 교복 상의와 종아리를 지나 좁 과장되지만 발목까지 내려올 듯한, 그 만큼이나 길게 느껴졌던 치마, 바로 그 정통 교복이 나는 나를 마음에 들어 했었다. 또 선희는 운동장 저 끝에 있던 동창회관 청소를 담당했는데 청소하러 가

면 멧쟁이 할머니들이 간식도 챙겨주시고, 예뻐해 주셨다고 한다.

“그 멧쟁이 할머니들이 우리의 선배님들이시고 또 우리의 모습이야.”라며 웃음 지었다.

미숙이는 정겨운 친구들 이름과 과목별 선생님들 성함을 많이 기억하고 있었다. “아. 맞아, 맞아. 기억나.” “그래, 그래. 나 알아.”하며 맞장구치니 친구들과 선생님들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새삼스러웠다. 지금은 학교 급별 학급수가 줄어들어 반 인원이 30명 남짓이지만, 우리 때는 10학급에 50명이 넘었었다.(이렇게나 많은 인원인데 친구들아 어땠니~)

체육대회 때 세계 나라별 민속의상을 만들어 입고, 손수레를 마차 삼아 입장했던 기억과 이희목 학생부장 선생님께 걸리면 안 되는 귀밑 3cm 단발머리, 이주자 선생님, 이희원 선생님, 우리의 담임 선생님들은 잘 계실까? 친구들아, 잘 지내니?

학교와 지역을 대표로 전국 무용대회에서 특상을 놓치지 않았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여고 무용부가 지금의 나를 있게 해 주었다. 돌이켜보니 참 소중한 시간이었다.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이 모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더해졌다.

같은 학교를 졸업하고 여고 시절의 인연이 또다시 사회의 인연이 되어 우리의 생활 속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하며 맺어진 학연이라는 의미가 새롭게 새겨진다. 언제 어느 때 만난다 해도 이렇게 자연스럽고 별다른 이유 없이 반기는 인연이 또 있을까?

우리를 성장시켜준 곳, 대 전주여자고등학교.

자랑스럽게 동문의 이름으로 앞장서시는 존경하는 선배님들.

애정하는 후배님들. 우리여서 감사합니다.

하나에서 셋이 되었고, 30주년을 계기로 40주년, 50주년을 계속 정겹게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64회 친구들과 함께하기를 기대해봅니다.

글을 마치며...

이 순간을 많이 흐뭇해하시며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33회 오미순(오미지) 선배님이신 우리 엄마가 오늘은 무척 그립습니다.



소인영 동문(64회, 사진 맨 왼쪽)은 신체심리놀이터 대표를 맡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사, 신체심리상담사로 전북대 체육교육과 강사, 전북대평생교육원 라인댄스 전담교수, 전주문화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06

일상의
선율에
스미다



모교 참사랑의 실천가 드러내지 않는 미덕 45회 박OO 동문

글 _ 이영숙(54회) 전주여고 교장

10월 초 어느 금요일 늦은 오후, 서울 가는 기차 안에서 차연수 총동창회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교에 3천만 원의 장학금을 재학생 60명에게 주시겠다는 선배님이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동문들께서 이모저모로 다양한 장학금을 주셔서 우리 학생들을 격려하시고 꿈을 이루도록 지지해 주시지만, 이처럼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주시는 분은 흔치 않은 경우라서 가슴 벅차오르며 ‘역시 전주여고 동문님들의 저력’이 대단함을 더욱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추천 서류를 드리고 선배님도 뵈 겸 차연수 회장님과 선배님이 운영하시는 ***약국을 방문했을 때 폭 꺼져 있는 소파를 보고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약사이시고 재단법인(연경장학재단) 대표이사이신 분이 이렇게 낡은 소파를 사용하고 계시다니….

“선배님! 소파부터 당장 바꾸셔야 겠어요. 이렇게 꺼진 의자에 어떻게 앉아요?”라는 차회장님 말씀에 선배님은 웃으시면서 “그러잖아도 오시는 분마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하지만 오랫동안 사용한 가구인데 버리기도 아깝고 또 버리면 쓰레기가 될 것인데…”라고 하셨습니다.

‘연경장학재단’은 선배님의 어머니 故 류차남 님(9회 동문)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1986년에 설립하셨다고 합니다. 연경(研經), ‘잘 알고 닦아 사회에 공헌하라’는 취지로 설립된 장학재단은 채권 및 정기예금 이자로 매년 100여 명의 중고등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어머니 류차남 님은 영란의 신여성으로 일찍이 일본 유학도 다녀오시고 경제에도 관심이 많은 분이셨으며, 아버지는 소아과 의사이셨습니다.

모교에 3천만 원의 장학금을 익명 기부

오래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사용하는 것도 큰아들의 영향



선배님은 대학에서 시간강사로도 출강하셨지만,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어린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전문직을 가져야 겠다’는 생각에 늦깎이 학생으로 약학대학에서 다시 공부하여 지금까지 약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저만 전주여고를 나와 전주에 남게 되었고,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모시게 되어서 자연스레 장학재단 업무도 제가 맡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정의 기복 없이 잘 지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65세 이전에는 눈물조차 나지 않았어요. 지금은 사회적으로 약자이신 분들을 보면 공분하기도 하고 눈물샘이 터지기도 하네요.”

둘째 아들이 결혼하는 날, “아들! 아빠 없이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마워.”라고 했더니 “어머니, 무슨 말 씀이세요. 저는 아빠가 두 분이었어요. 돌아가신 아빠와 엄마, 이렇게 두 분이요.”라고 웃으시는데, 가슴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지금은 영화평론가이자 작가이고 환경운동 실천가이기도 한 큰아드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주말에 주로 영화를 보면서 여가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소파나 오래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사용하는 것도 큰아들의 영향이라네요.

약국 문을 닫고 나오면서 “공부 못해도 심성 좋고 착한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세요! 어머니가 장학재단을 세우신 뜻이기도 했어요.”라고 거듭 강조하신 선배님의 말이 귀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 줄기 빛 그리고 변환의 연금술, 모래놀이치료

글 _ 신유순 (51회)



어둠 속을 걷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보인다.
그러나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면
일순간 어두워서 두렵던 그 곳은
생명력이 넘쳐나는 경이로운 곳을 알게 된다.

나는 어둠 속에 수줍게 태양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새벽 여명의 시간을 좋아한다. 내가 새벽형 인간인 것은 아니지만 이따금 맞이하는 이 시간은 나에게 생명의 시간이다. 아직 정체를 드러내지도 않은 태양의 아우라가 동쪽 하늘을 붉게 물들여가는 것을 바라보며, 웬지 모를 설레임, 신비스러움,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마음 속의 움직임..... 어느 날 이 시간의 느낌은 갓 태어난 아이를 바라볼 때의 무조건적인 축하와 환희와 생명에 대한 경외로운 느낌 같은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하였다. 어둠을 뚫고 빛의 세상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시간, 이 시간은 마치 내담자(상담을 위해 찾아오는 주인공, 이후 주인공)들이 모래놀이 첫 상자를 시작할 때 상담자로서 느끼는 '이제 이분의 용기가 내적 체험을 통한 변환으로 이끌렸구나' 라는 기대감과 맞닿아 있다.

주인공이 모래를 만지고 상자에 소품이 놓이면, 어둠 속에 있던 찬장의 문을 열자 찬장 속으로 쏜살같이 내리찍는 빛처럼, 어둠에 묻혀 있던 마음속 이야기가 줄줄이 밝은 빛의 세상으로 나아온다. 모래놀이상담사에게는 주인공들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펼쳐가는 경이로운 내적 여정에 동행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티켓이 주어진다. 모래상자는 모래와 신체의 접촉과 더불어 상징적 작업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세상을



경험하고 재창조되는 변환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신성한 공간이 되어 준다. 주인공이 모래상자에 탑승하면, 나는 주인공의 곁에 동승하여 주인공의 여정이 맘껏 펼쳐질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나를 함께 태우고 떠나는 분들은 아주 어린 유아부터 어른신까지 다양한 분들이다. 운전자는 주인공도 나도 아니다. 주인공 안에 계신 진정한 그분, 자아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진정한 자기자신(Self)이다.



주인공은 한 상자 한 상자 눈 앞에 펼쳐지는 상징(Symbol)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알아채면서 의식화해 간다. 모래상자와 마주하며, 그간 간절하게 원했으나 대면하기 어려웠던 내적작업들을 하여 간다. 모래와 접촉하면서 우주만큼 드넓은 내 안에 있으나 나도 잘 알지 못하던 무의식을 만나면서 자신의 정신세계 전체를 만나게 된다. 이 여정에서 자신 안의 치유력이 살아나고, 생명력이 살아나며, 창조성이 활력을 되찾아 움직이면서 내적 소통이 활발해지는 경험을 한다. 이러한 내적 소통은 외부세계와의 소통에도 영향을 미친다. 내가 나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진정한 자기실현의 길이 열린다.

모래놀이에서 변환의 재료가 되는 것은 주인공의 고통들, 해결되지 않은채 안에서 굳어져 있던 트라우마적인 것들, 의식화되지 못하여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갇혀 있던 것들이다. 우리는 숙명처럼 다가오는 고통을 피하고 싶지만, 고통을 통해 성숙해진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렇다. 고통은 재창조의 기회가 된다. 고통이 없었더라면 몰랐을 세상 그래서 고통은 단지 고통이 아니라 복된 죄(펠릭스 culpa, Felix Culpa)이다. 고통이 단지 고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주인공들은 자신의 내면과 대면할 용기를 내었고, 모래놀이를 통해 자신 안의 그분(Self)과 마주할 기회를 얻고 변환의 황금열쇠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그 고통은 복된 고통이 되었다.

주인공들과 함께 모래놀이 여정에 동행하는 시간들은 은총이 쏟아지는 순간들이다. 무의식과 접촉할 때면 무의식으로부터 전해지는 선물이 있다. 자신 안의 빛이 이끄는 대로 자신 안의 상처들을 치유하고, 마음의 길을 곧게 내고, 막혀 있던 물고가 트여 힘차게 물줄기가 흘러 금수강산으로 바뀌어 가며, 새로운 멋진 문명이 싹트는 마음의 연금술, 새로운 내면의 신화가 쓰여지는 변환의 현장, 의식화된 자기실현의 길로 한발 나아가는 그 현장을 함께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사진은 주인공들의 작품이 아니고, 글의 이해를 도우려 제작되었습니다.



신유순 동문(51회)은 하모니가족상담연구소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모래놀이치료학회 지도감독자로 활동하고 있다.

25년 만의 전주여고 3학년 7반 반창회

결석한 세 친구 불러들이다

글 _ 안선주(51회)

전주여고 3-7반 반창회 모임 때 안 나왔지만 만나고 싶은 친구 셋이 있다. 그들을 비껴갈 수는 도저히 없어 난 다시 펜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나의 첫사랑 같은 큰 이현주,

지금도 곱고 순수하고 악의라고는 장난으로도 한번 가진바 없는 절대 절명의 선이 그 자체인 친구, 결코 얼굴을 보이지 않아 전화로 안부를 이어간다. 살이 무척 췌다는 것, 그것이 부끄러워 나를 만나지 않는다는...지금도 부끄러움이 많은 소녀로 남아 그만한 남편의 그늘에서 어여쁜 딸과 단아하게 살고 있지. 조금은 외로움을 타는 나의 소중한 친구다.

친하게 지낸바는 없으나 초딩 중딩 고딩 동창생으로 나와 전교 석차를 겨루던 이мина,

서울대학에 들어가 그곳에서도 펍이나 좋은 점수를 드높였다던데, 나는 고딩 때 뜻하는 바가 있어 공부를 접었기 망정이지, 뜻하는 바가 없어 공부만 했던들 서울대 재산 좀 축냈겠지ㅋ. 우린 인연의 끈을 더해 같은 쌍둥이 엄마가 되었고 같은 약사가 되었다. 난 큰 꿈을 안고 그것마저 접었지만..

이제 접을 게 있다면 색종이??

그리고 나의 맹렬한 고교시절의 절규, 그뵘고 푸른 초상화 최영화가 있다.

난 헤르만 헤세의 지와 사랑에 나르치스와 골트문트(맞딘가?)의 우정을 꿈꿨다. 최영화의 반듯하게 드러난 이마와 콧등(아룻하그마)에서 느끼는 지성미, 잘 갖춰진 섬세한 능력에 빠졌다. 헤르만 헤세의 회색 노트처럼 우리의 우정을 기록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영화와 내가 주고받은 편지가 한 100통은 되지 않았을까? 친구이지만 설레고 또 많이 닮고 싶었다는 것, 나의 부족 됨이 싫어 절규했다는 것, 영화와



아무 버스나 잡아타고 종점에 가서 다시 긴긴 얘기를 하며 전주 시내로 걸어오기까지 우리가 걸었던 도로가 고개를 이뤄 굽이쳤으니 몇 고개를 넘었을까? 돌이켜보니 영화는 나에게 엄청난 부담을 느꼈겠으리..... 내가 너에게 준 부담감을 난 이제사 사과한다. 너에겐 고교 때의 상처가 아직 남아 있지 않나 난 염려된다. 결국 내가 너에게 상처까지 줬잖니? 공부 좀 한다는 학교의 너무나 스산하 기만 한 분위기, 감성도 낭만도 위로도 없이 내몰기만 했던 선생님들과의 관계 그리고 상처들.....

영화야, 이제사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위로하고 싶다고, 나는 너의 모든 행운을 빈다고 꼭 전하고 싶다. 지금도 입매엔 정갈한 지성미가 가시지 않은 나의 영화야. 무진장 재미난 이야기가 그 입에서 쏟아져 나와 역시 영화도 ‘쭈마 대열’에 입성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것을 결단코 부인하려 들지 않는다. 그 강렬함이 좋다. 전화 자주 못 하지만 언제나 마음속에 서로를 간직하고 살자.

그리고 불러 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 이정화 김은희 김현숙 오창희 천선경 최영 진옥실 그리고 진양숙, 마음속에 늘 너희들의 행운을 빈다. 나의 친구들아.

또한 빼먹을 수 없는 나의 친구 김진선, 깊이 사랑한다. 너의 안위를 언제나 기도할게.



안선주 동문(51회)은 시인으로 영랑문학상 수상. 시집으로 <시간의 문에 기대어>가 있고, 동인지에 ‘하루의 시작 앞에서’ ‘어머니의 마루’ ‘짧은 생각은 시간이 두려워’ 등을 게재하는 등 동인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나무 삶 나

글 _ 이희순(51회)

“같은 종의 나무라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나무는 없다”는 말이 있듯,

급변하는 20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각자의 생각과 환경이 반영된 식사와 생활패턴으로 다양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고 있다.

오늘도 나는 따스한 겨울 햇살을 찾아 근처 산을 오른다.

다 떨어진 나뭇잎이 바닥에 따스히 이불처럼 덮여있고 마른 가지 사이로 너무나도 파랗고 맑아서 말로 형용할 수 없이 투명해 영혼까지도 비칠 것 같은 하늘이 흰구름 한두 가닥을 띠로 두르고 맑은 미소를 띠듯 떠 있다.

겨울이라 미세먼지가 없어서인지 요즘 하늘은 더욱 정겹고 바라보면 행복해진다. 그 하늘 아래 조용히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나무는 햇빛과 놀고, 청솔다람쥐와 놀고, 새들과 논다.

우리네 삶은 저 나무와 같이 공생을 하며 살다 삶을 마친다.

어떤 이들은 진정한 공생의 의미를 철학으로가 아닌 몸으로, 삶으로 부딪치며 산다. 또 드물게는 좁은 테두리 안에 자기만의 자아에서 못 벗어나고 사는 삶도 있다.

나는 언제부터 공생을 철학이 아닌 몸으로 부딪치며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잘난 것 같고 잘 되어야만 할 것 같고 남보다 우월하다는 그 생각을 오랫동안 버리지 못하고 ‘나 잘났다’고 살았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작은 자아가 넓혀지고 마음의 길이 확장되어 폭이 생기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을 존중하게 되고 마음으로 안게 된다.

공생에 대한 깨달음이 좀 더 일찍이었더라면 주변에 좀 더 여유로움과 포근함으로 좋은 영향력을 주었을 건데 하는 후회가 밀려온다.

돈이 없어서 학력이 없어서 잘나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은 나름의 기준으로 차별을 두었던 사람들이 다 같이 공생의 대상인 것이리라.



가난한 촌부의 투박한 말투에서도, 폐지를 줍고 가는 등 굶은 노인네의 뒷모습에서도, 차가운 새벽 길을 달려와 물건을 놓고 가는 배달부 아저씨의 습기 찬 마스크의 땀내에서도, 거만한 듯 뽐내고 지나가는 아줌마에게서도 삶의 애쓰고 노력이 다 귀하다귀하게 여겨진다.

부디 하루하루의 삶이 기쁘이고 보람이기를 바라본다.

나는 가끔 나무의 자잘자잘한 얘기를 상상한다. 그들은 하루하루 새 하늘과 창조주를 찬양하는 듯 느껴진다. 뿌리를 든든히 박고 있는 대지는 얼마나 따스하게 나무를 지탱해주고 지켜주고 있는가. 상상의 나래를 펴고 생각에 잠기다가 문득 ‘나무는 사람처럼 상처가 있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나무가 부럽다. 상처의 흔적이 없는 것 같아서……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크고 작은 상처로 신음하고, 그 상처에 많은 시간을 앓기면서 무의미하게도 파멸로도 이르는데, 나무는 창조주가 창조한 그 모습대로 창조주를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화려한 그러나 조용한 자작나무에서부터 이름 없고 쓸모없이 버려질 것 같은 잡목까지도. 꼭 필요한 만큼의 땅을 차지하고서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들을 싸매고 덮어가며 다독거리기도 하고, 세월의 흐름 속에 맡겨둔 채 아물어가는 상처를 보면서 성숙되어 가고 있으리라.

감기로 집에서 며칠을 쉬어야 하는 오늘은,

주어진 소중한 짧은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상처로 넘어지는 사람이 없기를 기원하며 집 뒷산에 잎사귀 다 떨어진 겨울나무를 풍경화처럼 멀찍이 바라보고 있다.

나무와의 공생, 이 세상 사람들과의 공생이 주는 편안함이 나를 감싸오는 것 같다.



이희순 동문(51회)은 김수열재활의학과의원 간호실장으로, 중등교사 명퇴 후 유치원 원장을 역임했다.



당신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임선영(34회)

2023년 5월 13일, 네 번째 수필집
〈지금 여기〉와 자전적 시집
〈바람결에 티끌〉 출판기념회를 노작가의 아지트에서 개최



이정환(이마리)(44회)

2023년 소설 〈한국전쟁과 소녀의 눈물〉
(행복한 나무) 출간, 전쟁의 상흔 속에 피어난
소녀의 사랑과 우정에서 이념을 뛰어넘은 숭고한
휴머니즘을 다룸
호주에서 한글학교 교사로 활동



장규선(47회)

(주)한옥연 대표
전북대 한옥과정 수료생들과 창업하여
한옥 신개축, 리모델링, 인테리어,
한옥 수출로 한옥문화 보급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



전미정(47회)

2023년 시집 '모란을 꺾어 든 여인' 출간
현대문학사조 2023년 겨울호 시조 등단



김인자(47회)

전) 전주풍남초 교장
2023년 10월18일~11월17일
'존재와 상생4'를 주제로 개인전 개최



안현심(47회)

열 번째 시집
〈그래서 정말 다행이에요〉 출간



조미애(47회)



표현문화회장
2023년 계간지 '表現'
봄, 여름, 가을, 겨울 출간



장인숙(49회)

한국예문화원(비영리 민간단체) 대표
2023년 5월 4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희망콘서트 개최, 장애인문화예술 공감콘서트
3회 순회 연주, 바이올린을 전공한 발달장애 아
들과 에바브라양상블을 만들어 2023년 전라북
도 문화관광재단 신년인사회 초청 연주를 비
롯, 병원과 소년원 등에서 20여 회 연주



이준자(49회)

성균관유도회 전북지부 교수
2023년 10월 스마트인문연구소,
최강독서토론논술원 사무실 개소



전정희(50회)

2024년 1월 전북여성가족재단
초대 원장에 취임
전북여성가족재단은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기능 복합기관임



최경희(51회)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2023년 4월 제8대 한국아동문학학회장에 취임,
2023년 5월 전주교육대학교 개교 100주년을 맞
아 공로패 수상



이미자(55회)



전) 신일중학교 교감
2023년 3월 오송중학교 교장 승진



홍성순(51회)



익산한별초 교사
2024년 2월 황조근정훈장 수상
지역 교육발전 기여 공로



윤영임(56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으로 승진



김복희(52회)



(전)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2023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수상



최희경(60회)



전) 완주교육지원청 장학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승진



송정옥(52회)



굿붐스콜라 대표
2023년 7월 25일~8월 6일



전주에프갤러리에서
'망백 819,712시간' 주제로
미디어아트 개인전 개최



정운경(65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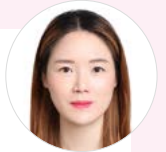
전) 정읍교육지원청 장학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장학관 승진



주재은(71회)



전) 감곡중학교 교사
정읍교육지원청 장학사 승진



최경은(53회)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2023년 7월 전주교육대학교 학생처장 부임



이인화(54회)



전) 전북동화중 교감
2023년 9월 1일 부안고 교장 승진



!! Fighting !!

08. 함께하였습니다



34회 3학년 8반 모임 60년전 추억 나눴다

붉은빛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들어 계절의 깊이를 더해 가는 가을날!! 2023년 10월23일~24일 1박2일 일정으로 전주.서울 연합 동창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23일, 첫날은 전주친구와 서울친구의 역사적인 상봉.~ 경복궁에서 만나 청와대 관람이었다. 비록 황혼으로 물든 우리의 모습이지만 청와대의 풍광을 마음껏 즐기며 삼삼오오 가슴속 깊이 묻어있던 여고시절의 흔적들을 끌어내며 하하호호 웃음소리와 함께 가슴 설레는 재잘거림~! 또 훗날의 추억을 위한 기념 촬영에 흠뻑 빠져들었다. 저녁은 와인을 곁들인 즐거운 만찬 후.~ 사랑과 재치가 듬뿍 담긴 선물을 주고받으며 즐기는 레크리에이션 시간. 격조 높은 유머에 웃음꽃을 피우며 우정을 다졌다. 나이가 들면 멀리 있는 자식보다 가까이 있는 동창생들과의 만남이 더 그립고 편할 수 있다는 말이 틀리진 않은 듯 싶다.

24일, 둘째 날은 인사동 이곳저곳 썸지길을 거닐다 쉽지 필요하다며 고즈넉한 전통 찻집으로~ 60년 전의 추억들을 공유하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는 속과 겉이 모두 아름답고 예쁜 영란의 꽃송이 나의 친구들!! 그동안 준비하느라 애쓴 서울회장 향례를 비롯해 모든 친구들 고맙고 사랑한다. 서울에서의 아름다운 여고시절의 시간 여행을 만끽하고 아쉬움을 남긴 채 친구들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늘 행복과 기쁨, 축복의 나날이 되소서~



47회 영란 47회 시간여행, 군산

2023년 4월 19일. 영란 47회 봄나들이를 군산에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야, 반갑다. 친구!” 를 외치던 전주팀에, 익산역에 도착한 서울 친구들이 합체되면서 영란 47회는 온전한 한몸이 되어, 백현일 멋진 청년 기사가 운전하는, ‘명품버스클럽’ 관광버스를 타고, 군산으로 go go.

아직 눈인사만 대충, 우리끼리 이야기도 넘 고픈데, 근대 역사박물관, 호남관세박물관, 군산미술관 등으로 우리를 이끌며 좌중을 들었다 놔다 맛깔스런 해설을 이어가는 문화해설사에게 잠시 빠져빠져~~ 들다가 ‘금강산도 식후경’은



철치, 여행에 먹방은 필수. 문향진의 맛있는 기정떡, 이남순표 ‘오이+당근’, 양복순, 이인순이 가방 한가득 채워 준 그 유명한 이성당빵집의 앙꼬빵, 야채빵에 주최 측이 마련한 푸짐한 간식 가방(유재이 회장의 말랑 비타민C가 2봉투나 있는)까지 있었지만 여행에선 먹을수록 이익이라고라? 밥 먹고 구경합시다!

근대문화 유산의 거리 동국사(해설이 쪼매 지루~ㄴ. 하지만 해설사의 열정이 넘쳐, 듣는 사람 역시 넘 진지해 못잘랐다는 전설~), 초원사진관, 군산항쟁관, 이성당빵집, 군산 야구부 이야기의 벽화, 신흥동 일본식 가옥, 작약 갈기도, 모란 갈기도 한 탐스런 꽃이 핀 담장 안도 기웃기웃. 조잘조잘 안단테 안단테로 어슬렁어슬렁 걸었답니다. 1930년대 역사 속으로 풍덩 들어갔다가, 50여 년 전, 여고시절, 그 어디쯤에 잠시 머물다가 그야말로 멈춘 듯 흐르고, 흐르다 다시 멈추고, 말 그대로 황홀한 시간여행이 었네요.

은파호수공원을 걷고 호수의 ‘뷰’가 끝내주는 카페 ‘르락’

에서 서울 조완희 회장이 커피를 짹짹 끓였지요! 우리들의 이야기는 이어지고 이어지고, 깊어지고 남은 시간이 너무 너무 짧아요. 행복한 시간은 왜케 그리 빨리 가는지요.

자칭 여행바람잡이 이영환의 여행 제안으로, 10월 마지막 날 즈음, 2박3일 '금오도 순천 가요' 투표를 실시되고, 15명이 오케이! 시칠리아에 몰타까지 가게 될지도 몰라요. 세상에나!!!

이미 우린, 금강 강가의 채만식문학관을 그냥 지나칠 수 없을 줄 눈치챘었지요. 주옥같은 언어를 뽑아 날마다 시를 엮는 전미정, 안현심 시인의 시집 <소녀를 다비하다>, 조미애 시인이 회장인 표현문학의 계간지 <표현>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비록 점 꼭 찍듯이 머물렀지만, 채만식의 삶과 <탁류>, <레디메이드 인생> 등 작품을 만나고 문학과 삶과 역사, 진정한 평가, 일제 강점기의 친일문학 등 등 생각이 많아진 시간이었습니다.

기어이 밤이 오고, 다시 밥을 먹으며, 우린 헤어질 결심 아니, 다시 만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익산 '더닭'에서의 깔끔한 집밥같은 수제 한우떡갈비, 곤드레 자연나물밥, 아보카도 명란 라이스에 차를 마시며 못다 한 이야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작별을 아쉬워하고 또 만남을 약속하며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빌며 손 잡고, 포옹하고, 손 흔들며...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50여 년을 훌쩍 뛰어넘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스마트폰의 '카톡' 소리에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친구들, 행복한 나들이에 주인공으로 함께 한 친구들. 이리저리한 사정으로 맘만 함께한 친구들 정말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

48회 입학 50주년을 맞이한 48회 동문들

마음은 청춘으로 살기로 다짐하다

전주여고 48회(회장 박은숙)는 이제 60대 후반 할머니들인데도 지난 3월 21일 고궁담에서 입학 50주년을 맞아 임원 정기회의를 갖고 젊고 청춘이었던 1974년 3월 2일 여고 입학날을 50년 만에 회상하며 함박꽃 같은 웃음꽃을 피우며 앞으로 『나일로 살지 말고 생각으로 살자』고 다짐했다.

참석한 친구들끼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여고 시절 이었고 그 중에서도 여고 첫날 입학식이지 않았나라고 말하며 나이보다 생각으로 세상을 들여다보고 정신적 신체적 나이를 청춘으로 고정해서 살기로 했다. 48회 동문은 주로 58년생 개띠들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영향력 있는 활동을 해오면서 주변에서 칭송이 자자했다. 이제 60대 후반으로 아름답게 평생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고 도움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삶의 가치를 담고 있는 소중한 마음을 간직한 동문들이다.

이날 주로 ①건강한 몸과 마음을 최우선으로 하기 ②열정으로 시간을 즐기기 ③과거의 명예에 연연하지 않기 ④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도록 고민하기 ⑤삶의 보람을 계속 키워 나가기 ⑥나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기 ⑦마음 그릇이 넓고 여유로운 사람이 되기 등을 대화하였다.

48회 임원 54명은 연 4회 분기별로 모임을 갖고 소통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 입학 50주년을 맞이한 48회 임원 정기회의(2024.03.21.)





|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48회



| 모악산 신년 산행

건강 & 힐링 걷기 프로젝트

점심, 간식, 카페에서 수다를 이어가다

전주여고 48회는 매월 걷기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건강과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 2021년 3월 시작한 걷기 프로젝트는 2024년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부담없이 걷기 편한 가까운 곳을 선정하여 한달에 한번씩 걸으면서 꽃과 나무도 보고, 콧바람도 넣고, 자연 속에서 호흡하며 삶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졸업 후 처음 만나는 친구도 전주여고 48회라는 명제 아래 금방 친밀해져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다. 걸으며 건강을 챙길 수 있음은 물론이다.

맛있는 점심과 직접 가져온 간식(궁금할까봐 알려드려요~ 직접 농사 지은 옥수수, 직접 담근 김치, 수수떡, 48회 남편이 예쁘게 깎아 준비해 준 과일, 치즈, 땅콩, 음료수 등), 멋진 카페에서의 수다도 큰 활력소이다.



49회 3학년 8반이 5월이면 만나야 하는 이유 -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고, 태산 같고, 바다 같아서 “아~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라고 불렀던 스승의 노래를 떠올리며 어떻게 보답할 수 없어 스승의 날에 선생님과 같이 식사하며 얼굴을 맞이하기 시작한 3/8반이 졸업한 지 어언 45년!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원숙하게 익어가지만 마음의 시계는 고장 난 장난감처럼 1978시 02분에 멈춰 서 있다. 그래서 스승의 날에 만나면 시끌벅적 떠들어대던 그때 그 시간 그 교실이 무색하다~ 그동안 장세원 선생님은 붓글씨를 쓰셔서 표구까지 해놓으시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선생님은 아마도 붓글씨를 못 쓰실 때까지 그렇게 준비하시고 기다리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처음엔 전북에 사는 친구들만 모였는데 2019년엔 재경 친구들까지 다 모여서 그야말로 3/8반 교실이 떠나려갈 정도로 반창회를 하고 선생님은 45년 전 우리가 교실을 떠나기 전에 노트한 권을 돌리며 남긴 글을 지금까지 보관하고 계시다가 가져



오셔서 보여주셨다.

우와~~정말 대단하신 장세원 선생님!!

졸업할 때 붓글씨로 ‘존경받는 여성’이라고 쓰셔서 일일이 주셨던 그 선생님~

그런 선생님을 어찌 우리가 잊을 수 있으리오~!

그러니 우린 지금까지도 선생님의 사랑을 받아먹으며 살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증용에서 말하는 학습 5항목 중 博學慎思(널리 배우고 신중히 생각하라)와 노자의 知足常樂(만족할 줄 알아야 늘 즐겁다) 등등 선생님은 계속하여 쓰고 계시며 우릴 만나면 다시 수업을 시작하신다. 세제사가 아닌 인생사를~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 선생님을 안 보고 싶어도 안 만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하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주십시오

- 전주여고49회 3/8반 올림.

50회 선생님!!! 항상 건강하길 바라며~~

50회. 고등학교 졸업한 지 46년.

고교 재학 당시의 선생님들 대부분 작고하셨는데, 3-5반 우리는 담임이셨던 김정권 선생님을 지금도 볼 수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행운아인가. 우리는 10년이 넘게 매년 5월 스승의 날에 선생님과 함께 만나서 '하하 호호'를 하며 40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 보곤 합니다.

우리가 환갑이 되었을 때는 기념으로 선생님이 맛난 밥도 사 주시는 즐거움도 있었지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을 먹었다는 우리들.

올해도 또 만나서 선생님과 함께 '하하 호호'를 해보겠습니다.

40여 년 전 진학지도 잘 하셨던 김정권 선생님.

돌이켜 보면 3학년 담임이셨던 김정권 선생님은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셨다.

선생님은 문과 공부하던 나에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수학과'를 가라 하셨다. 대학 입학원서 쓰고 한 달 동안 '수2'를 섭렵하고 수학과를 나와서 수학회원을 운영하며 '내가 감사해할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보니 인생의 방향잡이가 되어주신 김정권 선생님이었다.

항상 마음에 둔 선생님이지만 이런저런 상황으로 미뤄둔 '선생님 찾기'는 결국 교직을 마감하시는 자리인, 전주술



내고 교장선생님 정년퇴임식장에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전주여고 50회를 대표하여 선생님께 꽃다발을 드릴 수 있었다.

또 매년 총동창회 주관의 신년하례회 때면 2부 행사를 진행하면서 우리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임덕희 친구는 이 모임에 동참한 이유 중 하나로 '여학교에도 제자가 있다'는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임을 꼽았다. 고교 때 담임선생님이 '여학교에 재직하면 제자가 없다'는 얘기를 가끔 하셨는데 이 이야기가 잊히지 않았단다.

선생님의 지도 하에 각자에게 맞는 길들을 잘 찾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서로 어우러져 매년 스승의 날에 시간을 조율하고 마음을 내어 담임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이제는 우리 담임 쌤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외출을 자제하신다고 하네요.

선생님! 힘내시고, 기운 내셔서 이번 스승의 날에도 친구들과 같이 맛난 식사하시게요!

글쓴 이 조혜경 동문(50회)은 1989년부터 현재까지 전주에서 승원수학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 유일한 남성이 김정권 선생님
왼쪽에서 세 번째가 글쓴 이 조혜경(50회)



52회 안녕~ 영란 52회 친구들과의 동행

불었던 단풍잎도 바람에 나부끼며 초겨울로 접어드는 2023년 11월 11일 오후 5시, '안녕~ 영란 52회 친구들과의 동행' 여고시절의 즐거웠던 추억을 소환하며 '친구야~~ 반가워 잘살고 있구나' 외치며 27명의 친구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송행숙 친구의 치매 정도를 알아보는 가벼운 몸풀기 게임을 비롯하여 원 안에 들어간 신발 개수가 많은 팀에 주어지는 선물을 획득하고자 고군분투하며 벌어지는 모습에 모두들 배꼽을 붙잡고 한바탕 신나게 웃었다. 또한, 오랜 기간 미국에서 남편과 목회활동을 하다가 잠시 귀국한 백발(?)의 백선희 친구가 참석해 모임이 더욱 빛났다. 인생의 가장 젊은 날, 가장 젊은 모습이여 영원하라!



53회 환!갑!여!행!



2023년 10월, 환갑을 맞이하여 60여명의 친구들과 안면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수채화같은 서해바다를 바라보며 모두가 아이스크림 하나씩 들고 바라봅니다.

평온하기 그지없습니다.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가슴마저 물들입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마주할 수 있어, 환갑의 나이가 되어 주름살 많은 얼굴로 멋진 친구들이 있기에 마음껏 웃을 수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전주와 재경회장 이름을 따서 3행시를 보내왔습니다.

- 고 고생해가면서
- 정 정말 열심히 준비해 준 임원들 덕분에
- 순 순수했던 여고생으로 돌아가
- 정 정말로 배꼽빠지게
- 미 미친 듯이 웃어보았던
- 영 영란의 꽃들!!

전주와 재경의 임원 친구들 덕에 감사한 추억여행이었음을~



영란리더스포럼 2기 열정과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

영란 리더스포럼 2기(회장 유정화, 52회) 활동이 2년째로 접어든 2023년도에는 회원 간의 친목을 다지고 유대감을 돈독히 다짐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널리 끼치는 한 해였다. 회원 친목 나들이와 송년모임을 통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함은 물론 끈끈하게 정을 나누고, 후배 재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지급과 선후배 만남의 날을 통해 꿈을 키우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영란리더스포럼 2기 회원들은 5월 25일 개교기념일을 맞이하여 리더십이 탁월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모교 재학생 4명에게 꿈을

갖고 도전하라는 격려의 뜻을 담아 각 50만 원씩 2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또한, 2023년 6월 6일에는 30여 명의 회원들이 함께하여 선장님의 유쾌한 해설을 들으며 유람선을 타고 고군산도 일대를 둘러보았다. 좁 이른 시각이라 유람선을 우리 회원들이 전세 낸 것처럼 이야기꽃을 피우며 사진도 찍고 아름다운 섬과 바다를 구경하였다. 평소에는 드라 이브 겸 구경차 잠깐 들렀다 가곤 했던 선유도 일대를 이번 여행을 통해 섬들과 바다, 그곳에 깃들여 있는 전설 및 역사를 익히는 시간이기도 했다. 하루 동안의 짧은 여행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점심식사 이후 대장봉 산행을 통해 각자 체력을 테스트하는 계기도 되었고 정상에서는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단체 사진과 기수별 사진을 찍기도 했다.

7월 18일에는 전주 그랜드힐스턴 데이저홀에서 [선후배 만남의 날]을 개최하였다. 내빈으로 차연수 13대 총동창

회장(49회)을 비롯하여 역대 회장 및 임원 그리고 회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관계자와 학생 42명을 초청하여 저녁을 대접하고 후배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며 후배들이 무한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자긍심을 심어주었다. 2학년 학생 중에는 “작년에 호텔 뷔페식당에서 선배님들과의 만남이 너무나 좋아서 올해에도 다시 참석하고 싶어 학생회 임원에 도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송년 모임으로 전주 시내 음식점에서 회원 30여 명이 참석하여 선후배 간의 정을 오붓하게 나누는 시간이었다. 1부 행사를 마치고 2부에는 이미지(55회) 회원이 준비해온 신발 던지기 등 각종 게임을 하며 마음껏 웃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기도 했다. 특히 소인영(64회) 회원의 지도에 따라 땀을 흠뻑 흘리며 함께한 ‘만들어 봐요 라인! 댄스’ 시간은 흡사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춤을 추었던 영란제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많은 회원들이 이모저모로 후원 물품을 기증하여 꾸민 상품과 더불어 훈훈한 선후배 간의 정을 새삼 실감하는 날이었다.

사회에서 지도자급으로 활동 중인 영란 선후배님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며 2024년에도 영란리더스포럼 2기는 서로 유대감을 다지며 후배들과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영란골프동호회

굿 샷! 굿 럭!!

영란골프동호회

전주여고 동문으로 구성된 골프동호회로 2003년 골프를 좋아하는 동문들이 모여 동호회를 발족하였고, 이제는 골프를 즐기는 영란인이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명실상부한 동호회로 성장하였다.

지난해 5월에는 1박 2일로 전남 여수 디오션CC를 찾아 화창한 날씨에 잊지 못할 추억을 공유하였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올해에는 형순례 동문(42회)의 배려로 매월 둘째 주 목요일 태인CC에서 파란 잔디를 벗삼아 선후배들의 체력증진과 친목도모를 할 예정이며, 5월에는 1박 2일로 명문골프클럽을 찾아 여행과 운동을 통하여 선후배 간의 끈끈한 우의를 다지려고 한다.

2023년부터 박정순 회장(47회), 김태운 부회장(49회) 등 새로운 임원진으로 출범하여 활동하고 있다. 올해도 많은 신입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왕성한 활동이 기대되며, 관심 있는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기대해 본다.



영란회

제14회 영란전

예술로 승화된 감성의 삶

생활에서 느끼는 감성을 예술로 승화시켜 삶의 한 부분으로 함께 하는 전주여고 동문 미술인들이 ‘영란회’라는 이름으로 꾸준히 전시회를 열고 있다. 친목과 소통, 사회적 정서에 이바지하고자 시작한 지 어느덧 14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회원은 약 40여 명에 이른다. 김분임 회장(45회)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자신들의 역량을 펼치며 감성을 교류하는 영란회원들의 예술에 대한 열정을 존중하며 꾸준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한다. 유화, 수채화, 아크릴화, 파스텔화, 한국화, 공예, 조소, 크로키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는 제 14회 영란전이 감성을 함께 나누는 공동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참여와 관심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전시장소: 전주 우진문화공간

전시기간: 2024. 5. 23(목) - 5. 29(수)

오픈팅: 2024. 5. 23(목) 5:30 pm

문의: 010-9886-2549



영란동문합창단 사랑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영란동문합창단(단장/이 경, 지휘/장인숙)은 모교의 총동창회 신년인사회, 개교기념행사 등 동창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23년 10월 25일은 전북대학교 치과대학병원 로비에서 환자와 직원을 위한 재능기부 연주에 참여하였다. 또한 2023년 10월 28일에는 완주의 이산모자원을 방문하여 가정의 어려움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원생들과 함께했다. 합창단은 '사랑하는 마음을 드립니다'를 노래하며 장미꽃 한 송이씩을 거주자들에게 드렸고, 장미꽃 선물을 처음 받아본다는 어머니의 눈물과 그녀의 감사의 말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2024년에도 세 번의 봉사 연주를 기획하고 있으며, 많은 동문들이 하루빨리 합창단에 복귀하여 정기연주회를 갖게 되기를 소망한다.



2023 총동창회 소식

2023 전주여고 총동창회 개교 97주년
기념식·정기총회 개최, 장학금 전달

날짜 _ 2023년 5월 25일

장소 _ 전주여고 강당



전주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회장 차연수)는 2023년 5월25일 전주여고 강당에서 개교 97

주년 기념식 및 총동창회 정기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날 전주여고 강당에서 열린 개교기념식은 서울 재경동문 170명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의 동문 및 재학생 500여 명이 참석했다.

전주여고동창영란장학회, 재경동창회, 전북영란교수회, 영란리더스포럼 등 동문들의 뜻을 모은 장학금 총 2,380만 원을 3학년 정다영 학생을 비롯해 48명의 재학생에게 수여하였다. 43회 정길자 동문(☎도타이 대표)이 장학금 1억원, 44회 동창들이 발전기금 500만원, 재경동창회에서 발전기금 300만 원을 모교에 기탁했고, 53회 동문 5명은 교정에 심을 오색버드나무 5그루를 기증하기도 했다. 차연수 총동창회장은 “그간 명실공히 여성교육의 선두주자로 사회의 귀감이 돼주신 선배님들의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 영광이다”면서 “현 제 13대 총동창회의 남은 1년도 이 시대에 귀감이 되는 ‘아름다운 어른’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숙 전주여고 교장은 “동문들의 후원에 큰 고마움을 전하고, 영란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미래인재 육성의 요람으로 지속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 동문들은 2026년의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모교발전을 위한 기금마련과 100주년의 비전 설정에 뜻을 모았다.

13대 총동창회 3차년도
제 1차 임원회의 개최

날짜 _ 2023년 8월 22일

장소 _ 백리향

2023년 8월 22일 18시30분부터 20시30분까지 백리향에서 임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3차년도 1차 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3차년도 활동계획 및 비전을 차연수 회장이 보고하고 3차년도 운영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2024 ‘영란Z’ 발행을 위한 기획안 공유, 가을소풍 답사 보고가 이어졌고, 2023년 가을소풍 장소는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결정하였다. 깜짝 특강으로 ‘슬기로운 반려생활’을 주제로 전북대 수의대 김남수 교수의 특강도 이어졌다.

13대 전주여고총동창회
3차년도 기대표 회의 개최

날짜 _ 2023년 9월 12일

장소 _ 전주여고 2층 회의실

2023년 9월 12일 17시 모교 2층 회의실에서 고문, 장학재단 이사, 기대표, 13대 총동창회 임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3차년도 기대표 회의가 있었다. 회의 안건으로 13대 총동창회 3차년도 활동계획 및 비전 보고, 총동창회보 영란Z 2024년 5월호 준비 사항 발표, 2023 총동창회 가을소풍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총동창회 가을소풍은 2023년 10월 17일 국제정원박람회장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계획하고 회비는 5만 원으로 정하였다. 차연수 회장은 행사 주요일정을 안내하며 기대표들에게 각 기수별 카톡방에 소풍행사를 알리고 참가 홍보를 당부하였다.



전주여고총동창회 가을여행

날짜 _ 2023년 10월 17일

장소 _ 순천만국가정원 국제정원박람회장 일원



전주여고 총동창회는 2023년 10월 17일에 순천만국가정원 국제정원박람회장 일원에서 가을여행 행사를 개최하였다. 오전 8시에 종합경기장에서 집결한

영란동문들은 대형버스 6대에 나누어 타고 설레는 마음으로 순천만을 향했다. 29회 선배님들부터 55회까지 총 202명의 동문들이 푸른하늘 아래 펼쳐진 국가정원의 예쁜 꽃들과 함께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였다. 순천의 명품 꼬막정식으로 맛난 점심을 함께 하고 국가정원에 도착한 시간은 가을 하늘이 가장 높은 낮 12시. 지구동문 입장 후 파란 하늘색을 배경으로 전체 기념사진 촬영을 마친 뒤 관람기차에 탑승하여 국가정원을 한바퀴 둘러보고 국가정원을 산책하며 즐겁게 자유시간을 가졌다. 예쁜 꽃들을 배경으로 기수별 사진전에 출품할 사진들을 찍으며 더욱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오후 3시 순천을 출발한 버스 안에서 즐겁게 노래와 함께 재미난 얘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옛 추억에 빠져들었다. 돌아오는 길에 소양에 들러 화심순두부 저녁을 먹으며 아름다운 가을 소풍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기약하였다.



2024학년도 수능 만점기원 선물 전달

날짜 _ 2023년 11월 3일

장소 _ 전주여고

총동창회에서는 2024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있는 전주여고에 방문하여 정성스럽게 포장한 수능만점 기원 선물을 전달하고 후배들의 수능 만점을 응원하였다.



13대 총동창회 3차년도 임원 송년의 밤 개최

날짜 _ 2023년 11월 28일

장소 _ 은채식탁

13대 총동창회는 2023년 11월 28일 오후 6시 가희당은 채식탁에서 임원 송년의 밤을 개최하였다. 각자가 준비한 크리스마스 소품들로 크리스마스 분위기 속에 더욱 화기애애하게 진행된 송년의 밤에서 13대 임원진들은 한 해 동안 총동창회를 위해 헌신한 모든 임원들과 함께 진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024 전주여고 총동창회 신년인사회 및 이사회 개최

날짜 _ 2024년 1월 9일

장소 _ 전주라한호텔 온고을홀



2024 전주여고 총동창회 신년인사회 및 이사회가 2024년 1월 9일 화요일

에 전주라한호텔 1층 온고을홀에서 내빈과 동문 2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전주여고 이영숙 교장, 양정은 재경동창회장이 참석하였으며,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김인태 전주시 부시장이 참석하여 덕담을 나누며 전주여고와 총동창회 발전을 기원하였다.

권태신 동문(56회)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영란인들의 아름다운 순간들' 영상을 보며 지난 1년간 동창회의 다양한 활동을 회고하였다. 차연수 회장은 신년인사에서 "새해에는 영란 동문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항상 주변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꽃피우는 어른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영숙 모교 교장은 인사말에서 총 사업비 89억 원을 들여 체육관 및 식생활관이 100주년에 맞춰 신축되는 기쁜 소식을 전하여 동문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전주여고 졸업식에서 장학금 전달

날짜 _ 2024년 2월 2일

장소 _ 전주여고 강당

총동창회에서는 영란장학회 장학기금

과 매년 동문들의 이사회비를 모아 모교 후배들의 성장을 돕는 장학금을 후원해오고 있다. 차연수 총동창회장은

모교 졸업식에 참석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진학한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하였다.



전주여고 입학 및 개학 격려

날짜 _ 2024년 3월 4일

장소 _ 전주여고 강당

전주여고(교장 이영숙) 모교 강당에서 개최된 2024년 입학식에서 차연수 총동창회장이 참석하여 신입생과 재학

생들의 새출발을 응원하는 격려 인사를 전하였다.



우수 신입생에 장학금 전달

날짜 _ 2024년 4월 8일

장소 _ 전주여고 교장실

차연수회장은 전여고 우수 신입생 12명에게 1,300만 원의 장학금 및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13대 총동창회 3차년도 제2차 임원회의

날짜 _ 2024년 4월 16일

장소 _ 백리향

13대 총동창회 3차년도 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한 제2차 임원회의는 차연수 회장 등 임원 26명이 참석하여 백리향에서 개최되었다. 주요 안건으로 개교 98주년 기념식 및 정기총회 개최 계획과 세부 준비사항을 검토하였다. 98주년 행사 참가비는 4만원으로 결정하고 기수별로 인원 파악 및 사전납부 안내를 하기로 하였다. 차연수 회장은 13대 총동창회 3차년도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지난 3년간 총동창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준 임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아울러, 14대 총동창회를 맡게 될 임원 소개 및 인사가 있었다.

14대 총동창회를 이끌어갈 임원으로 총동창회장 유정화 동문(52회), 수석부회장 최경은 동문(53회)이 추천되었고 감사

에는 박전숙 동문(48회)과 하상자 동문(49회)을 선임하기로 하였다. 기타 협의사항으로 송정옥 동문이 2024년 영란Z 가제본 검토사항을 보고하였다. 깜짝특강으로 온

누리안과병원 정영택 원장의 '노인과 노화'를 주제로 한 강의가 있었고, 노화로 인한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이해하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13대 총동창회 3차년도 제2차 기대표회의

날짜 _ 2024년 4월 30일

장소 _ 백리향

13대 총동창회 3차년도 제 2차 기대표 회의가 총동창회 고문, 영란장학회, 기대표 및 임원진 등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리향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회의 안건으로는 개교 98주년 기념식 및 정기총회 계획(안) 승인, 전주여고총동창회 및 장학재단 결산보고와 감사보고, 14대 임원 선출, 13대

총동창회 3차년도 운영 계획 보고 등이 있었다. 보고사항으로는 지난 1월9일에 개최된 2024 신년인사회 및 이사회 행사 결과 보고가 있었다. 3년간 총동창회장으로 모교발전에 헌신한 차연수 회장의 인사말과 함께 14대 총동창회장을 맡게 될 유정화 수석부회장 인사말이 이어졌고 모든 영란동문들의 염원을 담아 100주년 준비에 함께 뜻을 모으기로 하였다. 2024 영란Z 발간 보고 및 기대표들의 의견 수렴이 진행되었는데 영란Z 표지 그림이 펼쳐지는 순간 참가자들 모두에게 진한 감동이 전해졌다. 98주년 기념식은 5월25일(토) 모교 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4 전주여고 총동창회 이주여성센터 기부금 전달

날짜 _ 2024년 1월 9일

전주여고 총동창회에서는 지역사회를 위한 아름다운 기부를 연 3년째 이어오고 있다.

차연수 총동창회장은 이주민푸른민권센터(대표 김은경)에 10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하였다. 사단법인 이주민푸른민권센터는 이주여성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며 부설기관으로 이주여성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주여성쉼터에 기부금을 전달하기까지

기부처를 찾아

따뜻한 봉사,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여정 _____ 총동창회 13대 봉사부 임원 일동

13대 총동 봉사부는 그동안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영란의 싹을 틔우기 위한 행보를 같이 해왔습니다. 3년의 이 여정은 의미 있고 영광스러웠습니다.

2024년 신년인사회에서 전달할 1천만 원의 기부처를 찾는 과정도 잔잔한 올림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잘 쓰일 곳에 기금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만나고 또 만났습니다. 부원들이 추천한 곳들에 대한 1차 정보를 중심으로 세밀한 점검을 마친 다음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최종 후보지로 영유아 보육원과 이주여성을 위한 푸른여성쉼터 두 곳으로 좁혔습니다. 투명한 기부를 위해 운영자들을 만났습니다.

날씨가 몹시 추운 겨울날, 거센 바람 속에서도 우리는 이 두 곳을 찾아가서 이주여성들의 실제 처한 상황을 설명 듣고 지원기관의 어려움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전북이 2024년 특별자치도로 출범 후 전북형 외국인·이민정책의 특화로 이주노동자 증가와 함께 이주여성들의 문제가 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사단법인 이주민푸른민권센터에서 운영하는 이주여성 쉼터는 법률적으로도 소외된 무국적 여성과 그들의 자녀에게 안전한 공간이었습니다. 비영리법인인 이주민푸른민권센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지원과 법률·의료 지원, 정서회복 프로그램 운영, 자립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 대표인 김은경 목사는 민주화 유공자이면서 인권운동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주민푸른민권센터를 13대 총동의 마지막 기부처로 정했습니다.

이런 과정과 기쁜 소식을 전달하고 신년하례회 참석을 요청하러 김은경 대표님을 다시 찾아뵈었습니다. 대표님의 헌신과 열정에 감사함과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더불어 지금까지의 여정에서 따뜻함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어 우리는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글_ 최명희(57회)
전북대 RIS 산학협력교수

최명희(57회), 박효규(50회), 김은경 대표, 유재수(53회), 유 경(56회)



김은경 이주민푸른민권센터장(익산중앙교회 목사, 전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이 지난 1월 전주라온 호텔에서 개최된 전주여고총동창회 신년인사회 및 이사회 식당에서 1천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받고, 3월에 차연수 총동창회장에게 감사의 글을 보내왔다.
(100쪽에 계속 →)



김은경 이주민푸른민권센터장이 보내온 글

“여기에는 **생명을 발산하는** 어른들이 있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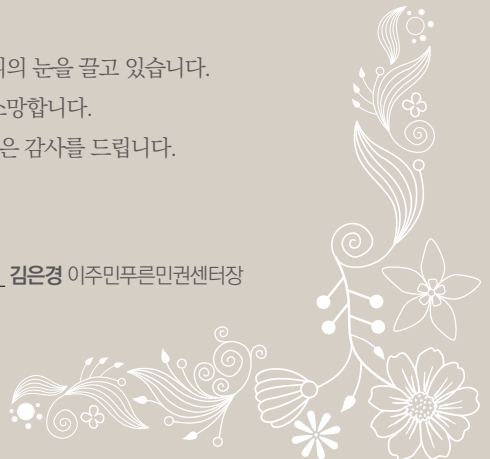
한겨울의 추위가 깔렸던 지난 겨울,
세상은 혼돈과 어둠, 전쟁의 소식, 기후위기, 사회정치적 혼란에 휩싸여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모이는 곳마다 어른의 모습을 찾아보지만, 그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பு념했습니다. 바라볼 만한 곳이 없었고, 의지할 만한 언덕도 없어서 우리는 허공에 눈을 두고 허우적거리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곁에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어른이 사라진 세상을 향한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로 허둥지둥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주민푸른인권센터에는 이주여성들의 상담이 들어오고, 이주여성 쉼터에는 입소자들과 퇴소한 여성들과 아이들의 삶에 뜻밖의 개입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연과 지원 속에서도, 우리는 어린이들과 홀로 살아가는 젊고 어린 여성들의 무거운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따뜻한 생명의 기운을 전달해 주신 '전주여고총동창회 신년하례회'에 초대해 주셨던 그 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날 밤, 유쾌하고 따뜻한 기운과 함께, 생명과 평화, 평등의 온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전주여고총동창회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들에게 눈길을 돌리고, 사랑의 품을 안겨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과 인권을 회복하며, 이주민들과 함께 사람이 살만한 사회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신년을 열어가는 새로운 날을 여는 이 자리에서, “여기 어른이 있었네”라는 독백을 하며 마무리합니다.

전주천변에는 수양버드의 나무 가지에 연두빛 봄편지가 우리의 눈을 끌고 있습니다.
전주여고총동창회 가족들의 모든 삶이 평화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차연수 회장님을 비롯한 영관인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_____ 김은경 이주민푸른민권센터장



2023 재경총동창회 활동

온라인으로 만난 영란인 교양강좌 운영



재경총동 동문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강좌가 4월과 7월 두 차례 동문들의 열띤 참여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마음 챙김이 주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심리학교실(50회 박경순)은 4월 27일 70여 명의 동문이 참여하여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는 방법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역사에서 여성 정신분석가의 업적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7월 18일에는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사례’를 주제로 온라인 세무교실(48회 김보남)에 150여 명의 동문이 줌으로 접속하여 강의를 들었다. 22년에 이어 계속되는 온라인 강의에 선배님들이 익숙하게 참여하여 더욱 빛이 났으며 현장의 실제 세금 관련 사례를 꼼꼼하게 짚어주는 귀한 시간이었다.

제5회 재경영란전 개최

제5회 재경영란전이 5월 31부터 6월 6일까지 인사동 ‘갤러리인사1010’ 제3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재경동문 33회에서 56회까지 33명의 작가들이 작품을 출품하였고 전시회 개막식은 31일 오후 3시에 90여 명의 재경총동 고문, 임원, 작가, 동문 등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전시기간에는 동문은 물론이고 일반인 관람도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유화, 수채화, 수예, 공예품, 모바일그림, 서예, 사진, 의상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두근두근>, <멈춤>, <다시 걷기> 세 주제로 나누어 전시되었다.



후배사랑을 실천하는 주니어위원회 활동

재경총동 주니어위원회에서는 매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서울생활 안내, 진로탐색, 실력 쌓기 등 대학생활을 잘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3년에도 수도권으로 진학한 신입생 23명을 대상으로 선배 동문의 전공과 진로를 고려하여 멘토를 자원 받아 1:1 멘토링 사업을 실시하였다. 여고동문으로만 구성된 멘토링 사업은 멘티들에게는 영란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다른 친구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멘토로 참여하는 선배 동문들에게도 또 다른 장학 사업으로 행복감을 주고 있다.

개교 97주년 기념 모교 방문

5월 25일 모교 개교 97주년 행사에 167명의 재경동문이 참여하였다. 이른 아침 7시에 6대의 버스로 출발하여 기념식과 총회에 참석하여 모교발전기금(300만 원)과 재경동창회장학금(300만 원)을 전달하였다. 돌아오는 길에는 대전 한밭수목원을 탐방하였다. 재경동문들은 모교 방문을 총회 참석에도 의미가 있지만, 여고시절을 다시 기억할 수 있고 전주 친구들을 만난다는 설렘이 있는 추억여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중산책이라 더 좋았던 가을여행

9월 20일 347명의 대단위 동문들이 13대의 버스에 탑승하여 춘천 김유정문학촌과 남이섬으로 가을여행을 다녀왔다.



하루 종일 내리는 비에 알록달록 우산과 함께 했지만 비 내리는 가을 따락을 바라보는 것이 행복하다는 영란인들의 즐거운 에너지가 동문들의 마음속을 비처럼 흘러내렸다. 순박한 소년 소녀가 등장하는 김유정 작품 무대인 실레마을을 둘러보고, 춘천 대표 먹거리 닭갈비와 막국수를 먹은 후 연인들의 섬인 남이섬에 도착했다. 비오는 날 하염없이 걸어보고 싶었다던 이들은 오솔길을 걷고, 쉬고픈 영란인은 작은 카페에 모여들고 남이섬이 온통 아리따운 영란꽃들로 가득 찬 하루였다. 에코스테이지에 모여 퀴즈를 풀고 무대에서의 흥겨운 노래에 맞추어 춤도 추었다.

즐겁고 다정한 2023년 총회 및 송년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가 12월 5일 그랜드힐컨벤션에서 개최되었다. 29회부터 58회까지 22개 기수 총 331명이 참석하였다. 1부 정기총회에서는 ‘즐겁게 일하자’는 모토 아래 2년동안 수고했던 14대 나선미 회장(50회)에 이어 ‘상화하목(上和下睦)’으로 화목한 동창회를 위해 일하겠다는 15대 양정은 회장의 이·취임식이 있었다. 오찬이 이어지고 3부에는 기수별 장기자랑과 행운권 추첨이 있었다. 많은 동문들이 후원금과 물품을 지원하여 풍성한 송년회가 되었다.





2023년 전주여고 소식

학생자치회 은방울꽃 심기 활동

날짜 _ 2023년 6월 7일

학생자치회에서 교화인 은방울꽃을 학생들이 등교하면서 자주 볼 수 있도록 등굣길 옆 잔디밭에 심었다. 학생들이 은방울꽃을 보며 은방울꽃말처럼 하루하루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동아리 및 스포츠클럽 성과

날짜 _ 2023년 6월 7일

전주여고 '지리구요' 동아리가 우수한 국토교육 활동으로 최우수상에 해당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또, 제105회 전국 동계체전에서 본교 컬링부가 동메달을 획득하며 학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제98기 학생회장 선거

날짜 _ 2023년 6월 7일

제98기 학생회를 이끌어갈 학생회장단 선거가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특히, 1학년 부회장에 많은 학생들이 출마하여 멋진 선의의 경쟁을 보여주었다. 전주여고의 전통을 이어가며, 또 다른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나갈 제98기 학생회의 활동을 기대한다.



다락 장터 행사

날짜 _ 2023년 10월 17일

전주여고 다락 장터가 학부모회와 학생자치회 주관으로 열렸다. '다같이 즐기자'라는 의미를 담은 다락 장터에서는 학부모회의 먹거리 부스와 학생자치회의 아나바다 행사가 진행되었다.



수능 응원 커피차 행사

날짜 _ 2023년 10월 18일

수능을 앞둔 3학년 선배들에게 후배들이 깜짝 커피차 응원 선물을 보냈다. 후배들의 사랑이 담긴 커피차 음료 나눔 행사에 참여하는 3학년 학생들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가득한 훈훈한 현장이었다.



제95회 졸업장 수여식

날짜 _ 2024년 2월 2일

졸업생 207명(총졸업생 32,669명)에 대한 제95회 졸업장 수여식이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졸업생들이 자신의 색을 찾아 언제 어디서나 영롱하게 빛나길 바란다.

제98회 신입생 입학식

날짜 _ 2024년 3월 4일

제98회 신입생 255명에 대한 입학식이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전주여고에서 새롭게 꽃을 피울 신입생들의 입학을 환영하는 따뜻한 박수가 가득한 시간이었다.

재단법인 전주여고동창영란장학회 연혁

전주여고동창영란장학회 설립 배경과 경위

영란장학회는 1987년 5월 당시 전주여고에 재직 중이던 조숙희 교장이 1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쾌척하시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1989년 동창회(당시 회장 김옥생) 주관으로 ‘동문음악회’를 개최하면서 모금이 시작되었고, 1991년에는 음악과 이호철 선생님과 무용과 백수덕 선생님의 지도하에 ‘동문예술제’로 함으로써 그 모금총액은 약 3,000만 원에 달하게 되었다.

1992년 재직동문과 총동창회 임원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발의가 있었고, 장학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1억 원의 기금이 더 필요한 상태여서 1993년 9월 기대표 회의를 통하여 각 기별 300만 원 이상씩 모금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국의 많은 동문들이 모금활동에 동참하였다. 김옥생 회장이 92년 8월 작고하시고 뒤를 이은 제4대 총동창회 김기복(21회) 회장이 5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하였다.

그 외 전주여고 교직원 및 비동문들의 찬조금과 미주지역 거주자 동문들도 일조하여 1994년 5월에는 그 모금액이 1억 3,536만 원에 달하였다. 1994년 5월 17일 김기복 동창회장과 총무 임계강 동문이 전주시 교육청에 ‘영란 장학재단 법인 허가신청서’를 접수하고, 7월 15일 전라북도 교육위원회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재단법인 전주여고동창영란장학회’를 설립하였다.

전주여고동창영란장학회 사업 내용	장학금 모금
1. 신입생 및 재학생 장학금 지급	1. 졸업동문의 찬조금
2. 졸업생의 대학입학 장학금 지급	2. 본 목적사업에 찬동하는 기관 및 독지가의 찬조금
3. 특별활동 지원(체육, 예능, 학습지도)	
4. 모교의 명예를 빛낸 동문 및 교직원의 포상	

장학금 운영 상황

그동안 동문들이 장학금을 수시로 기탁하고 있으며, 2006년 개교 80주년을 맞이하여 전 동문을 대상으로 장학금 모금활동을 펼쳐 기본재산을 확대하였다. 2010년 이사회를 설립하여 각 이사들의 이사회비 납부금과 동문들의 장학금 기탁 협조로 2024년 5월 현재 총 약 5억 3천여만 원의 재산으로 운영되며 1994년 설립 이후 2024년 4월 30일까지 493명의 모교 학생들에게 총 390,900,000원이 지급되었다.

영란장학회 명단

전주여고동창영란장학회 이사

직 위	성 명	졸업 횟수	직 위	성 명	졸업횟수
이사장	차연수	49	이 사	지향림	50
부이사장	홍수자	32	이 사	장해송	52
부이사장	백수덕	36	이 사	유혜숙	52
이 사	박춘자	32	이 사	유정화	52
이 사	이선희	42	이 사	최경은	53
이 사	이준례	44	이 사	이영숙	54
이 사	이병순	46	감 사	박해정	53
이 사	이 경	49	감 사	한귀정	54
상임이사	김인순	49			

전주여고동창영란장학회 명예이사

성 명	졸업 횟수	성 명	졸업 횟수	성 명	졸업 횟수
박성숙	21	이정숙	22	이순례	26
전소연	26	이영자	30	김정숙	36
이정희	37	김정자	40		

총동창회 및 장학재단 행사

2023. 05. 09	13대 전주여고총동창회 2차년도 기대표 회의 전주여고 2층 회의실
2023. 05. 25.	2023 전주여고총동창회 97주년 기념식 및 정기총회 전주여고 강당
2023. 08. 22.	13대 총동창회 3차년도 제1차 임원회의 백리향
2023. 09. 12.	13대 총동창회 3차년도 기대표회의 전주여고 2층 회의실
2023. 10. 17.	전주여고총동창회 가을소풍 순천만 국가정원
2023. 11. 03.	2024학년도 수능 만점기원 선물 전달 전주여고 교장실
2023. 11. 28.	13대 총동창회 3차년도 임원 송년의 밤 은채식탁
2024. 01. 09.	2024 전주여고 총동창회 신년인사회 및 이사회 개최
2024. 02. 02.	전주여고 졸업식에서 장학금 전달
2024. 03. 04.	전주여고 입학 및 개학 격려
2024. 04. 08.	우수 신입생에 장학금 전달
2024. 04. 16.	13대 총동창회 3차년도 제2차 임원회의
2024. 04. 30.	13대 총동창회 3차년도 제2차 기대표회의

전주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 임원

전주여자고등학교총동창회 고문

성 명	졸업 횟수	비 고	성 명	졸업 횟수	비 고
박춘자	32	모교 25대교장	이준례	44	10대 동창회장
임계강	32	7대 동창회장	이병순	46	11대 동창회장
이현주	35	8대 동창회장	송인순	47	모교 30대교장
남상숙	39	9대 동창회장	최영미	48	12대 동창회장
김계순	44	모교 27대교장	장해송	52	모교 31대교장

전주여자고등학교총동창회 지회 회장단

지역	직 위	성 명	졸업 횟수	지역	직 위	성 명	졸업 횟수
부산	회 장	송정희	29	군산	회 장	박선영	32
	총 무	이진자	30		총 무	송미옥	41
대전	회 장	조내연	17	정읍	회 장	은문숙	27
	총 무	서금석	27		총 무	이현정	48
익산	회 장	김영숙	49				
	총 무	고정순	53				

전주여자고등학교총동창회 기대표

졸업 횟수	성 명	졸업 횟수	성 명	졸업 횟수	성 명	졸업 횟수	성 명
22	김옥균	34	황영자	43	김삼순	53	고정순
26	김규정	35	이복순	44	배영숙	54	한숙경
27	백덕성	36	최명옥	45	남정숙	55	차진아
28	서화자	37	김일례	46	한인재	56	유 경
29	박한숙	38	박경혜	47	소연자	57	유성희
30	김신자	39	이재숙	48	박은숙	58	이수영
31	이현숙	40	백승영	49	이영희	59	정 석
32	이길자	41	허영순	50	이혜경	60	김숙자
33	남한식	42	정숙란	51	한삼례	63	박달남
				52	배영희	64	이선희

전주여고총동창회 2024년 이사 명단

(1구좌/100,000원)

졸업 기수	이사 명단	구좌	
30	김신자(2), 이경순(4)	2	6
32	박춘자(3),이길자,임계강(5),홍수자(3)	4	12
34	강갑순,김정희,김종자,문경자,박순자,석정자,유희정,여인숙,이영자(큰),이영자,이은숙,이인자,이현숙,최명자,최연숙,황영자(2)	16	17
35	김단야,김미자,김복숙,김신자,김용이,김전순,김정숙(재경),김정숙(전주),김채홍,류지순,문영숙,박병숙,박병숙B,박선옥,박영아,박준희,박희명,백보현(11),백영옥,서귀순(2),손순우,송영희,송택련,송희영,신효정,안선숙,안효숙,양만식(2),양효선,오숙자,오정순,유익영,유준오,윤채봉,윤화란,은영희,이규현,이두이,이명순,이복순,이순희,이안호,이옥희,이원표,이윤자,이일주,이태숙,이현주(5),이혜자,임경희,임숙희,장경옥,조계양,조정숙(2),채순자,최명호,최선옥,최옥희,허경순,홍혜림,황귀자,황근숙,황용주,강성희,강오복,김영호,심영숙,윤정희	68	85
36	김정한,백수덕(3),변금자,안명옥,최명옥	5	7
37	김인숙,김일례,김효정,안향자,오석순,한영선,형영애	7	7
38	곽정숙,박경혜,박영희,박완희,조영숙,조정희,천신덕,최관희,최순혜,최양남	10	10
39	강순구,강영자,강지연(2),김연희,김영희,김옥남,김인실,남상숙(5),문정숙,박병희,서정해,신순자(2),오민모,유기례,윤현숙,이봉숙,이선자(3),이재숙(3),전정숙,조금숙(2),조정래,최순애,한수정	23	34
40	백선,백승영(2),송연숙,양순례,정은숙,최인혜	6	7
41	강경숙,김광희,김금남,김연수,서혜자,송정옥,심금숙,윤효숙,이정남,이진숙,장선옥,장영애,정태정,최전심,허영순(2)	15	16
42	강현숙,곽경애,김영자,김종순,서동숙,심용순,이경자,이명자,이선희(3),임규례,전인숙,정숙란,조윤희,최명순,최정자,최옥희,함윤희	17	19
43	김명숙,김삼순,박광자,박명자,안계숙,유한신(5),은연숙,임영순,한효수,황덕순	10	14
44	강효숙,고연숙,김가주,김계순(2),김영란,김점수,김혜균,박지수,배영숙,선성자,양순자,이경애,이재운(2),이준례(5),장영숙,최은우	16	23
45	김경림,김진형,김화숙,남정숙,박미혜,박선화,성순옥,신현숙,엄효순(2),오강숙,주영희	11	12
46	김윤희,김은숙,김혜숙,노혜원,류은낭,민혜경,박명희,박점이,서현순,성혜숙,안효숙,양혜순,유선자,유선희,유영미,유혜숙,윤화중,이경순,이병순(5),이점숙,이지윤,이춘희,이혜숙,이화정,장영숙,정화신,차명옥,최민예,한문자,한인재	30	34
47	고혜경,김공순,김기자,김미현,김미혜,김정수(2),김희자,박정순,박현선,박현옥,백은희,서은경,소연자,송인순(2),유재이,이성자,이인순,장규선,장숙진,정숙아,조미애,조완희,최미향,한강희(2)	24	27

(1구좌/100,000원)

졸업 기수	이사 명단	인원	구좌
48	곽은희(2), 김계숙, 김성희, 김옥경, 김정애, 김효순, 나영성, 노옥자, 배은미, 박경화, 박은숙(2), 박전숙, 방해영, 백선옥, 백승희, 서미석, 서성순, 서영임, 서혜련, 손진, 송영자, 송진희(2), 온경자, 유효덕, 이경애, 이지영, 이화정, 엄영숙, 염연숙, 유미혜, 유은희, 임세미, 임현자, 정선영, 정영순, 최미옥, 최영미(5), 최은영, 최인숙, 최진옥(2), 최현숙, 최현희, 홍성이, 황경완, 박명숙	45	53
49	김윤숙, 김경자(2), 8반김미숙(2), 김보련, 김성희, 김숙(3), 김영숙, 김윤숙, 김인순(3), 김자영(2), 김정임, 김정희, 김채원, 김춘란(3), 김태윤(2), 김하연, 류현정, 문선향, 문아경, 박근실(3), 3반박석란, 박인숙(10), 박정희, 박찬례(2), 방경숙, 백현숙, 서경주(3), 서은주(5), 손희주, 송내경, 신성혜, 안혜숙(3), 양연임, 온영원, 유금남, 이강례, 이경(10), 이남심(3), 이영실, 2반이영희, 8반이영희, 이은진, 이춘자(2), 임미숙(2), 임혜연, 장문임(3), 조현(3), 장인숙(2), 전경정, 전형심, 주영숙(2), 차순희, 차연수(20), 하상자, 한은경	54	122
50	김금주, 김연희, 김영숙, 김인환, 김정남, 박효규, 서필선, 성계숙, 신소영, 신정인, 신현숙, 양미정, 오현숙, 윤혜자, 이영란, 이인숙, 이혜경(2), 이효진, 임덕희, 임정희, 장문순, 장혜영, 전은순, 전정희, 조용현, 조혜경, 지향림, 한경미, 허명숙, 홍정옥, 김배규, 유윤희, 이영주	33	34
51	김영숙, 배석다, 신유순, 양정은, 오명숙, 이성옥, 이애련, 이연화, 이희순, 임영란, 조혜경, 진채경, 최임순, 한삼례, 최경희, 홍성순	16	16
52	강광숙, 국보성, 김명희, 김미자, 김미하(2), 김미희, 김복희(3), 김수야, 김승현, 김연주, 김연희, 김정희, 김혜인, 김희옥, 박경원, 배영희, 손효문, 송정옥, 송행숙(2), 송복희, 안순희(2), 유정화(5), 유혜숙, 이난희, 이명숙, 이명애, 이화실, 임경은, 임미경, 장인숙, 장해송, 조영숙, 최경복, 최나영, 최명숙, 최미혜, 하향자, 한경조, 황영애, 허진휴	40	49
53	강미향, 강희춘, 고정순(2), 김귀순, 김윤숙, 김자선, 김정옥, 박소미, 박진숙, 박해정, 오영미(3), 유명희, 유재수, 이근영, 임혜정, 정영희, 정진숙, 조미숙, 최경은(5), 홍영란	20	27
54	강영주, 김예순, 김윤경, 나성효, 문경숙, 박운경, 손영란, 이금옥(2), 이영숙(5), 이인화, 한귀정(2), 한숙경(2), 한정례	13	20
55	기은경, 김명숙, 김은영, 배미숙(2+1), 서영민, 윤수경(2), 윤정란, 이미자, 차진아(2), 채금희, 홍진이(2)	11	16
56	곽희경, 권태신, 유경, 이수, 최정민(5)	5	9
57	유성희, 최명희	2	2
58	강정임, 고은숙, 박수영(2), 박수정, 박윤희, 설숙희, 이수영(2)	7	9
60	김숙자	1	1
63	박달남	1	1
64	소인영, 이선희, 조미숙	3	3
총 계		515	692

전주여자고등학교총동창회 13대 임원

직위	성명	졸업 횟수	직위	성명	졸업 횟수
회 장	차연수	49	기획부원	신유순	51
부회장	이 경	49	기획부원	오영미	53
수석부회장	유정화	52	기획부원	박수영	58
감 사	차명옥	46	홍보부장	김춘란, 김미숙	49
감 사	박전숙	48	홍보부원	전정희	50
운영부장	김경자, 박찬례	49	홍보부원	윤승희	52
운영부원	이혜경	50	홍보부원	권태신	56
운영부원	김연주	52	섭외부장	이남심, 이영희	49
총무부장	박인숙, 김보련	49	섭외부원	오명숙	51
총무부원	이효진	50	섭외부원	한숙경	54
총무부원	김미하	52	섭외부원	홍진이	55
총무부원	차진아	55	섭외부원	유성희	57
총무부원	설숙희	58	문화부장	장인숙, 김태윤	49
총무부원	김숙자	60	문화부원	임덕희	50
서기부장	문선향, 김채원	49	문화부원	최경은	53
서기부원	이희순	51	문화부원	최정민	56
서기부원	이영숙	54	문화부원	이수영	58
서기부원	윤정란	55	봉사부장	안혜숙, 임혜연	49
서기부원	곽희경	56	봉사부원	박효규	50
재무부장	이춘자, 김 숙	49	봉사부원	유재수	53
재무부원	안순희	52	봉사부원	유 경	56
재무부원	윤수경	55	봉사부원	최명희	57
재무부원	이 수	56	대외협력부장	서경주, 임미숙	49
재무부원	박수정	58	대외협력부원	한 영	51
편집부장	주영숙, 송내경	49	대외협력부원	한귀정	54
편집부원	허명숙	50	대외협력부원	기은경	55
편집부원	송정옥	52	대외협력부원	홍공숙	57
편집부원	김예순	54	영란장학회 상임이사	김인순	49
기획부장	조 현, 서은주	49	재직동문	송신영	72

개교 97주년 장학금 수여 내역

순	수여자	인원수(명)	금액(원)
1	영란장학재단 장학금(대입 성적 우수자)	6	6,000,000
2	영란총동창회 기숙사 장학금	4	2,000,000
3	영란장학재단 장학금(신입생)	5	6,000,000
4	영란총동창회 장학금(신입생)	7	7,000,000
5	영란장학재단 장학금(재학생)	6	3,000,000
6	재경동창회 장학금	9	6,000,000
7	영란 리더스포럼 장학금	4	2,000,000
8	영란 교수회 장학금	4	2,000,000
9	육민철 장학금	4	2,000,000
10	임병태 장학금	2	1,000,000
11	28회 이경준 장학금	4	2,000,000
12	조옥영 장학금	2	1,000,000
13	36회 율타원 김정한 장학금	2	1,000,000
14	36회 김정숙 장학금	2	1,000,000
15	43회 이순남 장학금	2	1,000,000
16	45회 이정희 장학금	1	300,000
17	47회 주혜란 장학금	2	1,000,000
18	48회 최영미 장학금	2	1,000,000
19	32회 동문 ○○○ 장학금	3	2,000,000
20	신명숙 장학금	1	1,000,000
21	45회 동창회 장학금	1	500,000
22	51회 동창회 장학금	6	3,000,000
23	52회 동창회 장학금	4	2,000,000
24	54회 동창회 장학금	20	10,000,000
25	56회 동창회 장학금	2	1,000,000
26	58회 동창회 장학금	1	500,000
27	발전기금 장학금(누적 발전기금 이자)	2	2,000,000
28	연경장학회 장학금	60	30,000,000
*	43회 정길자 동문 발전기금 기탁		100,000,000
*	44회 동창회 시설물 기탁		5,000,000
합 계 (시설물 및 발전기금 기탁금 제외)		168	97,300,000

재경전주여고 총동창회 제 15대 이사 명단 | 2024. 3. 27. 현재(총 90명)

고문(역대 회장)

구 분	성 명	졸업 횟수	구 분	성 명	졸업 횟수	구 분	성 명	졸업 횟수
고 문	이영자	30	고 문	이두이	35	고 문	강은정	46
	김숙자	32		김정숙	36		이봉학	48
	하정자	33		손정숙	37		조혜경	49
	최명자	34		정길자	43			

제15대 임원

구 분	성 명	졸업 횟수	구 분	성 명	졸업 횟수	구 분	성 명	졸업 횟수
명예회장	나선미	50	부회장	주정희	51	서기	장미령	51
회장	양정은	51		황미란	51		정광자	51
감 사	강 숙	49		한연숙	52		황미숙	51
	임영선	50	수석총무	홍진숙	51		김미담	52
수석부회장	이유남	51	총무	송희순	51		노미경	56
부회장	강혜영	51		이현희	51	수석홍보	임금녀	51
	류선순	51		정화자	51	홍보	이미영	51
	서혜선	51		정현옥	52		최남임	51
	신수경	51		육수영	58		이보은	52
	오만숙	51	수석재무	모수민	51		국선희	53
	유연희	51	재무	김상기	51	운영위원장	김영주	51
	유정수	51		김영주	51	재정위원장	김주원	51
	이승순	51		박상희	52	문화위원장	배소희	51
	이재영	51		장금자	53	봉사위원장	김현영	51
	이혜경	51		김영미	51	주니어위원장	안선주	51
	정화자	51	수석서기			주니어위원장	고개희	56

졸업횟수	성 명	졸업횟수	성 명	졸업횟수	성 명	졸업횟수	성 명
29	이정자	37	이금림	47	조완희	55	백정화
30	이경순	38	박화윤	48	문영례	56	노미경
31	하영희	39	조금숙	49	정삼순	57	최선미
32	송화자	40	구영미	50	오경미	58	배영란
33	신정원	43	안계숙	51	김주원	59	홍정민
34	전향례	44	이순례	52	한연숙	60	임옥수
35	이규현	45	이주현	53	정미영	69	김미란
36	임귀남	46	이지윤	54	천경아	70	염현주

전주여고 졸업 동문 수

졸업 횟수	졸업생 수	졸업 횟수	졸업생 수	졸업 횟수	졸업생 수	졸업 횟수	졸업생 수
1	25명	25	350명	49	560명	73	445명
2	29명	26	428명	50	557명	74	386명
3	38명	27	492명	51	571명	75	391명
4	39명	28	350명	52	640명	76	351명
5	34명	29	388명	53	618명	77	315명
6	43명	30	289명	54	615명	78	329명
7	45명	31	367명	55	628명	79	324명
8	40명	32	373명	56	610명	80	332명
9	45명	33	323명	57	601명	81	359명
10	46명	34	362명	58	606명	82	383명
11	74명	35	500명	59	574명	83	368명
12	100명	36	383명	60	586명	84	360명
13	100명	37	408명	61	676명	85	359명
14	98명	38	402명	62	657명	86	349명
15	106명	39	399명	63	545명	87	359명
16	105명	40	420명	64	515명	88	357명
17	202명	41	386명	65	509명	89	358명
18	76명	42	387명	66	489명	90	351명
19	84명	43	370명	67	435명	91	294명
20	174명	44	375명	68	375명	92	254명
21	262명	45	373명	69	398명	93	270명
22	289명	46	498명	70	456명	94	259명
23	학제개편	47	505명	71	513명	95	207명
24	학제개편	48	507명	72	486명		
총 졸업생 수				32,669명			

전주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 연혁

- 1926.05.25. 전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설립 인가(4년제)
- 1930.03.23. 제1회 졸업식(25명)
- 1933.08.16. 제1회 동창회 개최 : 개교 7년 후, 제4회 졸업생이 배출되던 해 학교 측의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이후 2회, 3회 동창회 개최됨
- 1940.11. 교내에 동창회관 건립, 이때까지는 특별한 활동 없이 몇몇의 동창생이 친목 도모로 모였다고 추측됨
- 1947. 전북공립여자중학교로 개칭(6년제) 광복과 더불어 1회 정복술, 2회 박동례, 6회 강병훈, 8회 김귀순, 10회 전순애 동문 등 약 20여 명이 모여 동창회 재발족을 협의하였으나 6.25동란으로 다시 중단됨
- 1951.09.25. 전주여자고등학교로 개칭(3년제)
- 1953. 휴전 후 1회 정복술 동문이 전주여고동창회 초대회장으로 취임
- 1960. 동창회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회원들이 늘어났고 여러 동문들이 힘을 모아 학교 서쪽에 있는 백년각 건물 매입, 이를 학생 생활관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동문들이 각종 시설물을 기탁함
- 1972. 계속적인 모금활동으로 1972년 전주시 남노송동 소재의 구건물을 110만원에 매수하고 약 3년 동안 모금하여 생활관 시설 정비와 보수를 완성함
- 1974.06.24. 풍남동 구교사에서 인후동 현교사로 이전
- 1976.05.25. 개교50주년 개교 50주년에는 약 1500만원을 모금하여 새 강당 건립의 기초로 삼고, 제10회 김경애 동문도 450만원을 찬조하여 모교에 분수대와 그랜드 피아노를 기증함
- 1976.05.25. 제2대 동창회장으로 6회 강병훈 동문 취임
- 1986.05.25. 개교60주년 개교 60주년 기념 동창회관 준공식 거행: 각 기별 모금액 5,000여만원과 당시 남노송동 소재 동창회관 매각대금 880만원, 기타 수입금으로 모교 내에 2층 슬라브 연화조로 동창회관(연 건평 69.7평)을 건립함. 개교 후 처음으로 전주여고 60년사를 발간함
- 1987.05.25. 제3대 동창회장으로 16회 김옥생 동문 취임
- 1989. 영란장학회 모금 시작
- 1993.05.25. 제4대 동창회장으로 21회 김기복 동문 취임
- 1994.07.15. 재단법인 전주여고동창영란장학회 설립
- 1994. 발간이 중단되었던 교지 '거울'의 복간에 협조하여 '거울(30호)'이 다시 발간됨
- 1996.05.25. 개교70주년 개교 70주년에는 전주여고 70년사를 발간하였고, 강당 앰프 설치, 동창회관을 보수함. 동창회 회장 임기 3년 단임으로 회칙 개정

History

1997.05.25.	제5대 동창회장으로 22회 양부례 동문 취임
2000.05.25.	제6대 동창회장으로 26회 김문숙 동문 취임
2003.05.25.	제7대 동창회장으로 32회 임계강 동문 취임
2005.05. ~ 2006.05.25.	개교80주년 2006년 5월 25일 개교 80주년을 맞이하여 전주여고 역사관 조성, 전주여고 80년사 발간, 학교 표지석 설립, 동창회관 보수, 학교발전기금 모금
2006.05.02.	풍남동 구교사 전주여고 옛터 표지석 설치(현 르원호텔)
2006.05.25.	제8대 동창회장으로 35회 이현주 동문 취임
2009.05.25.	제9대 동창회장으로 39회 남상숙 동문 취임
2010.01.18.	전주여고동창회 신년하례식 및 이사회 창립식 개최
2012.05.11.	전주여고 신교사 준공식 개최
2012.05.25.	제10대 동창회장으로 44회 이준례 동문 취임
2015.05.25.	제11대 동창회장으로 46회 이병순 동문 취임
2016.05.25.	개교90주년 2016년 5월 25일 개교 90주년을 맞이하여 전주여고 90년사 발간, 영란 브로치를 제작 판매하였으며 개교 90주년 기념행사에 60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함
2018.05.25.	제12대 동창회장으로 48회 최영미 동문 취임
2019.01.08.	제10회 전주여고동창회 신년하례식 및 이사회 개최
2021.08.21.	제13대 동창회장으로 49회 차연수 동문 취임
2021.11.09.	모자가정 후원을 위한 영란인의 밤 개최
2022. 05.25.	전주여고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으로 최명자 재경동창회 고문(34회), 남상숙 9대 총동창회장(39회) 추대
2023. 01.10.	2023 전주여고 총동창회 신년인사회 및 이사회 개최
2023. 05.25.	개교97주년 기념식 및 정기총회에서 동창회 회장 임기 3년에서 2년으로 개정
2024. 01.09.	2024 전주여고 총동창회 신년인사회 및 이사회 개최

전주여자고등학교총동창회 회칙



- 1960년 5월 25일 제정
- 1987년 5월 25일 개정
- 1988년 5월 25일 개정
- 1991년 5월 25일 개정
- 1996년 5월 25일 개정
- 2000년 5월 25일 개정
- 2010년 5월 25일 개정
- 2023년 5월 25일 개정

제1조 본회는 전주여자고등학교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 본회의 본부는 전주여자고등학교에 두고 지역별로 지부를 둔다.

단, 지부가 결성되면 지체 없이 본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 본회의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겸하여 모교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조직한다.

1. 통상회원: 전주여자고등학교, 전북고등여학교, 전북여자중학교 졸업생 및 수료생
2. 특별회원: 현 전주여자고등학교 교직원 및 전주여자고등학교에 재직했던 교직원

제5조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2인(2000년 개정)
- 고문 약간인
- 감사 2인
- 집행임원(기획, 홍보, 총무, 재무, 기타) 약간인(2010.5.25. 개정)
- 상임간사(재직동문) 약간인

제6조 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2023.5.25. 개정)

제7조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고문은 전 회장, 동문 모교 교장, 동창회 발전에 공이 있는 분을 추천하여 임명한다. (2010.5.25. 개정)

제8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회무일반을 처리한다.

제9조 본회는 동창회와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를 둔다. 이사는 매년 이사회비를 납부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상임이사는 이사 중 특별찬조금을 납부한 자로 한다.(2010.5.25. 개정)

제10조 본회는 다음의 사무를 행한다.

1. 회지의 발행
2. 지, 덕, 기, 예의 수양에 관한 제 화합의 개최
3. 본교 후원사업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본회는 개교기념일(5월 25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임원의 개선
3. 사업계획의 결정
4. 기타 주요한 안건

제13조 본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4조 본회의 경비는 회비, 이사회비, 기타의 수입으로서 지변한다.(2010.5.25. 개정) 통상회원은 입회 시 입회금으로 금 1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형편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제15조 본회의 경비 중 현금은 회장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제16조 본 회원의 주소 및 신상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직접 본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회원으로서 본회에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로써 제명한다.

- 부 칙 -

제1조 본회를 위하여 제되는 사항, 기타 회무에 필요한 세칙은 회장이 이를 행한다.

제2조 제6조 회장의 임기는 1997년 5월 25일 이후부터 발효한다.(1996.5.25. 개정)

제3조 제6조 회장의 임기는 2024년 5월 25일 이후부터 발효한다.(2023.5.25. 개정)

전주여고 총동창회비 결산서

(회계기간 : 2023. 5. 1. ~ 2024. 4. 30.)

수 입		지 출	
내 용	금액(원)	내 용	금액(원)
전년도 이월	212,300,277	동창회 운영비	6,726,200
- 정기예금(우체국)	60,000,000	- 경조사, 화분, 화환	710,000
- 보통예금(우체국)	81,139,297	- 기다 운영비	6,016,200
- 보통예금(기업)	68,754,106	모교 지원비	12,262,700
- 보통예금(우리)	2,406,874	- 수능 선물	1,980,000
		- 신입생장학금, 진학지도비	5,000,000
이자 수입	123,997	- 기타지원비	5,282,700
- 보통예금(우체국)	77,720	97주년 개교기념 행사	27,430,180
- 보통예금(기업은행)	44,197	- 식비	15,840,000
- 보통예금(우리은행)	2,080	- 음향,사진,동영상	1,900,000
		- 기타지원비	9,690,180
동창회 이사회비	73,200,000	가을여행	14,420,045
재경전주여고	1,000,000	- 차량대여비	4,800,000
개교97주년 참가비	18,240,000	- 식비	5,468,000
개교97주년빛영란z 후원	20,010,939	- 기타지원비	4,152,045
가을여행 참가비	10,200,000	신년인사회및이사회	15,236,760
가을여행 후원비	1,600,000	- 식사비	9,750,000
		- 음향,사진,동영상	2,190,000
		- 기타 지원비	3,296,760
		영란z	14,420,860
		- 편집 및 인쇄비	11,550,000
		- 기타지원비	2,870,860
		은행수수료	3,700
		이주민푸른인권센터 기부	10,000,000
수입 합계	336,675,213	지출 합계	100,500,445

예치 현황	우체국 정기예금(400010-11-422290)	60,000,000원
	우체국보통예금(이사회비)(400010-01-025682)	157,833,210원
	기업은행 보통동점(181-164619-01-017)	18,341,558원
합 계		236,174,768

전주여고 총동창회 회계 감사 보고서

감사일시 : 2024년 4월 29일 13시

감사장소 : 전주여고 동창회사무실 (전주여고 내)

감사기간 : 2023년 5월 1일 ~2024년 4월 30일

본 감사는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의 전주여고총동창회의 회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수입은 336,675,213원(전기이월금 212,300,277 당기수입금 124,374,936)입니다.

총지출은 100,500,445원 , 차기이월금은 236,174,768원입니다.

차기이월금은 정기에금 60,000,000원(우체국), 보통예금176,174,768원으로 우체국(157,833,210)과 기업은행(18,341,558)에 예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감사해당기간의 전주여고총동창회비 수입·지출내역을 감사한 바, 동창회칙에 따라 처리되었으며 현재 재무상태와 업무운영에 적정을 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24. 4. 29.

전주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

감사 : 차 명 옥 (서명)

감사 : 박 전 속 (서명)



재단법인 전주여고동창영란장학회 결산서

(2023.04.22.~2024.04.22.)

수 입		지 출		
내 용		내 용	금액(원)	
이월금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 (2023.5.25)	3,000,000	
예금이자				
법인세환급금		대입 성적우수장학금 (2024.02.02.)	6,000,000	
기 부 금	54회동문일동	3,000,000	신입생성적우수장학금 (2024.4.8.)	11,000,000
	한귀정(54회)	200,000	업무추진비	2,000,000
			법인주민세	62,500
			우편료 및 법무비용, 사무용품구입비	12,760
합 계		37,927,745	합 계	22,075,260

법인 재산 현황(2024. 4. 22 현재)

기본 재산 : 520,983,744 원, 보통 재산 : 15,852,485 원

구분	재산명	내 용	금 액(원)
기본재산	현금	전북은행 (시장금리부정기예금)	350,000,000
기본재산	현금	전북은행 (시장금리부정기예금)	28,483,744
기본재산	현금	전북은행 (시장금리부정기예금)	29,100,000
기본재산	현금	전북은행 (시장금리부정기예금)	93,000,000
기본재산	현금	전북은행 (시장금리부정기예금)	20,400,000
보통재산	현금	전북은행 (기업자유예금)	15,852,485
계			536,836,229

장학재단 입금계좌번호:

전북은행 509-23-0000871 (재)영란장학회

장학재단 감사보고서

- ◆ 감사 일시 : 2024년 4월22일 오후 5시
- ◆ 감사 장소 : 전주여고 동창회 사무실
- ◆ 감사 해당 기간 : 2023.4.22~2024.4.22

위와 같이 장학재단 감사를 실시하였는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 적정하게 관리되었고, 예산도 낭비 없이 정당하게 집행되었으며, 현재 총재산 536,836,229원 중 기본재산 520,983,744원은 전북은행에 시장금리부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고, 보통재산 15,852,485원은 보통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지속적으로 장학 사업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동문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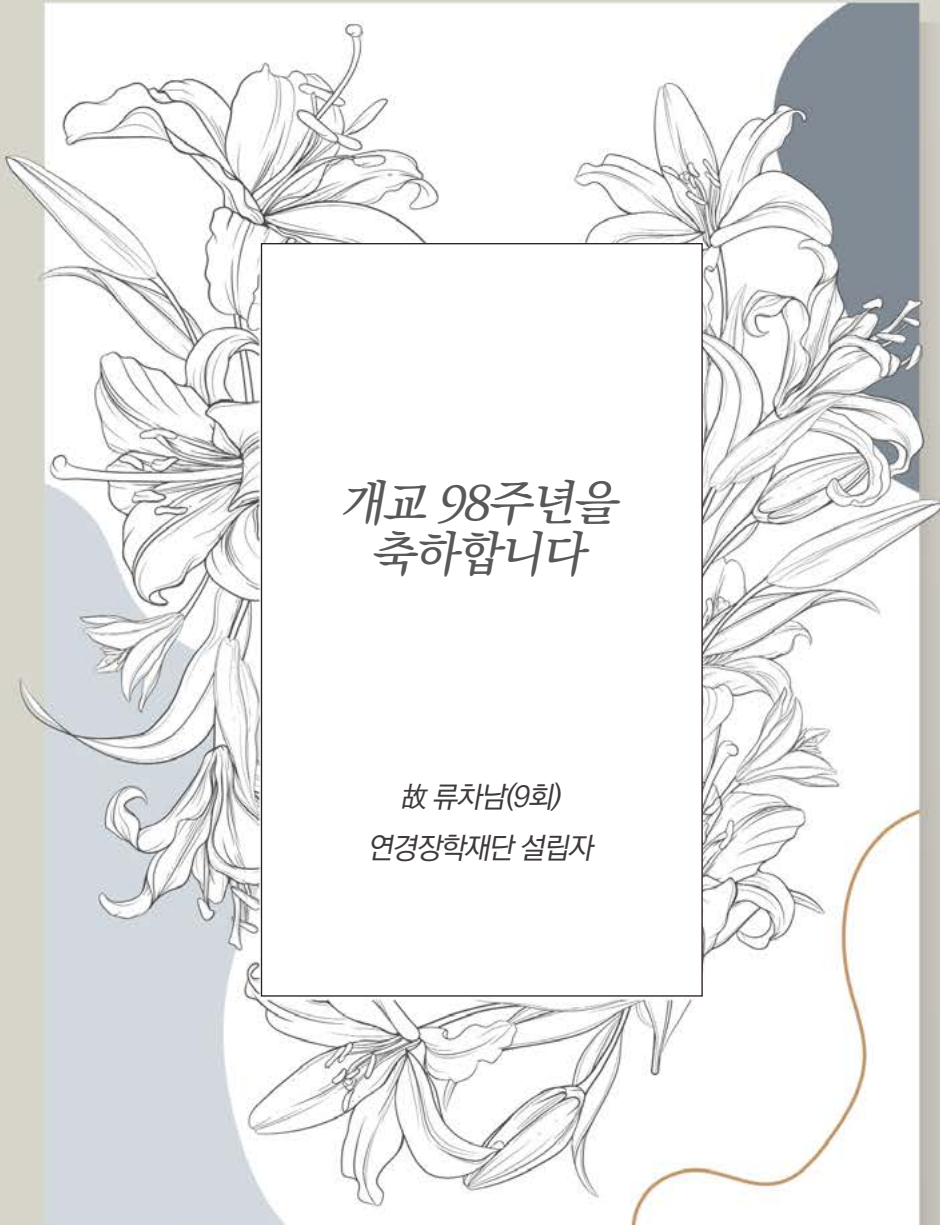
2024년 4월 22일

재단법인 전주여고동창영관장학회

감사 : 박 해 정

감사 : 한 귀 정





개교 98주년을
축하합니다

故 류차남(9회)
연경장학재단 설립자



개교 98주년을
축하합니다

이영숙(26회)



개교 98주년을 축하합니다

- 전임 회장단 일동 -

임계강 이현주 남상숙 이준례 이병순 최영미 차연수

개교 98주년을 축하합니다

- 모교 전·현임 교장단 일동 -

제 25대 박춘자 교장(32회)

제 27대 김계순 교장(44회)

제 30대 송인순 교장(47회)

제 31대 장해송 교장(52회)

현)제 32대 이영숙 교장(54회)





개교 98주년을
축하합니다

유한신(43회)

미국 오키모스 시 가정의학과 의사
미시간주립대 의대 겸임교수

개교 98주년을
축하합니다

차연수(49회)

전주여고 13대 총동창회장
전북대학교 교수



서울영상의학과 MRI·심장센터

SEOUL RADIOLOGY CLINIC · MRI · CARDIAC CENTER

영상의학과 전문의 **박인숙, 설명진**
심장내과 전문의 **김원호**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12 (금암동) [금암광장/분수대]
TEL. 063) 278-1312~3 FAX. 063) 254-1720

저희 서울영상의학과 · MRI · 심장센터는

◆ 서울영상의학과 · MRI 센터

- 영상의학과 전문의 박인숙(전여고 49회), 설명진

- MRI 촬영(AI 3.0T/지멘스) : 전신촬영
- 128Slice-MDCT 촬영(지멘스)
- 유방암 진단
- 자궁나팔관 촬영
- 초음파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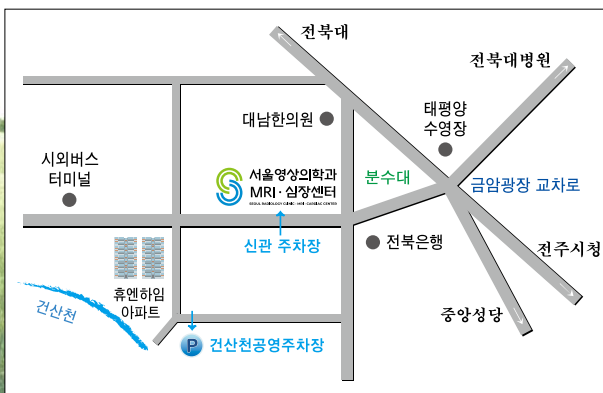
◆ 서울영상의학과 · 심장센터

- 심장내과 전문의 김원호(전. 전북대학교병원 교수)

- 심장 초음파 검사
- 심장 CT 촬영
- 심전도(EKG) 검사
- 혈관 촬영
- 경동맥 초음파 검사



저희 의료진은 새로운 장비로 더욱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고저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명품수업

고려학원

원장 김채원 (49회)

교사 · 학부모 · 학생의 3박자는
인생점수가 된다.



믿을 건 오직 실력뿐입니다!!

비교하고, 따져보고, 들어보고 선택하십시오.
움직이는 학부모님만이 자녀의 성공적인 미래를 만듭니다.

고려학원의 차별화된 수업시스템에 대하여
이해력과 집중력을 위한 수업사례로 자랑스럽게 발표되었습니다.



수병원
SOO HOSPITAL

수병원은 **12명**의 전문의가 진료하고 수술하는
정형외과 병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병원
이웃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가족같은 병원

정성으로 다가가는 수병원

원장 이병호(최정민 56회)

진료과목

정형외과 / 일반외과 / 마취통증의학과 /
영상의학센터 / 종합검진센터 / 가정의학과

문의전화 **063-251-7200**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63 (효자동 2가 1240-11)

전국 요양병원 최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획득!
전국 요양병원 고객이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획득!
노사문화공로 대통령 훈장 표창



효사랑 통합면역센터

전북 최초 여성암 치료기, 최신의료장비 고주파온열암치료기 도입



알바온 (ALBA ON 4000)

국내 유일 여성유방암 전문 고주파온열암치료기

- ☐ 암 치료효과 상승
- ☐ 암세포의 자연 사멸 유도
- ☐ 통증완화, 재발 및 전이 예방

셀리프 (CELIEF)

선택적 암세포 괴사 고주파온열 치료기

- ☐ 암 치료효과 상승
- ☐ 통증 완화
- ☐ 부작용 및 합병증이 없음



효사랑 통합면역센터



효사랑가족요양병원 통합면역센터

55병상

전화 : 063-279-8255, 010-2678-8255



효사랑가족요양병원

Hyosarang Family Hospital

진료과목

한방 : 내과, 침구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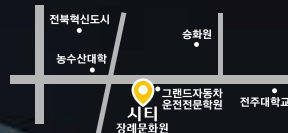
양방 : 내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흉부외과

부설기관

효사랑장례문화원, 가정간호사업소, 효사랑건강작은도서관

건강검진센터, 한방진료센터, 인공지능장센터

효사랑가족요양병원장 김정연(57회)



박정순(47회)

사전상담시 특별추가 할인제공
24시 콜센터 : 063-274-4444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14



연습한 차량, 연습한 장소에서

1종 보통
2종 오토
대형면허 (버스)
2종소형 (오토바이)
소형견인 (캠핑카라반)
도로연수

한방에 면허취득 확실한 운전연수

학원자체시험 면허발급



그랜드자동차학원

박정순(47회) T.063) 226-0031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16



* 무료서류운행



개교 98주년을 축하합니다

영란장학재단 임원 일동
- 이사장 차연수(49회) -



개교 98주년을 축하합니다

- 재경총동창회 15대 임원일동 -



**개교 98주년을
축하합니다**

전라도 천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실 새만금위원회 위원

— 이재운(44회) —



개교 98주년을 축하합니다

구례세브란스의원(전남 구례)

— 신훈상 원장, 정미정(47회) —

48



연와미당

대표 나영환(이화점 48회)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128
063-224-4141/010-9439-3950



연와미당

48

내과 / 가정의학과 / 순환기내과 / 정형외과 / 외과 / 건강검진

이사장 유선이(48회)



전주기독병원



<https://jjsch.co.kr>

Hailo'z

해일로즈 산후조리원



<https://hailo'z.com>

진심을 담은 세심한 케어와 최상의 서비스 · 호텔식 산후조리원

더지 유니.

국내 최고급 원재료로 최고급 유과를 만듭니다.

인공첨가물, 인공색소 일절 들어가지 않고 국내산 이천쌀과 깨끗한 기름으로 만들었습니다.

45년의 내공으로 만들어진 입에 달라붙지 않는 바삭한 유과입니다.

- 대표 유은희(48회) -



이남심 내과 + 인 정형외과

일반내과 / 건강검진 / 위내시경 / 초음파진단 / X-ray검사

내과 원장 이남심(49회)



1. 공무원 신체검사
2. 건강검진
3. 건강보험 성인 건강검진
4. 수면 위장 내시경
5. 초음파 검사
6. 방사선 촬영
7. 심전도 검사
8. 안기능 검사
9. 혈액 대소변 검사
10. 골다공증 검사





- 산부인과 안혜숙(49회) 원장 -

알레르기면역치료센터

아토피/알레르기/천식 원인분석 + 원인치료

성장성조숙증센터

저신장/성조숙증/소아비만

소아청소년종합검진센터

영유아검진/소아청소년종합검진

굿닥터스 행동발달 증진센터(부설)

언어발달지연/심리상담

산부인과 원장(063. 271-1331)

자궁경부암 검진/부인과 진료/초음파



개교 98주년을 축하합니다
- 조현(49회) -

51

잠미약국

- 최영(51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109 / 063-275-7752

51



CAFE
NEUL SOOP

산책하기 좋은 카페

늘 — 숲
NEUL SOOP

- 이성옥(51회) 대표 -



김제시 금산면 청도4길 30-8
063_543_5860 / 010-3673-5677

(유)삼성방재



전문소방시설관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공공기관, 학교, 일반건축물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전문업체

대표 소방시설관리사
유정화 (52회)

전주시 완산구 인봉1길 48-8
063-286-2119/ 010-7700-4825



개교 98주년을 축하합니다

-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최경은(53회) -

54

행복을 기르는 서신동 꽃동산

꽃동산

네이버, 다음에서 **서신동 꽃동산** 을 검색하세요!



..WITH FLOWERS..

전국 꽃 배달 서비스

H.P **010-9454.0766**

- 이금옥(54회) 대표 -

54



CAFE NNF (카페 엔엔에프)

- 한숙경(54회) 대표 -



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jeonju_cafe_nnf/



개교 98주년을 축하합니다

전주여자고등학교
- 교장 이영숙(54회) -



개교 98주년을 축하합니다

-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강문경(73회) -

48

최영미 회장

전임 12대 총동창회장/전주여고학교운영위원장
개교 98주년을 축하합니다

50

이경희 원장

이경희치과의원

익산시 중앙로 6 (중앙동1가) 익산역 맞은편
063-275-7752



52

김미자 원장

우리사랑치과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50
063-277-7464



54

한귀정(원장 임형기, 부군)

서민한의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라성로15, 브리파크 2층
031-494-5520





박수영 본부장
우리은행 NPS전북영업본부
개교 98주년을 축하합니다



안향자 대표
꿈공인중개사사무소
군산시 구암동 262
063-451-7739 / 010-6272-3363



전미정 작가
개교 98주년을 축하합니다
'모란을 꺾어 든 여인' 시조부문 등단



박효규 약사
편한약국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39



이난희 약사
은약국
전주시 덕진구 건원로 501
063-242-3997



48

최선주 담임목사
시카고 종려나무교회

Sunju Chong 101, Bar Harbour Rd# 2H
Schaumburg, IL 60193 U.S.A

49

이영희
하이치과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157

49

장인숙 대표
휴 예술센타

전주시 덕진구 노송여울 2길 158 4층
063-253-3644 / 010-3672-8122

50

정미우 대표
수연치과

전주시 완산구 강변로 98-1

51

신유순
하모니가족상담연구소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58, 406호(금암동, 영진빌딩)

51

이희순 과장
김수열재활의학과

52

강광숙 원장
모래내피부과의원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204 모래내피부과
063-253-2225

52

김수야 원장
수치과의원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176
063-244-2782

52

송정옥 대표
굿봄스쿨라

예술기술 융복합문화예술교육
010-4273-2111

이명숙 대표
 들깨수제비, 숯불구이, 닭매운탕
자연을 담은 사람들
 소양초등학교지나 우측으로 300M 지점
 063-244-4567 / 010-4654-7084



안순희 교장
개교 98주년을 축하합니다
 전주덕진중학교



고정순
개교 98주년을 축하합니다
 전주여고53회기대표



김예순 대표
모던디자인
 전주시 완산구 만내3길 10-7
 063-225-1470/010-4196-3770



윤수경 보건교사
개교 98주년을 축하합니다
 이리남성여고



이수 대표
이수플라워 | 부케 꽃바구니 화환 동서양란
 전주시 완산구 효동2길 29
 (063)288-6393/010-3653-6393



송신영 교사
개교 98주년을 축하합니다
 전주여자고등학교



전 주 여 고 교 가

한갑수작사

신영철작곡



기 름 이 높 이 - 달 려 하 - 늘 로 뛰 -



니 치 솟 는 빛 구 름 - 은 은 별 을 밝



혀 오 목 대 우 독 솟 은 배 움 의 동



산 겨 레 의 얼 깨 우 - 는 중 소 리 맑



다 도 탑 고 곧 은 정 성 영 - - 긴 참 술



기 누 리 의 꽃 송 일 세 우리 전 - 주 여 고

전 주 여 고 찬 가

한갑수작사

신영철작곡



기 름 이 높 이 - 달 려 하 - 늘 로 뛰 -



니 치 솟 는 빛 구 름 - 은 은 별 을 밝



혀 오 목 대 우 뚝 솟 은 배 움 의 동



산 겨 레 의 얼 깨 우 - 는 종 소 리 맑



다 도 탑 고 끝 은 정 성 영 - - 긴 참 슬



기 누 리 의 꽃 송 일 세 우리 전 - 주 여 고



5492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6길 14

TEL 063_710_5500 FAX 063_710_5577